

박호석 법사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지성 · 대중 · 생활불교로 새 불교운동 나서야"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않는 것은 바라지 말라.
현재도 순간 순간 변화하고 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월 2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81호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인경 빠진 경판조사 '반쪽' 우려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연구소 2016년까지 일제 조사사업
실측 현황 파악 · 디지털 촬영 등 연구 기초 자료 마련
예산문제로 '인경' 누락… "실제 인쇄여부 파악해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가 진행하는 조선시대 목판 일제조사 사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까지 전국 110개 사찰이 소장한 조선시대 목판 2만 7000여 점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정작 중요한 인경과 지정 연구 등 활용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찰에 소장돼 있는 목판은 대부분 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각 판본에는 고려대장경 이후 사찰로 전수돼 온 조선시대 인쇄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런 가치를 살리기 위해 3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 경판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찰 경판 조사에서는 올해 충청도 · 전라도 · 인천 · 경기 지역 사찰 50곳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부산 · 울산 · 경남 · 강원 지역 사찰 24곳, 2016년에는 대구 · 경북 · 서울지역 사찰 36곳을 연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사찰 경판 일제조사 사업은 목판의 인문학적 조사와 판종별 목록화, 수종 분석, 실측, 소장처 보존관리 현황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목판을 세척하고 보존상태를 확인한다. 또 판종 및 판수를 확인한 이후 개별 목판을 디지털 촬영이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 하에 디지털 · 적외선 촬영을 진행하지만 인쇄 가능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경'은 빠져 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경판에 대한 현황 파악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료 활용 및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경'을 해야 한다"며 "여러 목판들을 종류와 내용을 면밀히 밝히고 실제 인쇄가 되는지 여부와 그 인쇄물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측도 인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정안 스님은 "피상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인경이 꼭 필요하다"며 "목판 훼손이 심각하기에 인쇄물을 모아 보고서를 발간하면 후세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안상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주무관은 "현재 진행 예정인 사업은 수정분석 정도로 문화재가 얼마나 흩어져 있고, 훼손됐는지를 파악하자는 의미가 크다"며 "인경 부분은 뚜렷한 계획이 없다. 향후 해제나 인경 부분도 진행돼야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 문제는 사찰 경판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연구사업의 축소로 이어졌다.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전국사찰 소장 경판 지정 조사 연구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축소돼 예산이 삭감됐다.

1980년대 소장 경판을 조사한 후 문화재 지정연구 사업을 진행 중인 박상국 한국문화연구원장은 "중복사업으로 돼 R&D사업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번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연계가 돼 종별 연구와 자료 조사, 비교 관리 등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현재 사찰이 소장한 경판 360종 중 200종 이상이 국가지정 문화재 대상감"이라며 "가치가 높은 만큼 당국에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조계사 대웅전 앞 무대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선언식'을 개최했다. 순례 동참 꽃꽂기를 마친 대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분열 · 대립 넘어 '화쟁'으로"

조계종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선언식… 범종단 · 사회 확대 추진
각 종단 불교계 지도자 참석
선언엔 이웃종교인들도 동참
3월 2일 한라산 천고제 시작
6월 10일 광화문 광장서 회향

진영 논리와 사회 갈등을 타파하고 화쟁사상을 알리기 위해 길을 나설 것을 알리는 선언식이 열렸다.

조계종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조계사 대웅전 앞 무대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신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비롯해 각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자비와 화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이(不二)의 관계"라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갈등과 다툼부터 말려야 한다. 그러기에 화쟁의 길을 나서는 것은 가장 큰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화쟁 순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는 자비와 화쟁의 큰 발걸음이며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고통의 현장을 어루만지고 원융무애의 정신으로 손을 맞잡는 대장정"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끝없이 이어져야 한반도가 마침내 공존과 화해의 기운이 넘쳐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100일 순례 선언 동참자들은 3.1 정신으로 화쟁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선언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김민해 목사, 안명진 목사,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이춘호 EBS 이사장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 10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00일동안 우리는 제주에서 판문점까지 나라안 구석구석에서 펼쳐진 갈등과 화해, 아픔과 희망의 현장을 찾아 갈 것"이라며 "그 길에서 소중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 대화하고 격려하며 우리 서로가 조화롭게 연결된 이웃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례의 길에서 해원상생의 정신을 모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진영 논리를 잠재우고 천심인 민심이 우리 사회의 공론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바람대로 국민 통합의 길이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순례는 3월 2일 제주 한라산부터 이뤄진다. 순례 추진위는 2일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고제를 지내고 9일가지 제주 일대를 순례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후에는 △3월10~23일 부산울산경남 △3월24~30일 대구경북 △3월31일~4월13일 광주전남 △4월14~20일 전북 △4월21~27일 충북 △4월28일~5월4일 대전충남 △5월5~11일 강원 △5월12~18일 경기 남부 △5월19~25일 인천 △5월26일~6월1일 경기북부 △6월2~10일 서울 순으로 진행된다. 순례의 최종 회향은 6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100일 순례의 특징은 지역의 갈등 현장이나 미담이 있는 곳을 찾아가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쟁의 방법을 천착한다는 데 있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대안학교 학생, 불교단체 활동가 등 10여명이 상설 순례단으로 참여해 순례를 진행하며 지역 단위의 순례 조직들과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실천적 방안이 올해 결사추진본부가 목표인 '붓다로 살자'와 '화쟁 100일 순례'"라면서 "이번 순례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서로 보듬고 이해해 진실로 상생하는 문화의 기운이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월 국회 '종교인 과세' 처리 무산

국회 기재위, 14일 회의서… "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관련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기로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목사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일률적으로 4.4%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6~38%)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카드까지 냈으나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예상한 2015년 종교인 과세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수 기독교단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선거에서의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합신도 16일 각 총회장 공동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 중 종교인 과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불교와 각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세 정책이 결정되길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조계종은 과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불교 특성에 맞는 조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조세 당국에 요청했다. 신중일 기자



981호 INDEX

시방세계 5
불교학연구회 겨울 워크숍



종합 2·3
중앙승가대 6대 총장 원행 스님
태고종 100만인 서명 운동
94년 개혁 기념사업 준비 '봇물'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사자,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동촛대규격(㎝)	코끼리 · 사자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 中 41×21 小 35×21
청동촛대규격(㎝)	거북	大 25.8×34	中 Ⓐ21.5×29	中 Ⓑ18.5×23	小 15.5×18
	용	大 28×40	中 Ⓐ24×32	中 Ⓑ20×24	小 17×20
청동촛대규격(㎝)	연화	大 28×40	中 Ⓐ22×14	中 Ⓑ20×13	小 17×12
청동촛대규격(㎝)	방형 · 원형(2종)		中 7×9×14.5		小 6×6×12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인이 직접 만드는 제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일 걸립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조계종 학인 대상 첫 염불시연대회 연다

교육원 오는 7월 16일 개최

학인 스님들에게 염불 수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염불의 생활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시연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염불을 생활화해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계종 학인염불대회'를 오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학인염불대회는 개인부와 단체부로 나뉘어 이뤄지며, 당일 예심과 본심을 거쳐 진행된다.

개인부는 사미와 사미니로 나뉘며 각각 지정염불과 자유염불을 준비해 시연하게 된다. 지정염불은 사미는 '경허 스님 참선곡(1분 30초)' 과 장엄염불(1분 30초)을 사미니는 '이산선사 발원문(1분 30초)' 과 장엄염불(1분 30초)을 시연하며 자유 염불은 〈불교상용의례집〉및 〈석문의범〉에서 선택하거나 본인이 직접 창작해도 무방하다.

단체부는 시연시간 10분 이내로 〈불교상용의례집〉, 〈석문의범〉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며 부분발췌와 편집이 가능하다.

예심과 본심의 염불 시연 시 요령, 목탁, 경쇠, 북 등의 법구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며 모든 심사는 의례위원 스님들이 직접 심사할 계획이다.

학인 스님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물적 지원도 상당하다. 개인부와 단체부 참가팀에게는 소정의 참가지원비(개인 10만원, 단체 50만원)가 지원된다.

개인부와 단체부에서 선발된 학인에게는 대상(총무원장상) 300만원(각 부문 1명), 최우수상 300만원(2인), 우수상 300만원(3명 2팀), 원력상 200만원(4명) 등 총 17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중일 기자**

서울·경기 포교 활성화 직할교구 올해 운영 기조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19일 제1차 교구종회를 열고 신규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이날 직할교구는 9개 핵심과제와 21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지인사고과제와 관련해 공정한 주지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주지인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기만료주지인사평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사찰 주지들의 포교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중일 기자**

중앙승가대, 발전 토대 마련되나

6대 총장 원행 스님 선출… 18개월 대행 체제 '종지부'

18개월. 조계종 최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 시간이다. 중앙승가대는 2012년 9월 前 총장 태원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임한 이후 총장 대행체제를 유지해 왔다.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과 원종 스님(前 관음사 주지)은 각각 교수협의회와 중앙승가대총동문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장후보에 올랐다. 이에 중앙승가대 법인인 승가학원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총장 선출을 요청했지만 합의를 못하고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1년 6개월의 갈등은 두 후보 스님의 양보로 해결됐다. 중앙승가대총동문회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원종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前 회장인 원행스님<사진>을 총장후보로 결정했다. 미산스님을 후보로 내세웠던 교수협의회는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 사실상 원행 스님이 단독후보로 이사회에 상정되게 됐다.

이후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0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

원행 스님은 "훌륭한 교수진과 선배, 동문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아 책임이 크다.모든 분들이 잘 화합하고 종단 뜻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키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종단의 교육은 백년대계로 무엇보다 스님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학원에서도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산 · 원종 스님 후보 사퇴
"학교 발전위한 결정" 미담
최초 동문 출신 총장 기록도



승가학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100차 이사회 직후 원행 스님의 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며 직원 및 학교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원행 스님은 이에 대해 "두 후보분들이 양보의 미덕을 보인 만큼 승가인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학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기부분화 학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선 총회에서 예산 소폭 인상 및 임금 동결 등을 보고 받은 자승 스님은 원행 스님에게 "학교현실이 열악하다"며 "이번 년도 예산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종단과 동문들이 신경을 써 학교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교수 및 임직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1973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총무와 기획실장, 무주 안국사 주지를 거쳐 중앙종회의원과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해인사 승가대와 중앙승가대, 동국대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스님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집' 원장과 국제NGO 지구촌공생회 이사를 맡고 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태고종 발전위한 기금 모금운동 'START'

100만 서명 운동 발족식… "종단 구심점 될 것"

태고종이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태고종 발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족식을 갖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태고종 포교원장 경담 스님과 정경조 전국신도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산 스님은 "태고종은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대표 불교 종단이지만 사회적 역할이 미흡해 그동안 교세가 축소돼 왔다"며 "이번 서명운동과 기금모연을 통해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이러한 운동이 종도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 실추된 종단 위상을 바로 세우자고 호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은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경담 스님과 총무원장 도산 스님, 정경조 전국신도회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서명운동을 이끌 예정인 정경조 태고종 전국신도회장은 "100만 서명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라며 "태고종 모든 종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신도회장은 또 "서명운동을 통해 종도들의 애종심을 고취하고 기금을 모연해 종단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삼보호지와 포교,사회봉사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의 정법구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인 1000원 기부를 받아 종단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중앙포교원과 전국신도회가 중심이 돼 전국의 종무원에서 진행되며 월별로 추진경과가 공개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무원 대상 상설 교육 진행한다

직무 · 수행 · 인문 등 '다양'… 행정능력 향상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의 종무행정 역량을 배가시키고 인재상 확대를 위한 상설 교육을 시행한다.

조계종 총무부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무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종무원 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무원 인력 양성교육은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 교구본사 종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교육장소는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과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정보센터가 될 예정이다.

교육은 △중앙종무기관 · 산하기관 종무원 교육연수 △직무역량향상 과정 △종무행정학교 운영 △수행학교 △인문 · 사회 과정 △해외 성지 순례 총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상설 교육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인문 · 사회 과정 강좌이다. 인문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TED(Technolory Entertainment Design)형 강의로 진행되며, 스님들은 승려연수교육 중 '교양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다.

수행학교를 통해서는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과정이 마련됐으며,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사회봉사활동도 진행된다. 봉사활동의 경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인정 사회복지기관과 사찰 자원 봉사 활동으로 나눠 이뤄진다.

해외 성지순례는 중앙종무기관 입사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2월 또는 9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 종무원들은 전체 교육 중 2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특히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년 4회로 예정된 교육을 2회 이상 참가해야 하며, 일반직 종무원들은 인문사회 과정 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상설 교육에 대해 총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 환경 변화와 종무행정 영역의 변화에 따른 종무원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종무원들이 다양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종무역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1백여 행자 출가의 길에 들다

조계종 교육원, 제46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시작

19일 직지사서 고불식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8교구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46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고불식을 열고 16일 간의 수계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71명, 여행자 46명 총 117명이 참가했으며, 오는 3월 5일 에 회향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교육부장 정도 스님이 대독한 입재사를 통해 "수계교육을 통해 행자기간 동안의 수행과 정진과정을 점검하여 출가 사문의 길에 들어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교육기간 동안 성찰과 다짐을 통해 진정한 출가의 길로 가는 밑거름을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불식은 수계교육 유나인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이 행자들을 지도하는 습의도감 경암 스님에게 수계교육의 운영의 전반과 청규시행의 권위가 부여된 죽비를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제46기 수계교육은 3월 4일에 진행되는 5급 승가고시(논술, 객관식, 면접)를 거쳐 보살계를 수지하고 3월 5일에 진행되는 회향식과 수계식에서 사미 · 사미니계 수지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9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46기 사미 사미니 수계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수계교육은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승가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식 및 제6대 총장 취임식

본교 제6대 총장 행정학박사 碧山 圓行스님의 취임식과
2014년 입학식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8(2014)년 3월 3일(월) 오후 1시
장 소 : 본교 김포학사 자비관 4층 대강당

*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하오며, 화환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소중한 마음 담아 김포 지역사회의 뜻 깊은 곳에 쓰겠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동문 5기
벽산 원행 스님의
제6대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 회장 범해 합장

“개혁 20주년, 비판과 성찰 계기로 삼자”

1994년 조계종단 개혁 20년 기념사업 추진 잇달아

1994년 일어난 조계종 종단 개혁은 한국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이다. 현재 조계종 종무행정체계는 1994년 이후로 새롭게 재편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단개혁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이하 추진위)’는 2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실무진 구성과 대략적인 사업안들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법등 스님이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위원으로 현응(교육원장) · 도법(결사추진본부장) · 종훈(총무부장) · 일감(기획실장)스님과 종회의원 법안 · 영담 · 일문 · 대오 스님, 개혁불사 관계자 정우(군종교구장) · 효림 스님 · 비구니 육문 스님 · 성태용 교수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추진위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에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선출했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종회의원 일문 스님 등 9~11명으로 구성키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사업안으로는 4월 10일 기념법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관련 세미나와 사진전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식상한 백서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백서 발간도 추진되며 관련 대중 구술을 종합적으로 모아낸 구술 자료집도 제작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안은 실무위원회의 논의와 상부 보고를 거쳐 오는 3월 6일 열릴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종단개혁 20주년을 선양하는 것이 아닌 비판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위원장 법등 스님은 “항상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부조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0주년 사업은 단순히 선양이 아니라 불편하고 당황스럽더라도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추진위 구성 후 첫 회의

위원장 법등 스님… 실행위 구성

기념법회 · 구술 백서 발간 등 추진

지지조합 · 고산재단도 사업 시행

리서치 · 포럼 통해 성과 · 과제 점검





2월 20일 열린 조계종 ‘종단개혁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첫 회의〈사진 위〉와 19일 열린 지지협동조합과 고산문화재단의 20주년 좌담회〈사진 아래〉. 두 사업 모두 과거를 선양하기보다 비판과 성찰을 기조로 하고 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20주년 기념사업이 요식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단체들이 준비하는 20주년 사업들도 다채롭다. 지지협동조합(이사장 김경호)은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의 의뢰로 ‘조계종단 개혁 20년, 한국불교 진단과 미래 전망’ 주제의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단개혁 20년 기념 좌담회 △개혁이후 20년 연대기(年代記) 제작 △종단개혁 20년, 불자 및 일반시민들의 불교 인식조사 △포럼 : 개혁의 눈으로 현재를 본다 △세미나 : 한국불교 대사회적관계와 불교관련사회법의 변천 △한국불교 미래전략 심포지움 : 한국불교 미래 20년의 희망찾기 등 총 6개 사업이다.

2월 19일에는 종단 개혁 20주년 좌담회가 가장 먼저 진행됐다. 이날 좌담에는 법인 스님(일지암 암주, 전 조계종 교육부장), 동출 스님(솔바람 대표), 서화동 기자(한국경제 문화부장), 최승천(전 금강신문, 조계종 출판부장), 이남재(위드아시아 사무총장, 전 개혁회의 홍보계장) 등이 참여해 개혁 이후 성과와 과제를 되짚었다.

종단개혁 20년 연대기제작은 종단개혁 이후 진행한 종단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화함으로써 개혁 정신과 진행된 사업들이 얼마나 부합되고 일치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불교인식 리서치 사업은 민주화(문민정부 출범) 이후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전형’을 일구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국민일반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검토, 성찰해 보는 계기를 만들자는 목표점을 두고 있다.

3월 말에는 ‘개혁의 눈으로 현재를 본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되며 4월에는 한국불교 대사회적관계와 불교관련사회법의 변천 세미나도 열린다. ‘한국불교 미래전략’ 심포지움은 미래 20년 종교지형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불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지협동조합 관계자는 “종단개혁 20년을 맞아 일련의 기념사업들을 그간의 성과와 영향을 냉철하게 진행경과, 성과, 영향 등을 냉철하게 검토해보고, 종단개혁이 갖는 의미를 되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쌍용차 해고자가 만든 1호차 구입할 것”

자승 스님, 쌍용차 해고노동자 30여명에 약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직해서 만든 1호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8일 조계종 총무원 접견실을 찾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여명에게 자승 스님은 이같이 말하며 불교계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힘을 보탤 것임을 약속했다.

2월 7일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쌍용차 금속노조는 이날 총무원을 찾아 “그간 불교계가 노동자들에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며 끝까지 도움이 되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사회적 승소를 이뤘지만, 사측은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불교가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이에 “노동계에 힘이 되기 위해 종단에서 노동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문제가 무탈하게 풀리기를 기도하겠다”며 “노동자 여러분에게 종단이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배현진 기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30여명은 2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해고자 복직을 위해 불교계가 도움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남북불교 교류 위한 ‘민추본 2.0’ 마련

민추본 2월 18일 정기총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주요안건으로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민추본 발전방안 보고서(민추본 2.0) 등이 심의 의결됐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남북합동 봉축점등법회(평양 광법사), 만해 스님 70주기 기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서산대사 남북합동 국가제향 봉행,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월례강좌 등을 확정했다.

민추본 발전방안 보고서 ‘민추본 2.0’도 심의 의결했다. ‘민추본 2.0’은 지속가능한 남북불교교류 모델창출, 남북불교교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남북불교교류 추진의 우호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민추본은 “‘민추본 2.0’ 세부 로드맵 마련을 위해 3개월간 TFT를 구성 운영하고, 민추본 창립 기념일인 6월 8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자승스님, KCRP 대표회장 추대

21일 정기총회서… 화합대회 등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제8대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자승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CRP 제29차 정기총회에서 공동회장단의 추대와 참석 대의원들의 인준으로 대표회장을 맡게 됐다. 신임 대표회장에 추대된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 2년간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이웃종교 스테이, 종교평화청년캠프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결했다.

신중일 기자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추진된다

문화재청 신년 보고… 수리 자격증 강화 등 계획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문화유산 관리 체계 정상화를 천명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문화재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2월 17일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숭례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일부 훼손 등 대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실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 4월까지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 전면 점검을 통해 훼손도와 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를 추진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는 단청 · 실측설계 · 보존과학 분야 등 실기시험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매년 현장조사로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부실수리업체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해 수리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중요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1억원 이상의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원 이상의 주변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문화재 보존 관련 정책도 손본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문화재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비 지원과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소규모 지표 · 발굴조사 비용은 현재 신청 대비 지원율 71%(2013년 65억원)에서 100%(2014년 105억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한다.

고궁 · 세계유산 · 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와 목조문화재 안정성 분석시스템, 전통단청 재현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기술 · 전통소재 연구, 전통문화 융복합상품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인문학으로 보는 종교 강좌 열린다

3월 12일부터 개강, 종자연 통해 접수

인문학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종교인권 시민강좌가 개최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시민강좌 ‘종교 톺아보기’를 개최한다.

종교에 대한 객관적 거리두기를 통해 종교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마련됐다. 종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인문학, 전쟁, 죽음, 헌법, 환경, 과학 등의 주제로 총 12회에 걸쳐 강의한다.

참가 신청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12만원이며 접수는 3월 7일까지 선착순 50명 마감이다.

배현진 기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관세음보살님과 좌우보처 해수관음보살님 육관음보살님
밀적조역 84제대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관음성전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염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16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관음성전 전화 051)554-5150 팩스 051)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일 주 문



동곡학원 선화여고 졸업식

동곡학원 선화여고 이사장 돈관 스님은 2월 13일제 26회 동곡관에서 졸업식을 개최했다.



고운사 〈대승기신론〉 특강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2월 17일~21일 경내 선체험관에서 각성 스님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불교법사대 제22회 품수법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2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개최했다. 품수식에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 수료생 100여 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정일 스님 입적

부산 동구 초량동 소림사 회주 보문당 정일 스님이 세수 81세, 법랍 62년으로 2월 18일 입적했다.

스님은 1952년 소림사에서 금광스님을 은사로 1956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2년에는 소림사 3대 주지로 취임한 후 2000년 소림사 중창불사를 추진했으며 그 후로는 소림사 회주을 역임해왔다. 정일 스님의 영결식은 2월 20일, 초재는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소림사에서 봉행됐다.

광탄 스님 영결식

1978년 김해불교조계종연합을 창립해 김해지역 불교를 일으킨 광탄 스님 영결식이 2월 14일 범어사에서 교구장으로 진행됐다. 세수 71세, 법랍 55세 광탄 스님은 1944년 태어나 1960년 경주 불국사에서 지효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산 스님에게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다. 김해 성조암 주지를 지내고 김해 성광사를 창건했다.

성효 스님 원적

아산 해원사 주지 성효 스님이 2월 13일 원적에 들었다. 스님의 영결식은 15일 마곡사에서 진행됐다. 성효 스님은 1964년 마곡사에서 지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5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비구계를 받았다. 통도사 선원에서 10안거를 성만했으며 1991년부터 해원사 주지로 있었다.

"대불련 동문회, 화합에 나설 것"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 신임회장



15일 정기총회서 신임집행부 결성

'소통화합대책위' 구성 제1 공약으로

"전국동문회와 빠른 시일 내 논의"

"전국동문회와 함께 모든 조직을 포괄하는 소통화합대책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지난해 회원자격 논란으로 분열된 대불련 총동문회와 대불련 전국동문회의 '통합'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4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백효흠 현대자동차 고문을 선출하고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백 회장은 △동문회 통합 △회원조직 확대 △대불련 활성화를 제시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단결'이란 신임집행부 방향을 제시한 백 회장은 "1967년 9월 동문회의 출범 이후 반세기가 지났다"며 "동문회도 그에 맞춰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전국동문회와 함께 각 지역별 대불련 지회 및 출신 조직 등의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소통화합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 하나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최우선적 과제는 50년의 역사 속에 발생한 세대 간의 입장 차이와 사회 업무 수행하며 떨어진 응집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백 신임회장은 "대불련 때 활동했던 열정으로 돌아간다면 동문회로 다시 하나로 뭉치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동문회와 통합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불련 총동문회 제26대 집행부에 감사로 어순아 총동문회 전임감사(성신여대 불교반 지도교수), 은장권 총동문회 전임감사(대경지부 상임부회장)을 유임하고 상임이사를 역임했던 이은래 전 성균관대 불교학생회장을 신임감사로 선출했다. 사무총장은 전임사무총장의 사퇴 이후 사무총장직을 수행해 온 정용학 전 기획위원장이 맡게 됐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이어진 총회 2부에서 '소통 · 화합 · 단결로 자비나눔 기반 조성'이란 슬로건을 확정하고 △대불련 총동문회 조직 활성화 △대불련 역사 재조명 △자비나눔 기반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불련 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 · 멘티 제도를 도입해 취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 각분야에서 지도자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모아 멘토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취업 시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장학지원사업으로는 대불장학생을 선발해 5개교 단체에 각 100만원, 대불련 중앙임원 및 회원 5명에게 각 100만원, 우수 대학생 불자에게 각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개교 100명 규모로 9월 중 300만원을 지원해 총소년 템플스테이를 연다.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군승법사가 없는 군법당 18곳을 지원하고 전역예정자의 불교학생회 활동을 유도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실천승가회 9월 윤리규정 발표한다

20일 정기총회서… 상임대표 퇴휴 스님 재선출



상임대표로 재선출된 퇴휴 스님(사진 오른쪽)과 실천승가회 회원 스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서원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천승가회)가 단체회원들을 위한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라오스 불교 승가를 초청해 교류를 진행한다.

실천승가회는 2월 20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 3층 법당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상임고문 지선 스님(고불총림 방장)과 청화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명예대표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과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실천승가회는 상임대표에 퇴휴스님을 재선출 하고 공동대표는 지관 스님, 종호 스님, 혜조 스님, 재범 스님을 선출했다. 연구소장에는 가섭 스님이 선임됐다.

퇴휴 스님은 "다시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실천승가회 설립취지문을 보면 창립 당시 우리의 초심이 잘 나타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천승가회는 이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윤리 규정 마련을 통한 위상 강화 △불교국가 스님 초청사업 △새로운 불교운동방식 모색 △신입회원 발굴 및 진성회원 확대 △위원회 신설을 통한 소속감 고취를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윤리규정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9월 경 청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라오스 불교와의 교류도 진행한다. 5월 중순 라오스 승가회 소속 승려 10여 명을 초청해 불교NGO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하고 사찰도 참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천승가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본회 취지 및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종단 승려'와 '본 회 가입을 희망하는 타종단 승려'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혹은 준회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신중일 기자**

"정치인들 마땅히 지지·분수 알아야"

국회 정각회, 2월 21일 신년법회 봉행



국회 정각회는 2월21일 국회의사당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는 2월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귀빈식당에서 신년법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 일감 · 문화부장 혜일 · 호법부장 원명 스님과 정각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과 조계사 신도 등 사부대중200여 명이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가는 것 같다"며 "정치인에게 부여된 권력을 100% 다 쓰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10%의 여지를 남길 줄 아는 유연성이 없다면 정치는 늘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금강대, 美루이지애나 대학과 협약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지난해 9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 후속으로 2월 20일 루이지애나 총장 일행이 방문한 가운데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3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콰이드이아잠(Quid-i-Azam)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 대학은 불교학 연구 및 아시아 문화교류사측에서의 연구, 간다라 지역 공동연구 등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졸업생들의 감동 선물



2월 21일 동국대에서 열린 '2014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에서,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108리더스 소속 졸업생들이 마련한 작은 선물을 학내 미화원 · 경비원 · 주차관리요원들에게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원빈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동국대학교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1일 서울캠퍼스 대학본관 중강당에서 2014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1,791명, 석사 535명, 박사 77명 등 총 2,40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불광교육원

불광 아카데미 연회원 및 수강생 모집

불광 아카데미에서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다양한 경전강좌와 수행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긴 경전을 찬찬히 배우며 불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개설강좌 : 청정도론, 금강경, 아함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승만경, 유마경, 대승기신론, 중론, 유식사상 등

◆ 아카데미 상반기 주요 일정 ◆

강의명	기 간		강 사	등록금	요 일	모집분야
금 강 경	3월 3일 ~ 5월 12일	10주	범준스님	10만원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 12시
육조단경	3월 4일 ~ 4월 22일	8주	서재영(아침반) 승원스님(저녁반)	8만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위빠사나	3월12일 ~ 5월 14일	10주	정준영	10만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간 화 선	3월13일 ~ 5월 15일	10주	한중광	10만원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 12시
청정도론	4월 9일 ~ 6월 19일	10주	각묵스님	10만원	매주 수 · 목요일	수요일 저녁반 목요일 아침반
동아시아 불교	4월29일 ~ 6월 24일	8주	석길암	8만원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 ~ 12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등록 방법

1) 연회원제 : 연회비 60만원 (분납 가능) –
연간 개설되는 아카데미의 모든 강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강좌는 개별 등록 가능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42 전화 02)417-2551
www.bulkwangsa.org

– 오시는 길
· 버 스 : 석촌호수역 하차
· 지하철 : 2호선 잠실역 3번출구, 송파방향 (10분거리)

“시대와 근기에 맞는 다양한 수행법 상생 필요”



불교학연구회 워크샵에 참석한 50여명 학자들이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법을 실참하고 있다. 워크샵에서는 한국불교 실정에 맞는 새 수행법 개발과 간화선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불교학연구회, 만해마을서 겨울워크숍 ‘현대 한국수행 현장과 활용’ 주제 토론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2월 15~16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현대 한국수행의 현장과 활용’을 주제로 겨울워크숍을 개최했다. 5개의 소주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참여한 50여명의 학자들은 한국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담론을 이어갔다. 불교학연구회의 이번 워크숍은 다른 워크숍과 달리 논문을 발표하고 서로의 학문적 견해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수행과 활용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도현 스님(간화선 위빠사나 실참자), 진경 스님(거창 붓다선원),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일선 스님(금천선원장), 안희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한국불교에 들어와 있는 여러 수행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학자들은 16일 위빠사나와 MBSR 실습을 비롯해 건봉사, 신흥사 참배를 통해 신심을 다졌다.

조은수 불교학연구회 회장은 “오래 실참한 수행자와 이론가, 불교 수행을 활용한 심리치료 전문가로부터 실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수행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활용을 논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워크숍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숨에 집중하면 모든 것 잊고, 행복이 와”

도현 스님 · 진경 스님

워크숍에서는 먼저 스님들의 위빠사나 · 간화선 수행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문제 개선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선으로 만드는 행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스스로 만드는 행복은 편안히 숨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도현 스님은 출입식관 수행(아나빠나사띠바와나)의 경험을 소개하며 “원래 수행과 이론은 코드가 맞지 않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단순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내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보고 세상의 무상한 실상을 보게 된다”며 “그래서 불만족한 세간문제의 원인을 알아 고쳐감으로서 새롭게 나와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아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창 붓다선원 진경 스님은 “파욱 국제명상센터에서는 이 아나빠사사티 수행법으로써 먼저 선정을 계발하게 한다. ‘아나’는 들숨이고 ‘빠나’는 날숨, ‘사띠’는 알아차림으로 즉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다”고 위빠사나 수행을 소개했다.

“일체행이 보살행 되는 것이 간화선”

일선 스님(금천선원장)

일선 스님은 간화선이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산이기에 더욱 확산시키고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스님은 “죽는 순간 까지 살피고 살펴서 일체 행이 보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간화선의 수행”이라며 “깨달음에서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복과 지혜는 부처님과 다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살행을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스님은 “간화선은 생각이 끝이 없기에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알아차리고 의심으로 회광반조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이라며 “일체 경계를 바로 알아차리고 의심을 통해서 의심하는 놈을 돌이켜 회광반조하는 수행이기에 할수록 깊어지고 오묘한 맛이 나기 때문에 끝이 없다”며 정진을 강조했다.

“위빠사나도 꾸준한 수행법 개발의 결과”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위빠사나 수행이 근현대에와 다양한 방법으로 개량된 결과”라며 새 수행법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

정준영 교수는 현대의 상좌부 전통을 지키고 있는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은 순룬 위빠사나 수행,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 쉐우민 위빠사나 수행 등 세 가지라고 예시를 들었다.

정 교수는 “순룬의 특징은 독특한 호흡법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며 “호흡수행은 마치 주사기로 물을 빨아올리듯 신속하게 세밀하고 들이마시는 들숨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강한 호흡관찰은 마음을 조절해 집중력을 빠르게 확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오온이라는 장애를 제거할 뿐 아니라 후에 일어날 괴로운 느낌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호흡관찰 이후에는 감각관찰로 넘어가는데 정 교수는 이러한 단계의 핵심이 몸에서 나타는 모든 느낌을 움직이지 않고 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교수는 “감각을 주시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이 통증은 나의 팔에서 나타난다’ 등 ‘나’라는 생각도 ‘내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는 수행방법이다.

정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감각을 넘어선 마음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서도 “좌선 9시간, 경행 7시간 이외에 개인 처소에서도 수행은 이어 진다”며 “최대한 몸을 천천히 움직여 자신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의도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하시 수행자는 좌선과 경행을 통해 키운 주시의 힘을 일상에서 발휘한다.

정준영 교수는 “마하시 수행을 하면 단 10분이라도 ‘잡념 없이’ 대상에 밀착해 주시하는 힘이 키워져 ‘앎’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쉐우민 위빠사나 수행은 순수 위빠사나 계열로, 집중을 통한 몰입에 비해, 현상의 생멸에 대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정준영 교수는 “쉐우민 명상센터의 수행자는 관찰 대상을 마음으로 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역시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쉐우민 명상센터에서는 주시라는 표현보다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더욱 자주 사용한다”고 세 수행처를 비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도 꾸준한 개발의 결과”라며 “한국불교계가 열린 자세로 수행법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불교수행법 상생해야”

안희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안희영 교수는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MBSR의 특징과 불교명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하며 다양한 수행법의 조화를 강조했다.

안 교수는 “간화선이든 위빠사나 든 혹은 여타 수행법이든 모두 장점이 있고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며 “일상과의 괴리감 때문에 비판받는 수행법도 있는데, 다양한 수행법을 조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진행된 발표 · 토론회 모습



워크샵 이후 참석 학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안 교수는 미국에서 MBSR이 어떻게 대중화됐는지를 설명했다. 안 교수는 “과학적이고 서구적이며 종교색을 배제시킨 점 등이 MBSR이 대중화된 주요 요인”이라며 “전통적인 승가와 미국인 재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불교와 함께 MBSR 프로그램이 주요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방법론에서 MBSR이 불교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음을 예로 들며 “MBSR에 위빠사나의 마음챙김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선(禪)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현대 교육체계는 쓸 때 없는 생각만 많이 키우는 알음알이 교육을 하고 있다”며 “자각을 키우는 교육이 전무한 현실에서 향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는 종단신도 조직화의 해로 삼을 것”

중앙신도회, 2월 15~16일 임원연수 열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월 15~16일 갑오년 신년계획 수립과 신도조직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체 임원 연수를 개최했다.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원에서 열린 연수에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 포교신도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에서 중앙신도회는 유명무실화된 교구 신도회를 정비하고 중앙신도회의 역할을 종법으로 명시해 통합형 신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에도 신도단체 설립 지원,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교육사업, 신도멤버십센터 운영, 신도회보 발간 등이 신도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지난해 첫 실시된 행복바라미 캠페인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월 15~16일 전체 임원 연수를 개최했다.

중앙신도회는 특히 올해를 ‘종단신도 조직화의 해’로 정하고 교구 신도회의 내실화와 중앙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희망드림(Dream) 대장정, 신도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토론회, 행복바라미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이기흥 회장의 리더십 특강, 공주 동학사와 갑사 참배, 신년법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도 함께 자리했다. **이나은 기자**

“지역 연합회 조직 구성 ‘어·청’ 포교 활성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 산하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2014년을 불교연맹 조직 단세 확장의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정기 총회를 갖고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시도지구에 지구연합회 조직 구성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구연합회 임원을 확대 임명하고, 대불련을 비롯한 불교 포교사를 대상으로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불자가족과 함께하는 스카우팅 전개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후원회 조직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정기 총회를 갖고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45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8월 1~6일 경북 상주 강창나루 공원에서 진행하는 ‘제4회 국제 패트롤 잼버리’에 참가하고 태국 등 불교국가 등 문화 탐방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제35회 만해백일장대회…3월 1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5회 전국만해백일장 대회 개최한다.

백일장은 시 · 시조 · 산문의 3개 분야로 전국 초 · 중 · 고등부 및 대학 · 일반부에 총 500여 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참가자들의 작품 표절 방지를 위해 중등부, 고등부의 경우 감독관의 감독 하에 강의실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된다. 고등부의 경우 우수상 이상 수상을 하면 대학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서 가점 요인이 된다.

참가신청은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를 통해 하거나 행사 당일인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동국대 중강당 앞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불교계 최다 인원인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만해백일장은 3 · 1민족자주독립선언을 기념하고 만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지난 1979년 3월 1일 시작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처음으로 사람대접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양 한마음선원 · 포교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체험 실시

“남한에서 처음 맞이하는 가정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불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대접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종교를 초월해 진행되는 가정 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12~13일 1박 2일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 소속된 교육생 122명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신도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가정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20여 대중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조계종 포교사단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인솔자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12일 아침,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들은 버스에서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씩 내릴 때마다 박수와 꽃을 건네며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환영 인사를 받으며 도량에 첫 발을 들여놓은 122명의 교육생들은 정해진 번호에 맞춰 본원 신도와 하나 둘 짝을 이뤄 법당에 모여 앉았다.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택한 이 땅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 기대, 희망, 굼, 그런 마음으로 설레고 긴장되리라 생각된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다시 용기 내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고 하신 큰 스님 말씀 되새기며 신도님들도 뜻 깊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 행복을 위해 한국에 온 정착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부모 형제가 돼서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1박 2일 가정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생들이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행사는 본원 어머니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교육생들의 재기 발랄한 공연이 이어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 됐다. 신나게 박수를 치며 흥을 돋우다가도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랫말에 흐느껴 우는 이들도 있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첫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교육생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보통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각자 파트너의 손을 잡고 도량을 나섰다.

1박 2일간의 가정체험을 마치고 환송식이 열린 이튿날, 강당에 모인 참가자들은 어제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마치 십수 년 만에 친정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난 것 같았고, 동생을 만난 것 같았고,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신 신도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생들은 신도들과 함께 소감을 이야기 하며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12주간 정착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12주간의 교육 가운데 ‘1박 2일 가정체험’은 탈북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7년 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포교활동을 해온 홍성란 포교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그동안 우리 불교가 열악한 상태였지만 한마음선원을 비롯해 봉녕사, 불광사, 도선사, 홍법사, 인천불교회관 등 여러 사찰에서 가정체험프로그램에 협조해 많은 탈북 동포들이 불교 법당으로 몰리게 됐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통일 후 불교를 포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포교는 먼 훗날 통일을 대비한 중요한 포교의 한 부분이다. 한마음선원의 뛰어난 조직력과 사부대중의 친절함으로 탈북동포들이 매우 고마워 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마음 행복해지는 ‘수행자 레시피’ 전하다

문화사업단, 국내 요리전문가 대상 사찰음식 팸투어

한국 조리계를 이끄는 유명호텔 쉐프와 기능장, 국내 대학 조리학과 교수진들이 사찰음식의 맛과 지혜를 찾아 전국 사찰을 찾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진관사, 대전 영선사, 장성 백양사 천진암 등 3개 사찰에서 국내 요리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사찰음식 팸투어는 최근 채식문화의 확산과 웰빙 음식 메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조리업계 관계자 및 관계기관 교수진, 연구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불교적 생명사상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영선사와 백양사 천진암에서 실시한 1차 팸투어에서는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스님, 정관스님과 함께 사찰식 전통 조청, 등겨장을 비롯해 장아찌, 채소부각 등 다양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며 음식 속에 담긴 불가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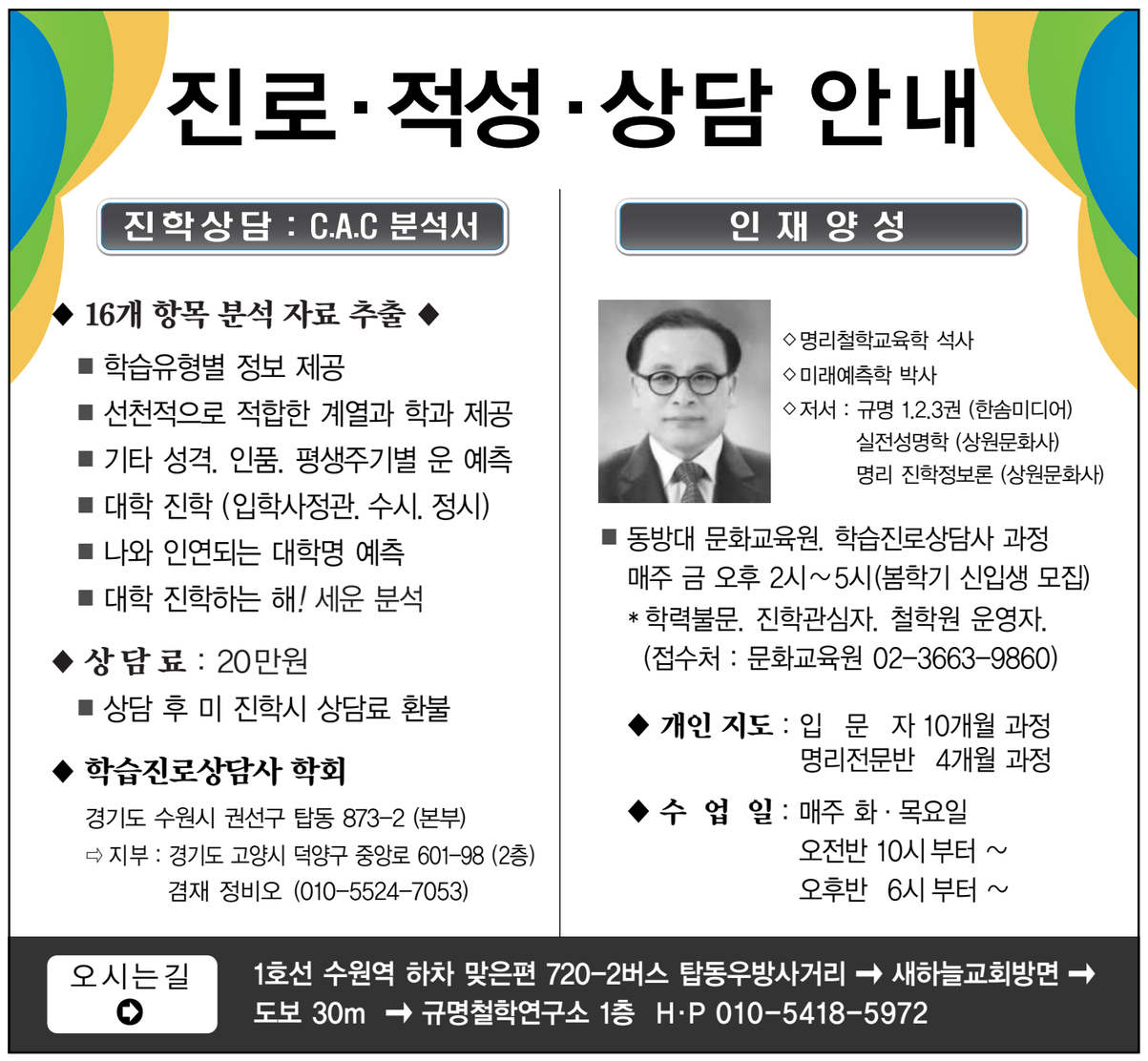
또 2월 18일 2차 팸투어가 진행된 진관사에서는 발우공양 체험과 ‘정월 장담그기’, 김, 두부, 짠무 장아찌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먹거리와 소소한 재료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찰식 레시피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강연을 맡은 사찰음식 전문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장 담그기는 생명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의 기원을 담은 의식과 같다”며 “매년 정월 대보름날 좋은 시간을 택해 장을 담는 마음에는 어떤 재료를 섞어도, 오래 묵혀두어도 변함없이 좋은 맛과 향이 나는 된장 같은 수행자가 되길 바랬던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요리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정상은 (사)전통음식연구소 팀장은 “종교적인 관점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써 사찰음식의 우수성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며 “일반인들에게 사찰음식의 건강함과 스님들의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의 소외된 이들에게 자비 손길을"

불교계NGO 월드머시코리아 2014 신년사업 발표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대표 현진 스님)가 올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구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월드머시코리아는 최근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베트남 학습환경개선 사업 △미얀마 장학금 지원사업 △영등포 관내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 △정읍 빈곤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종립대 학생 장학금 지원 △군부대 지원 사업 △동국대 참사랑봉사 연계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장학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영등포 관내 초중고교생 장학 지원사업은 경제문제로 학업정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40명에게 연간 총 2400만원이 지원된다. 월드머시 코리아는 이를 위해 영등포구청과 협약을 맺고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연계한 학생들에게 매월 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교육 등 멘토교육도 진행한다.

정읍 빈곤가정 장학금지원은 정읍 내 학생 20명에게 총 1440만원이 전달된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도 진행해 일반대학은 5명에게 연 1회 100만원, 종립 동국대는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학생 10명에게 연 1000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도 진행해 국내 대학에 유학온 아시아지역 승려유학생들 3명에게 어학원 등록비 및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2년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 해외봉사 활동을 전개한 모습. 하단 왼쪽 다섯 번째가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

베트남·미얀마 교육·장학사업 전개
국내 동국대 및 저소득 학생 돕기도
현진 스님 "불자들 자비행 참여 절실"

한문호 월드머시코리아 사무처장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불자리더로 키우고자 함"이라며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국제구호 활동도 전개방향으로 설정했다. 베트남 푸엔성과 호치민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3개부대가 주둔하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또 이들 중 일부를 특별장학생으로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베트남 화폐로 약 45억 동(한화 약 2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푸엔성 및 호치민시 지역 학생 500여 명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며 학교건립 및 기존학교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다.

국제 구호활동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미얀마 레부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내 학생 116명을 지원하는 한편(1160만원)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1000만원)

대표 현진 스님은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무지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촌에 산재돼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교육과 복지 지원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기여와 참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라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월드머시코리아는 27일 여의도 포교원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월드머시코리아는 '나와 세상이 불이(不二)이며, 자비실천이 인류 구원'이란 모토로 2011년 3월 출범한 국제구호NGO로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NGO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 문의 (02)784-913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故 신정원 스님, 미얀마 학교 1억원 기부



일본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해온 故 신정원 스님〈사진〉이 기탁한 1억6백여만원이 미얀마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인다.

故 신정원 스님은 일본 오사카에 청광사를 창건해 일본에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일생을 바쳐왔다. 상좌인 상일 스님과 청광사 주지 탁연 스님은 故 신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후원금을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에 전달했다.

더프라미스 측은 기부금을 미얀마 빤따노 지역 오보중학교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1954년 설립돼 붕괴 위험에 처한 상태로 현재 316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책걸상도 부족해 바닥에 앉아 수업을 받는 상황이다.

후원금은 신축 건물 1채와 책걸상 지원에 사용된다. 올 11월 건물 착공 후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위안부 할머니 인권센터 건립된다

나눔의집, 28일 착공식… 김화선 할머니 기탁금 밑거름

위안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기부한 돈이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에 쓰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모여 지내는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착공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 인근 터에 층당 45평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질 인권센터는 주로 세미나, 교육 용도로 사용된다. 1층은 사무실과 전시실, 2층은 세미나실과 자료실, 3층은 숙소로 쓰일 예정이다.

건립에는 2012년 6월 별세한 김화선 할머니가 나눔의 집에 기탁한 6천만원이 씨앗이 됐다. 16세 때 싱가포르에 강제 징용당했던 김 할머니는 해방 후 대전에서 혼자 생활하다 2008년 나눔의집에 입소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보시행으로 주위 사람에게 귀감이 됐다. 남의 논 밭 일을 하면서 마련한 장학금으로 학업을 포기하려던 대학생 23명을 졸업시키기도 했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김 할머니의 기부금을 뜻있게 쓰고자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위안부 피해에 대해 알고자 일부러 이곳까지 찾지만 한번 둘러보고 마는 것에 아쉬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데 앞장설 전문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김 할머니의 기부금을 받은 이후로 죽 모연활동을 해왔으며 총 예산 5억원 중 3억원을 모금한 상태다.

안 소장은 "위안부 피해는 역사와 인권의 문제"라며 "인권센터를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알리는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나눔의집에서는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기원하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묵념에 이어 살풀이 춤, 헌화, 추모사가 낭독됐으며 뮤지컬 꽃신의 배우들의 공연도 펼쳐졌다. 031)768-0064 배현진 기자

"꿈에 대한 자신감 생겼어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의지나눔 6기 수료식


원경 스님이 의지나눔 수료증을 수여하고있다.

"의지나눔을 통해 바리스타를 꿈꾸게 되었어요. 실제 체험해보면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제 모습이 참 뿌듯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감사해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19일 개최한 6기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이하 의지나눔) 수료식. 수줍은 많은 권성화(16.당곡중 3) 학생은 의지나눔 6기 수료식을 마치며 이처럼 말했다. 의지나눔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 및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성화 학생은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알지 못했지만 바리스타 체험을 해보면서 커피 만들기의 매력과 재미에 빠지게 됐다. 직업 멘토링에는 63파빌리온 뷔페 추태진 바리스타가 재능기부했다.

유세영(16.전농중 3) 학생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유세영 학생은 "학업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도전해 합격하는 뿌듯함을 안았다"며 "의지나눔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해 3월부터 20여 차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50명의 학생들은 학예연구사, 언론인, 아쿠아리스트, 연극인, 증권투자가, 공연설비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거쳤다.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꽃에게는 저마다 꽃피는 시기가 따로 있듯, 삶에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삶을 위해 다들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한다"며 꿈을 찾아 나갈 학생들에게 건투를 빌었다.

의지나눔 7기 참가자 모집은 3월부터 시작된다. 배현진 기자

1km마다 100원씩 모금…탈북자녀 장학금

진오 스님, 15일 11명에 220만원 전달



진오 스님(사진 가운데)이 섬진강 마라톤을 통해 마련한 통일장학금을 탈북자녀들에게 전달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2월 15일 북한이주민 자녀 11명에게 2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통일장학금은 '마라톤 스님'으로 유명한 진오 스님이 섬진강 자전거길 148km를 뛰면서 1km마다 100원씩 모금해서 마련했다.

진오 스님은 "북한이주민은 미리 온 작은 통일이다. 남한 정착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남북통일에 씨앗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참고 뛰었다"고 이주민 자녀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영남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기숙사비 120만원을 해결하지 못해 곤란을 겪던 상황이었다.

현재 남한에 있는 북한이주민은 약 2만 6천여명. 이번 장학금을 주관한 북한이탈청소년그룹 '오뚜기쉼터' 측은 "탈북 자녀들이 귀중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통일장학금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구미이주노동자상담센터, 외국인쉼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다문화 달팽이 모자원, 북한청소년 오뚜기쉼터 등 이주민 인권보호 사업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다. 배현진 기자

청호불교복지우수상에 주민정·임미영 씨

연구부문 포함 7명 선정


주민정 씨


임미영 씨

사회복지현장의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청호불교복지우수상에 주민정씨와 임미영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호불교문화원(이사장 이종욱)은 제3회 청호불교복지상에 주민정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장의 '불교식 상·장례문화 보급 민 봉사단 운영'과 임미영 파라밀 요양원 부장의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장려상에는 이왕옥(법동종합사회복지관)씨의 '남북주민 통합역량 강화 프로그램', 조민지(옥수종합사회복지관)씨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여철환(늘기쁜 마을)씨의 '정토의 하얀 연꽃', 양수경(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양수씨의 '전문노인해설봉사단' 등이 뽑혔다.

연구업적부문에는 20여 편의 논문 중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제출한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호불교문화원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우수상 500만원, 장려상 200만원, 연구상 30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된다. 배현진 기자

본원종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9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개 강 일 : 2014년 3월 3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청게, 요잡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원서접수 : 수시모집 (FAX 02)379-2746)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종 총무원
▣ 수 강 료 : 월 일십만원 (100,000)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3-6340

※ 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승가학과 강원생 모집

■ 모집학과 : 승가학과 2년 과정 00명
■ 강론과목 : 아리야삿짜수행론. 능엄경. 초전법륜경. 원각경. 아함경. 능단금강경. 무아경. 화엄경입법계품.
■ 강의시간 : **- 매월 2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매월 4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단, 법회일과 중복시는 휴강함.
- 입학 오리엔테이션 및 첫 강의 :
3월 15일(토) 오후 3시 ~ 오후 7시까지
■ 강의장소 : 성남 동화사 설법전(성남시 수정구 태평 3동 3638번지)
■ 수강대상 : 종단 관계없이 수행자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료 무료)
● 입학 희망 수행자는 www.arahan.org에 접속하시어 공지사항 : 승가학과 모집안내 - 좌측상단의 입학원서를 작성 후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중앙승가강원 교학처 [팩스 031)753-3354]**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효원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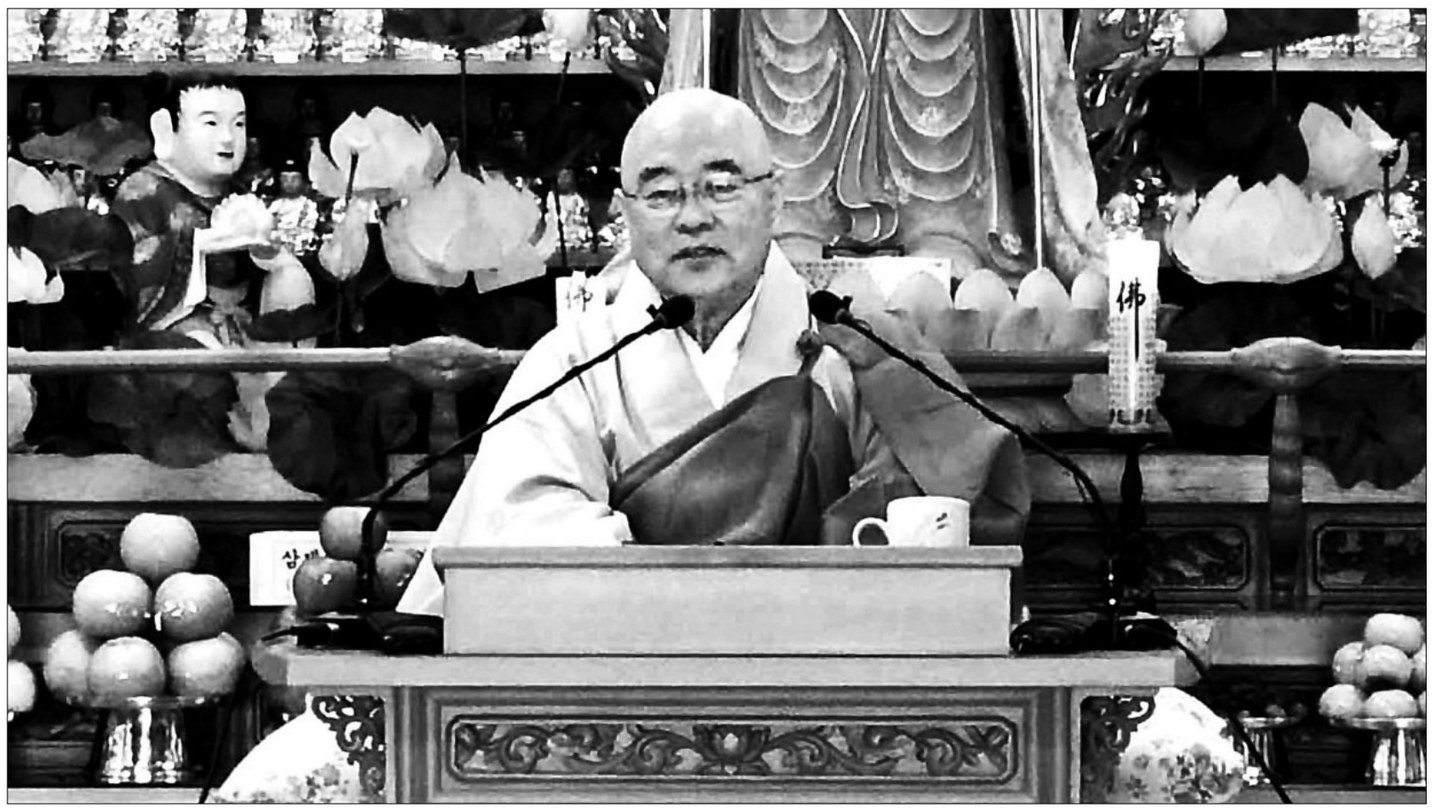
“한량 없는 ‘붓다 생명력’ 알면 우주 원리 터득”

법왕사 법고좌대설법회

각현 스님(연꽃마을 대표이사)

〈법화경〉은 〈반야경〉 〈유마경〉 〈화엄경〉과 함께 초기에 성립된 대승경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화경〉은 모든 불교경전 중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수많은 민족들이 애호했던 대승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 법왕사가 백고좌 대설법회를 통해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이 법사로 초대됐다. 스님은 법화경 17품 ‘분별공덕품’ 을 통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다는 가르침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설명해주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각현 스님은 … 1944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구 동화사 강원에서 공부했고, 1974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홍콩 중문대학 중문학부를 수료했으며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의왕 청계사 주지, 홍콩 홍법원장, 법주사 부주지를 지냈다. 1990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법인을 이끌며 복지 불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조계종 11대 중앙종회의원, 청주불교방송사장, 용인요양원 원장, 한국 노인문화진흥회 공동회장, 법보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직을 맡고 있다.

법왕사가 〈화엄경〉과 〈법화경〉으로 법회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방에 모셔 놓기만 해도 커다란 공덕이라고 선사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은 스님들을 통해 이들을 강의로 듣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왕사 신도 모두는 큰 공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법왕사의 발전된 모습을 보니 주지스님이 지극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공덕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읽은 17품 분별 공덕품은 16품 ‘여래수량품’ 의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아는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의 정신이 어떤것인지부터 얘기하고 본문 내용을 설명해볼까요? 법화경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것이 위대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법화경〉의 정신은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박고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혼탁한 사바세계 속에서 뿌리를 박고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법화경〉은 묘하고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존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가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부처님은 대우주를 주관하는 유일무이한 대생명력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언젠가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불할 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법화경〉은 또 하나의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성불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요.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하고 기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정신이 국민 개개인에게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은 우리 모두가 보살이므로 불법을 전달하는 법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4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을 배워야 합니다. 법화 행자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법사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왕사에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불법승 삼보를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지 않으면 불교의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분별공덕품에서 얘기하는 한량없는 수명을 아는 공덕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법화경〉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첫째는 언젠가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모든 중생은 윤회하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3대 특징입니다.

〈법화경〉의 4대 정신과 3대 특징을 알고 〈법화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분별공덕품은 부처님의 생명이 한량함이 없다는 것을 듣고 모든 보살들이 성불하게 됨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시기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분별 공덕’ 이라고 합니다.

봄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성장하지만 각각에 따라 차이가 있듯이,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 ‘분별공덕’ 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훌륭한 공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물이 불생불멸임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불생불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은 더럽고 추한 것을 초월한 한량없는 사물에 불생불멸함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수명이 영구함을 아는 것이 되어 거기에 공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신불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영원불변의 진실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만유제법이 부처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많은 사찰에서 보셨겠지만 오른손으로 왼쪽 손가락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영원불변의 진실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신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법신불의 위대함과 유구함과 대우주를 주관하는 대생명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과 제법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연기와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 근본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의 원리를 터득하는데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묘하고 바른 가르침
> 알려주는 말씀이 〈법화경〉
> 부처님 수명 장구함을 믿고
> 이를 설하고 수지하고
> 간곡하게 간직하면
> 세상 일체의 진리를
> 얻은 것과 같다.”

부처님 생명의 무한한 공덕, 불생불멸, 법신불의 장구함 이 세 가지가 연기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의 세계입니다. 제법실상을 이해하는 세계는 끊임없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에서는 부처님의 생명이 장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시나 죽고 난 이후에 이를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말씀 듣고 믿고 실천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더 큰 공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말씀을 믿으면 여래가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80세에 열반하실 때 중생에게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해 육신을 탈피하게 되었고 참생명으로 영원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래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 수명이 장구함을 믿고 이를 설하고 수지하고 알리고 내 가슴속으로 간곡하게 간직하면 바로 이 세상 일체의 진리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 수명의 장구함을 믿으면 부처님이 늘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래수량품에서 말씀하시는 한량없다는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을 경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명이 장구하다는 것을 깊이 믿으면 영축산 설법을 들을 정도로 사바세계가 정토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부처님 멸도 후 바로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것을 듣고 실천하면 5가지 공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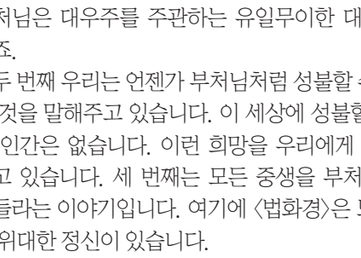
첫째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둘째는 머리에 부처님을 이고 사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내용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전법하면 탑을 불사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의 위대한 생명력을 알고 육바라밀을 행한다면 이 세상 우주의 원리를 터득한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의 모두를 실천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에 도달한 자이기 때문에 탑을 세워 부처님전을 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불법 홍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화경〉 수지독송을 강조하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는 방법은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지하고 설하고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간절함을 발원하면 여러분의 소망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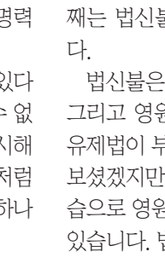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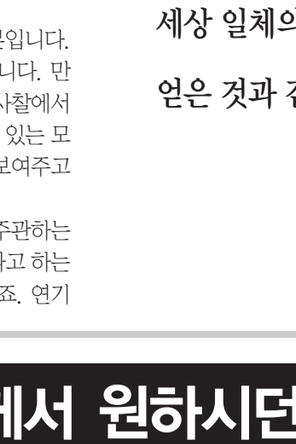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박사는 응용불교 · 석사는 교학 강세


이송곤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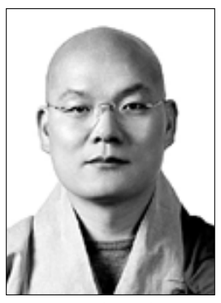

김광수 박사


전미옥 박사


박재용 박사


김지연 박사


안필섭 박사


보경 스님

동국대, 상반기 '불교박사' 7명 배출
불교경제 · 인지과학 등 저변 넓혀

올해 상반기 동국대에서 7명의 불교 박사와 22명의 석사가 배출됐다. 동국대는 2014년 봄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자 중 불교관련 박사로 △이송곤, '청정도론의 점교적 교육체계 연구-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수행법을 중심으로' (응용불교학) △김광수, 시장경제에 대한 불교경제학적 연구(응용불교학) △전미옥, 초기불교의 지각이론 연구-인지과학적 해석을 중심으로(응용불교학) △박재용, 5심(心)에 관한 연구-식(識)의 구기(俱起)와 상속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불교교학) △김지연, '석마하연론' 의 주석적 연구- '해동소' 와 '현수의기' 의 비교를 중심으로(불교교학) △보경 스님, 수선사 연구(선학) △안필섭, '전철학강요' 에 개설된 요가사상 연구(인도철학) 등 7명을 발표했다.

박사 논문에서는 응용불교학 분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법에 대한 교육체계 연구를 비롯해 인지과학과 불교의 접점, 불교시장경제학 등에 대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먼저 김광수 박사는 '시장경제에 대한 불교경제학적 연구' 에서 '수행생활 공동체 운동' 을 통해 시장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는 대부분 대자본의 무한팽창에서 기인한다"며 "자본의 집중은 생계경제를 파괴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생산 · 소비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며 동시에 불교적 수행이 전제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박사는 물신주의를 극복하고 적은 물질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불교적 가치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미옥 박사는 '초기불교의 지각이론 연구' 에서 인지과학과의 접점을 고찰했다. 전 박사는 "감각과 지각은 동반관계에 있으며 우리는 지각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아관념을 생성시킨다"고 분석했다. 전 박사는 또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근원인 무명의 근저에는 자아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항상 자아가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이는 지각과정에서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라며 "지각과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여러 개념을 알 수 있으며 인간 존재의 비실체성을 알 수 있고, 또 무아를 이해해 번뇌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불교 석사 학위수여자는 △오진영(Kaliyani), '문궤소(文軌疏)' 의 인명관 연구 △박은희, 〈화엄경〉 현수품의 신(信) 연구 △범허 스님, 〈대승기신론〉의 지관수행에 관한 연구 △무념 스님, 〈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사상의 연구 △각천 스님, 남북전아비달마의 방편도수행 7단계 비교연구 △법광 스님, 규봉종밀의 홍주종 비판 연구-화엄의 4법계관을 중심으로 △법우 스님, 도봉유문(道峰有聞) 법성게과주(法性偈科註)의 화엄사상 연구 △혜인 스님,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인식연구 △서은희, 신라 성립 경전 연구-〈금강삼매경〉을 중심으로 △정우 스님, '법계도기총수록' 의 무측사상 연구 △도우 스님, 용성선사의 임종행의(臨終行儀) 연구-임종결(臨終訣)을 중심으로 △이정현(보리행), 선가귀감의 선사상과 간화수행법 연구 △견명 스님, 아쇼까왕과 제3결집의 위상에 관한 연구-까타왓투 주석서의 서문을 중심으로 △현욱 스님, 〈부설전〉의 구도와 선적 체계 연구 △박보군, 고려시대 금속제 탑 연구 △최미리, 조선시대 '불설대보부모은중경' 판화 연구 △박진호, 황룡사지 구층목탑의 복원 연구 △조봄, 조선후기 사천왕상 연구 △법락 스님, 용수 '中論' 의 정견에 관한 연구 △이수연, 영철작(靈哲作) 화계사 명부전 조상 연구 △송자민, 운혜작(雲惠作) 해남 서동사 목조삼세불좌상 연구 등 22명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해야"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미술사 41집〉서 교류현황 고찰

문화재청이 고구려 · 발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지역 고구려 · 고려 불교문화재에 대한 교류를 통한 남북교류를 제시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술사연구소가 발간하는 〈미술사 41집〉에서 '불교문화재 관련 대북교류의 과제' 논문에서 북한 불교문화재를 지역별, 유형별, 사찰별로 분류하고, 대북 불교문화재 교류의 방향을 모색했다.

최 교수는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남북 불교문화재 교류 활동을 평가한 뒤, 문화재와 관련한 남북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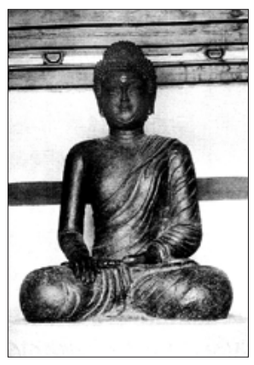
최 교수는 "북한 지역에는 고구려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재가 다량 전해지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고구려 불교조각이나 고려시대 불교미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 훌륭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동안 대북 불교문화 교류의 시도로 사찰 복원 지원사업을 꼽았다. 최 교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 14동을 복원한 일이나 천태종단에서 영통사 복원공사 단청을 지원한 일은 불교미술과 문화재에서 매우 의미있던 교류였다"며 "특히 2004년 발족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회에 이은 학자들의 교류로 남북한 문화교류가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성은 교수는 "먼저 남북 연구자들의 교류가 가능한 정치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자들의 교류가 시작되고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와 유적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등 인적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불좌상의 범'.


개성고려박물관 소장 '현화사 칠층석탑'.


개성고려박물관 소장 '적조사지 철불좌상'

최 교수는 △개성지역 △금강산 지역 △평양지역 고구려 불교유적 △발해지역 문화재조사 등 남북한 공동 조사를 비롯해 불교미술사 공동연구, 남북한 불교문화재 순회 전시 등을 문화재 교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남북 공동관심 주제인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일체감을 이끌어 내는 배경을 형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남북 문화재 교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최 교수가 이번 논문을 통해 밝힌 북한지역 불교문화재는 박물관 소장 문화재로 불상 60점, 공예품 22점, 서지 1점, 석조 15점, 회화 10점이며, 사찰 소장 문화재는 평양 광법사, 개성 영통사 등 44곳에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덕현 기자

왕흥사서 마야부인 추정 청동인물상 발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왕흥사지 발굴성과 발표

마야부인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인물상이 부여 왕흥사 터에서 발굴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2월 2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부여 왕흥사 터에서 지난해 수습한 소형 청동인물상을 공개했다.

청동인물상은 높이 6㎝에 폭 2.5㎝인 소형으로 강당지 고려문화층 중 맨 아래층에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비파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조각상의 재료는 구리, 주석 합금으로 판명됐다.

연구소는 "이와 비슷한 인물상은 출토사례가 전혀 없고, 고려시대 문화층 최하층에서 출토된 까닭에 제작된 시기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시대 이전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삼국시대, 예컨대 왕흥사가 창건된 백제시대 유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동 인물상에 대해 연구소는 "석가모니를 출산하는 마야부인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자세와 발밑까지 내려오는 주름치마를 입은 복식은 국내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다"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왕흥사 청동인물상

이에 대해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인물상의 옷차림 양식으로 보아 춤추는 천인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왕흥사지는 577년 백제 위덕왕(威德王. 재위 554~598)이 봉안한 사리장엄(舍利莊嚴)이 출토된 사찰 유적으로 최근 강당지와 동 · 서 건물지, 강당 좌우에 배치된 건물지, 사역 서편 건물지 등의 규모와 내부구조, 축조과정 등이 확인됐다. 노덕현 기자

제9기 한국정토학회장에 신규탁 교수

8월 조상신앙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등 계획 발표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한정식 산유화에서 한국정토학회 제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신규탁 교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정토학회 회장직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역대 회장스님들의 노력을 본받아 정토학이 폭넓게 연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9기 회장단으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 스님이 수석부회장,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8대 회장을 맡았던 성운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학술지 투고 논문들이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돼 학술세미나가 갈수록 번창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본 학회가 행복정토 복지사회를 발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축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탁 교수가 전임회장 성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정토학회는 8월 인천 흥륜사에서 조상신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동방대학원대, 동양화 전공 학사과정 신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고광용)는 선묵화(禪墨畵)를 중심으로 한 동양화 전공의 학사과정이 신설한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3월부터 학점은행제 주말반과정으로 '동양화 전공'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신입및 편입생 20명을 모집한다.

올해 새로 동양화전공 학사과정에 대한 과정을 인가받은 동방대학원대학교는 동양화(선묵화), 서예(캘리그래피), 전각, 문인화, 드로잉 등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2월 27일까지 1차 모집이 진행되며 2월 28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동양화 전공 과정에는 선묵화로 유명한 담원 김창배 화백을 비롯해 우송헌, 김영삼, 최은철, 하영준, 이영철 화백과 홍익대 박사출신의 교수들이 강의를 맡으며 수업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다.

(02)3668-9890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8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불교의식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육과정 포함사항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 (시련에서 ~ 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 법

● 특 강 : 홍고 ● 교육기간 : 1년 과정
● 대 상 : 스님, 법사, 제가불자
● 개강일시 : 2014년 3월 7일 첫째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 오후 4시까지 제공
● 교육문의 : 회장 관희스님 010-8290-6623
● 교육관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 (중앙불교대학 3층)
홈페이지 www.송강사.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월정사 탑돌이 대중에게 다가가다

문화재 지정 위한 본격 행보 나서…14일 시연, 대중성 강화 밝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월정사 탑돌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월정사는 지난해 '월정사탑돌이보존회'를 설립하고 학술심포지엄과 세미나, 월례 탑돌이 시연 등을 진행한 데 이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월정사 탑돌이의 학술적 · 이론적 토대가 구축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월정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문화 저변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의 일환이다. 월정사는 문화재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제자리 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월정사와 탑돌이보존회는 먼저 월정사 탑돌이의 시 ·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힘을 쏟는다. 2월 14일에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에서 '갑오년 정월보름 탑돌이'가 진행됐다. 이날 탑돌이는 불교적인 의식과 함께 범패, 바라무, 승무 공연은 물론 농악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행사에는 월정사 · 상원사 · 지장암 · 육수암 등 스님 70명, 탑돌이보존회 회원 75명, 지역 청년회 35명, 농악대 30명, 월정사불교문화대학 16명, 일반인 30명 등 모두 256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보존회는 앞으로 이날 선보인 월정사 탑돌이'의 각 과장에 현대적인 콘텐츠를 가미하고 연희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정임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원구원은 "월정사 탑돌이의 구성을 더욱 세분화해 원형 재현에 가깝게 구성했다"며 "향후 대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연출적인 부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정사 탑돌이는 무엇?

'월정사 탑돌이'는 월정사 8각9층석탑(국보 제48호)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민속화된 불교의식이다. 월정사가 '월정사 탑돌이'의 문화재 지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월정사 탑돌이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월정사 측은 "월정사 탑돌이의 전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불교 문화자원은 '영산재(靈山齋 · 제50호)'와 '연등회(燃燈會 · 제122호)' 등으로 불교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월정사 탑돌이의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꾸준하게 탑돌이가 설행되는 곳은 월정사가 거의 유일하고, 8각9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 등의 가치도 충분한 만큼 문화재 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적당한 한계와 범위 안에서 월정사 탑돌이의 '원형(原形)'을 살리고 '변용(變容)'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용덕 한양대 교수는 "문화재 지정이 월정사의 탑돌이 전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된다"며 "창의적인 전승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원형과 변용' 그 경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9층석탑에서 진행되는 탑돌이 모습. 탑돌이 이후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청소년리더쉽캠프



한국불교의 미래인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불교캠프가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2월 8일~9일 양일간 증심사와 무등산 일대에서 '제1회 청소년리더쉽캠프'를 개최했다.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8일 오후 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레크레이션, 지장스님의 리더쉽 강의1(붓다의 리더쉽), 예불, 리더쉽 강의2(미국 7000km 자전거로 횡단한 24세 청년 박형중), 자신의 장점과 미래설계 등이 진행됐다.

행사의 두 번째 날은 기상과 함께 예불, 108배 절명상, 주먹밥 만들기와 함께 무등산 종주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한 지장 스님은 행복명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로에게 따뜻하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파트너에게 삼배를 올리고 '행복하라'며 안아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미국을 자전거 횡단한 박형중씨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만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형중씨는 84일간 500만원으로 미국 자전거 횡단을 한 이야기를 들려줘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 포교사단, 5·18묘역 염불봉사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영령을 위한 염불의식이 봉행됐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2월 15일 광주망월동 제3묘역(구 518묘역)에서 민주영령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엄염불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염불의식은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의 의식진행으로 한경자 포교사의 살풀이, 장엄염불의식, 인사말, 법문, 반야심경이 봉독됐다.

현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5.18민주영령들의 참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단은 이날 첫 5.18묘역 염불봉사에 이어 매월 1회씩 지역단 주최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선지식 초청법회 봉행

암도 스님 첫 법사로 나서, 지역포교 구심점에서 마련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는 2월 14일 33명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청하는 '33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지역 불자들의 활발한 신행활동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초청법회의 첫 법사로는 조계종 원로위원 암도 스님이 나섰다. 스님은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법석을 열었다.

암도 스님은 법문에서 "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사람운동"이라며 "참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신 · 구 · 의 삼업의 청정을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참선, 기도, 절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고 중생심을 버리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일행 스님은 33선지식 초정법회를 시작하는 인사말로 "작은 시골 마을의 불자들이 이 시대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활발한 신행생활을 이어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초청법회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선지식을 초청해 신해행증의 근본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청법회 후에는 신도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개최해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익산시 오산면에 자리한 정각사는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판매수익금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는 작은 사찰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삼장지장 선양운동 펼친다

15일 지장보궁 천일 지장기도 입재, 700여 대중동참 발원



천장, 지지, 인장의 삼장지장보살 기도성지인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1,000일간에 걸친 기도정진이 진행된다.

선운사는 2월 15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서울, 울산, 부산, 경북 의성 등 전국각지에서 운집한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일지장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운사는 도솔암의 천장 지장보살, 선운사 지장보궁의 지지 지장보살, 참당암의 인장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삼장지장기도 도량이다"고 소개하고 "삼장 지장보살 선양운동을 통해 수행과 복지,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은 입재법어를 통해 "기도의 시작은 참회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지난날들의 악업을 참회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강조했다.

입재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도솔천에 약 3천수의 치어를 방생해 지장보살의 생명존중 사상을 되새겼다. 선운사는 이 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천일간 지장기도 정진에 들어갔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지속한다. 매 100일마다 선망영가들을 위한 영산작법 스님들이 주관하는 천도재가 봉행된다. 도솔암에서도 하루 16시간동안 8분정진에 이어 주말마다 철야정진이 계속된다. 선운사는 지난 1월 천일관음정진기도를 회향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흥천사, 자비의 쌀 나눔 실천

군산 흥천사(주지 법희)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10년 넘게 군산 화물역전의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펼쳐오고 있는 흥천사는 2월 20일 90만원 상당의 자비의 쌀 30포대를 관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법희스님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자비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김금만 해신동장은 "경기침체로 이웃들끼리 따뜻한 정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어 감사하다"며 "스님과 신도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양성전문강원

2014(불기 2558)학년도 상원사 부설 삼학불교강원 학인모집 안내

사정상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에 뜻을 두고 있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 강원 과정의 교육을 개설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과과정안내

과정	교육기간	교과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고
		1학기 (5개월)	2학기 (5개월)			
치문반	1년	초발심자경문 승가율의	치문	매주 월, 화	*1교시 : 오후 6:00 ~ 오후 7:30 *2교시 : 오후 7:40 ~ 오후 9:10	2014년도 개강
사집반	1년	도서, 선요	서장	목, 금	2015년도 개 강	
사교반	2년	금강경오가해	대승백법명문론 / 원각경	목, 금		
		대승기신론	능엄경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3일(목요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수 강 료 : 1학기당 40만원
◆ 접수문의 : ☎ 02)833-0374, 833-0375
Fax. 02)834-0789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 찾아오는 길 ① 전철 2호선 8번 출구 → 대동초등교 → 관악농협 맞은편
② 전철 7호선 11번 출구 → 대동초등교 → 관악농협 맞은편
◆ 한문이 익숙하지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본 강원은 초종파 강원으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상원사 주지 강법정
삼학강원 강주 박도종 합장

팔공총림 동화사 법화산림대법회

3월 1일~4일 12일까지


동화사 법화산림법회가 3월 1일~4일 12일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된다. 사진은 지난 해 법회 장면.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동화사 법화산림법회가 3월 1일~4일 12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된다. 법회는 기도와 헌공에 이어 삼귀의례와 찬불가로 시작해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이루어지며 사홍서원으로 폐회가 된다.

올해는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며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법문으로 회향한다.

법사로는 △3월 1일 혜거 스님(금강선원 선원장) △3월 2일 암도 스님(마하무량사 회주) △3월 8일 양관 스님(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 학장) △3월 15일 허운 스님(파계사 주지) △3월 16일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3월 22일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3월 23일 용학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3월 29일 수불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주지)△3월 30일 용타 스님(행복마을 주지)△4월 5일 원광 스님(팔공총림 동화사 총무국장) △4월 6일 성문 스님(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4월 12일 무비 스님(조계종 전 교육원장) 등이 나선다.

혜거 스님 법문 입재

선지식 12명 감로법문

법화경은 부처님 열반 전 8년 동안 설한 가장 심오한 경전으로 모든 생명에 본래부터 내재된 불성(佛性)을 강조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다른 많은 대승경전처럼 법화경도 사람의 행동의 이상적 모델로서 보살행을 가르친다.

동화사는 "보살행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실천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구한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로 불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화사 법화산림대법회 일정표

날짜(양력)	법사스님	약 력
3월 1일(토)	혜거스님	금강선원 선원장
3월 2일(일)	암도스님	마하무량사 회주
3월 8일(토)	양관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 학장
3월 15일(토)	허운스님	파계사 주지
3월 16일(일)	수진스님	해인정사 주지
3월 22일(토)	심산스님	홍법사 주지
3월 23일(일)	용학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3월 29일(토)	수불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3월 30일(일)	용타스님	행복마을 주지
4월 5일(토)	원광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총무국장
4월 6일(일)	성문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4월 12일(토)	무비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부처님 인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조계사 신도 5천명 통도사서 마정수기법회


2월 16일 통도사 마정수기법회

조계사 신도 5천 여명이 통도사 마정수기법회에 참석했다. 통도사는 2월 16일 통도사 설법전과 적멸보궁에서 조계사 신도 5천여 명을 위한 마정수기법회를 열었다.

마정수기법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 부처님 될 인연을 가진 사람에게 예시를 내리면서 행하였던 수기방법으로, 〈본생담(本生談)〉등의 경전에 등장한다. 마정수기는 한국 불교에서는 잘 행해지지 않았던 수기 형식이지만, 불교와의 인연을 맺는다는 점에서는 수계식과 흡사하다.

이날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한국 3대 사찰의 한 곳이다. 사찰에서 불교와의 인연을 맺는 여러분은 행운아다. 도심 속에 있는 조계사와 달리 통도사는 자연의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니 통도사와의 인연과 더불어 불교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며 조계사 신도들의 불교 인연을 축원했다.

이날 마정수기법회에서는 스님들이 이마에 성수를 묻히는 의식 대신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과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직접 불자들에게 염주를 보시했다.

또한, 주지 원산 스님이 직접 쓴 가훈도 함께 전달됐다.

5천여 불자들을 이끌고 불보종찰을 방문한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불지종가인 통도사에서 수계를 받는 일은 불자로서, 조계사 신도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 거룩한 대장정을 기획했다"고 수기법회의 뜻을 전했다.

이날 불자들은 마정수기법회를 가진 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있는 적멸보궁으로 이동했다. 간절한 마음과 합장으로 사리탑을 돈 불자들은 평온한 얼굴로 의식을 마치며 각자의 소원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한일유학생회 상임대표에 홍선 스님

2월 20일 총회 및 동계 세미나


상임대표로 선임된 홍선 스님

한일불교유학생협회의 상임공동대표 홍선 스님이 선임됐다. 한일불교유학생협회는 2월 20일 총회 및 동계세미나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고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는 한일불교유학생협회 전 상임공동대표 현해 스님, 범어사 교수사 홍선 스님, 진주 대한불교대학 학장 마성 스님을 비롯한 40여명의 대덕스님들과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의 결산을 보고하는 시간이 진행됐으며, 제2대 전한일불교유학생협회 상임공동대표 현해 스님의 후임으로 범어사 교수사 홍선 스님이 선임됐다.

제3대 한일불교유학생협회 상임공동대표 홍선 스님은 "전에 존경하던 큰 스님들이 당부하신 것이 바로 '정화'이다. 과거 조계종 종단을 제2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들은 나에게 하나의 가슴 속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제3대 한일불교유학생협회 주제 '정화'를 통해 가슴 속 빛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며 협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총회에 이어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월탄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조계종의 정화이념'이 라는 기조연설과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불교정화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수계, 불자로서의 첫 번째 약속"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수계법회


수계법회 장면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지원장 김수현)은 2월 1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회원 23명과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소속 힐링 108인(회장 김석주)' 회원 28명이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았다.

이번 수계식에 참여한 박모 군(23)은 "계를 받는 것은 처음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생활 속에서 완전히 계율을 지키기란 힘들겠지만 노력하겠다"며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했다.

불자들에게 직접 계를 내린 주지 수불 스님은 "계는 좋은 습관을 의미한다. 이 생에서는 계가 근본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5계가 스며들어 부처님의 가피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 설립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흥선 · 사진)가 불전한문승가대학을 설립했다.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은 지안 스님을 원장으로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주지 흥선 스님은 "한문은 과거 동아시아의 보편적 언어로 내면세계를 문자로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 언어가 바로 한문이었다"면서 "20세기 이전의 불교 관련 기록물이 거의 한문문헌으로 전해진 것으로 한문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불교 경전의 사상과 문화, 기타 불교의 모든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힐링광장' 템플스테이


힐링광장 템플스테이

삼광사 산하단체 '힐링광장'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2월 15일~16일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광사 청소년단, 서울 관문사 청소년단, 온새미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총 71명의 학생들과 인솔 교사가 참가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단순히 즐거운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복잡했던 도시 삶 속에서 벗어나 나를 되돌아보는 유용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운문유치원 수계법회 및 졸업식


운문유치원 졸업식

운문사(주지 일진)는 2월 16일 부설 운문유치원(원장 도진)수계법회와 제6회 졸업식을 유치원 강당에서 열었다. 이날은 특히 개원 이래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한 김상희 교사가 퇴임 감사패를 받았다. 도진 원장 스님은 "운문사의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지혜로 출발하는 운문 친구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으로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 유아교육의 가람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안철수 의원, 종정 진제 스님 예방

안철수 의원(무소속)이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안 의원은 2월 15일 진제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해운정사를 방문해 스님과 오찬을 나눴다.

안 의원은 법당을 참배해 직접 부처님께 향불을 올리는 등 예를 갖추었다. 또한,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제 스님을 친견해 정치적 목적보다는 사적인 방문임을 암시했다. 진제 스님은 "정치계가 남북평화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반갑다. 안 의원도 또한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담화와 오찬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대보름 맞이 방생법회 등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경희)는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1월 14일 대규모 달집태우기 행사 및 합동 방생법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70개 사찰에서 만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대보름 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과 방생의식에 이어 14m 높이의 대형 달집태우기를 통해 국가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다. 또 초청가수 공연과 독도는 우리땅 호국풍선 날리기, 감포지역 청정해산물 장터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효종 신년하례법회 · 임명장수여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이 2월 21일 경주시 서라벌대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간부임명식을 가졌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이날 원로원장에 정명 스님을, 자문위원장 창해 스님을, 부총무원장 보원 스님으로 각각 임명했다. 부산교구종무원 종무원장 석불 스님 외 6개 교구종무원 원장스님들에게도 각각 임명장이 수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꼭꼭 숨겨진 겨울날 영혼의 休息處

휴 식 처



휴휴사가 위치한 대운산은 2015년 치유의 숲이 조성될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휴휴사는 모든 전각이 목재와 황토로 이뤄진 친환경 사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찜질방이 있는 사찰 - ④ 울주 휴휴사

대운산 휴양림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
오행원리 맞춘 황토방…한약재도 깔아
현대 시설 갖춘 휴식형 템플스테이 인기

울산시 울주군 대운산 국유림에 '치유의 숲'이 올해부터 본격 조성된다. 울산시는 대운산 일원 724㏊의 국유림에 국비 54억5천만원을 들여 2015년 완공 목표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초 사업설명회, 실사설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치유의 숲에는 치유지구, 건강지구, 명품 숲 체험지구, 녹지보존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치유지구에는 치유센터와 편의시설, 건강지구에는 체력단련장과 건강숲길, 명품 숲 체험지구에는 숲체험장과 삼림욕장, 녹지보존지구에는 야외쉼터와 전망대 등이 각각 설치된다.

대운산 일대를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는 것은 굴참나무와 편백나무 군락지이고,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운산은 철쭉제가 유명하다. 해마다 4월말에서 5월초면 대운산 제2봉 철쭉군락지 일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내봉과 학봉 사이 능선을 따라 철쭉이 만개하면 등산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철쭉제는 해발 742m 대운산 정상을 붉게 물들이는 철쭉을 테마로 마련돼 6개 분야, 20여 개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서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와 삼호리에 걸쳐 있는 대운산 휴양림 옆에 위치한 휴휴사는 말 그대로 육신에 찌든 번뇌를 훌훌 털어버리고 편안히 수행정진할 수 있는 절집이다. 주변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리며 불사를 해 자연친화적인 사찰이기도 하다. 모든 전각이 목재와 황토로 이뤄진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다할만한 특별한 문화재는 없지만 특히 몸아픈 이들이 많이 찾아 심신의 피로를 기도하며 푼다.

절 입구부터 휴휴사는 친근감이 든다. 길손에게 감로수로 목을 축이게 등산길 오르는 길목에 약수터인 감로각을 만들어 놓았다. 그 옆에는 모든이들에게 웃음을 가득 안겨 주는 포대화상이 서 계신다. 다른 사찰의 포대화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미소가 은은히 풍겨지는 영락없는 천진불의 모습이다.

종무소와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진 찜질방인 오행각 옆에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연못이 있다. 그 안에 해수관음보살상이 대운산을 지그시 내려다보며 사바세계를 지켜준다.

해수관음상이 서 있는 대운산에는 예의 거센 바람이 요란하다. 많은 이들이 한겨울의 칼바람에 옷을 여민다. 오로지 하얀 해수관음상의 미소만 담담한 듯하다. 짙은 바람에 거칠게 요동치던 나뭇가지들도 산정상에서 내려다보니 평온한 듯 부드럽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산아래를 내려다보는 휴휴사는 늘 오랜 품을 지닌 절 같이 편안한 것일까.

단청을 안해 오히려 더 고즈넉하게 보이는 대웅전. 주심포 배흘림 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용 만큼은 남다르다. 여느 절과 똑같은 평범한 법당이지만 오른쪽 불단의 큰 영정사진 두 개가 눈에 띈다. 월하 조계종 前 종정 스님과 천태종 상월 원각 대조사다. 월하 스님은 주지 혜각 스님이 통도사 문중인지라 이해가 갔지만, 상월 원각 대조사는 고개가 갸우뚱했다. 조계종 사찰에 웬 천태종 종조 영정 사진이 걸려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 이유인즉, 주지 혜각 스님의 속가 인척이란다. 대웅전 앞에는 황토집으로 휴휴선원이 위치해 있었다. 주말마다 신도들과 혜각 스님이 참선 공부를 하는 곳이다. 또한 휴휴사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놓아 주말이면 불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울주 휴휴사=김주일 기자



연못에 조성해 놓은 해수관음보살상.

주지 스님 추천 이것만은 클릭…오행각(피라미드식 황토방)

전통 사찰 속에 있는 피라미드형 건축물은 이질적이면서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행각에 맞춰 지은 피라미드식 황토방 내부 또한 제법 운치가 있다. 피라미드서 발생되는 신비의 에너지와 돔 형태의 황토방이 빚어내는 평온하고 충만한 기운이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면 동서양의 기(氣)가 어우러져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주지 혜각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피라미드식 황토는 인간과 자연이 가장 편안히 호흡하며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황토방은 기도하러 오는 신도들을 위해 365일 불을 지핀다. 방안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은 체온보다 약간 높게 맞춰놓는다. 기자가 1시간 정도 직접 누워 체험해 보니 땀이 주르르 흐르며, 몸에 온갖 나쁜 기운들이 빠져 나가는 느낌이다. 혜각 스님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 지었다고 한다. 바닥은 참숯과 천연 소금 등을 황토 사이에 넣어 몇 겹으로 두텁게 깔았다. 황토 구들로 보습과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천연 소금은 그 속에 다양한 미네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황토구들을 달굴 경우 인체에 좋은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황토 바닥위에도 쑥과 솔가지, 각종 한방 약재를 깔아 건강은 물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절집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돼야"



주지 혜각 스님 인터뷰

"휴휴사는 주변 자연 환경이 대운산 휴양림에 둘러싸여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하기에 안성마춤입니다. 그래서 기도객들이 자신의 원을 세우고 기도 정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목조로된 한옥형 요사채를 만들어 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삼림욕하기 좋은 환경과 공기 때문일까. 휴휴사에는 기도객 뿐 아니라 아픈이들도 많이 찾는다. 종교를 떠나 절집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혜각 스님은 "복잡한 도시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사찰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쉼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충실할 때 특별한 전략을 짜지 않아도 포교는 저절로 이뤄집니다."라고 밝힌다.

여행수첩

〈주변 볼거리〉

¡ **대운산 자연 휴양림**=양산과 울산의 경계에 있는 이 휴영림은 양산시민은 물론 부산 · 울산시민들에게도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대운산휴양림을 다녀간 사람(1박 이상)이 5만3000여 명에 이르고 야영객과 등산객을 합치면 12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산시 탑골길 208-124(용당동)에 자리한 대운산휴양림은 양산을 관통해 부산~울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7호선을 끼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울창한 숲에 '숲속의 집' 펜션 13동이 있고 야영데크,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여기다 앞에는 탑골저수지가, 뒤에는 대운산이 자리잡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운산 휴양림에는 유해한 병균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피톤치드와 테르펜을 방출하는 각종 나무들이 울창하다. 특히 계곡 물가에 많이 있는 음이온은 인체의 자율신경을 조절해 진정시키는 등 숲과 계곡에서의 치유효과는 매우 크다. 대운산 휴양림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숙박시설의 40%를 양산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인터넷예약을 받고 있으며, 잔여숙소는 4일 오후 1시 이후 양산시민과 타 지역민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 **먹거리**=콩국수, 들깨칼국수를 잘하는 '평사리 가는 길'(052-239-1951), 비빔국수 전문점인 '손영환 비빔국수'(052-239-3342), 오리훈제 등 단체 산행객한테 알맞은 '산여울'(052-238-7422)이 잘 알려져 있다.

〈교통편〉

¡ **휴휴사 가는길**=(1)자가용은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784-2번지를 치면 된다. (2)대중교통은 서울 기준으로 울산행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내려 부산행 시외버스로 갈아타 용당정류장서 내리면 된다. 걸어서 약 20분 정도 오르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옆으로 휴휴사 이정표가 보인다.(052)239-9366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인천 직항 & 부산 출발】 부처님오신날 특가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3월 8일 출발 174만원
양곤/바고/시리암 5일 요금문의
양곤/바간/헤호 5일 요금문의
* 백두산 5일, 6일 요금문의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요금문의
(지장도량, 관음도량) 요금문의
* 구화산 (지장도량) / 황산 5일 요금문의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 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 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 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 + 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탑의 진화

⑤ 인도 산치의 불탑(1)–산치대탑(제1탑)

불교의 우주관·세계관 표현한 '산치대탑'

아쇼카왕의 8만4천 불탑의 조성을 계기로 고대 인도의 불교문화는 불탑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도 각지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불탑이 그 위용을 자랑하였으며,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없어져 역사 속으로 살아지고 말았다. 그나마 산치에는 예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거대한 불탑이 남아있어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에도 부족함이 없다.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쉬주의 수도 보팔 근처 북부 46km 지점에 자리한 산치에는 현재 3기의 불탑이 남아 있으며, 스님들이 수행하던 승원과 사당의 터는 수십 개가 남아있는 불교 종합센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산치의 유적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되어 12세기 까지 약 1,500년 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불교인들의 수행 생활의 공간이었다.

1) 산치 제1탑〈사진1〉

산치에 있는 불탑 3기 중 발굴 순서에 따라 편의상 번호를 붙여 제1탑이라고 호칭하는 불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치대탑이라고도 한다.

산치 대탑은 아쇼카왕이 사랑하던 여인을 그리워하며 조성했다는 전설이 있다.

아쇼카왕은 왕자시절 비디샤(Vidisha) 지방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다. 이곳에서 '데비(Devi)'라는 여인을 사랑하여 둘 사이에서는 남매가 태어났다. 그러나 아쇼카 왕자는 또 다른 전장으로 떠나야 했으며,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젊은 시절 한 때 사랑했던 여인 데비를 마음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쇼카가 데비에게 선물로 주었던 사랑의 징표를 들고 한 청년이 찾아왔다. 바로 아쇼카왕과 데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옛 사랑의 추억을 떠올린 아쇼카왕은 비데샤로 달려갔지만 이미 데비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참회의 방법으로 그 곳에 불탑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 탑이 바로 산치대탑인 것이다.

또한 징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은 출가하여 스리랑카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마헨드라(Mahandra)' 스님이며, 여동생인 '상가미타(Sanghamitta)' 역시 오빠를 따라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으며,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를 스리랑카 보리사에 분양해 심은 주인공이 된다.

현재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산치의 제1탑은 높이가 16.5m이며, 직경이 37m에 달하는 거대한 불탑이다. 주변에서 생산되는 적사암의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사용하여 마치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분황사의 탑처럼 일종의 모전석탑 양식을 하고 있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아쇼카왕이 처음 조성한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을, 슝가왕조 시대에 돌로 덮어 확장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원래 이 불탑은 인도에서 불교의 쇠망과 함께 폐허가 된 것을 1818년 영국의 기병대 테일러(Taylor)장군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세상에 알려져 비전문가들에 의해 마구잡이식으로 발굴되어 수많은 산치의 유물들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

1882년에는 존슨(Johnson)에 의하여 제1탑이 완전 해체되어 크게 훼손 되었고, 1851년에는 커밍햄(Alexander Cunningham)이 마이세이(F.C. Maisey)와 함께 제2탑과 제3탑을 발굴해 그 안에서 사리장치를 찾아냈다. 1881년이 되어서야 코레(Najor Cole)에 의하여 불탑보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는 초목을 제거하고 붕괴된 대탑을 보수하였지만, 대부분의 조형물들은 방치해 두었다. 이처럼 영국인들에 의해 발굴조사라는 명목으로 심하게 훼손 된 것을 1912년부터 1919년 까지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샬(John Marshall)경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며,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박물관도 그 때 조성되었다.

산치탑의 외형적 구조는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지대(地大)·수대(水大)·화대(火大)·풍대(風大)·공대(空大)의 5대(五大)를 구체화 시켰다. 지대는 굳고 단단한 것으로 만물을 실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수대는 만물을 포용하는 바탕이 되고, 화대는 따뜻한 것으로 만물을 성숙케 하며, 풍대는 활동력을 가져 만물을 성장케 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오대 중 지대는 사각형으로, 수대는 원형으로, 화대는 삼각형으로, 풍대는 반월형으로, 공대는 보주형(寶珠形)으로 표현되는데, 산치탑의 경우 원형기단의 메디(medhi), 반구형 돔인 안다(anda), 안다 위의 발코니인 하르미카(harmika), 안다 가운데 기둥인 야슈티(yasti)와 야수티에 여러 겹으로 된 차트라(chattravali)가 있다. 차트라 위에는 칼라사(kalasa)가 있다. **〈사진2〉**

'불교종합센터'로 불리는 산치
불탑·승원터·사당터 수십개 현존
아쇼카왕 전설 깃든 제1탑
높이 16.5m, 직경 39m의 대탑
경주 분황사탑과 비슷한 '모전탑'

이처럼 처음 조성할 때는 원형 기단의 모습 이였으나, 후에 '난순(欄楯:vedikā)'이라고 하여 탑신을 둘러싸고 신성한 곳을 상징하고 보호하는 의미의 울타리가 조성되었다. 이 난순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4개의 토로나(torana)라는 탑문이 세워졌다. 이 중에 남문(사진3)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안드라왕조의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불탑이 마우리야왕조부터 슝가왕조, 그리고 안드라왕조시대에 걸쳐 점차 확장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남문은 산치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최근에 복원되었으며, 붓다의 탄생 이야기와 불자로서의 아쇼카왕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북문(사진4)은 네 개의 문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있지만,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법륜(法輪)이 깨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북문에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는데, 원숭이가 꿀 사발을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부처님의 모습은 보리수로 표현되어 있다.**〈사진5〉**

부처님께서 하루는 나지가 마을 군사림에 계셨다. 이때에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의 발우를 길거리에 놓아 두셨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사라나무에서 내려와 발우를 가져가려고 하자 여러 비구스님들이 원숭이를 때려 내쫓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원숭이를 때리지 말라! 원숭이는 발우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원숭이는 부처님의 발우를 들고 사라나무 위로 올라가 그 발우에 꿀을 가득 담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러나 그 꿀 속에는 벌이 한 마리 들어있자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자 원숭이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벌을 골라내고 다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도 받지 않으셨다. 원숭이는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가서 꿀을 깨끗이 씻어 다시 공양 올리니 그제서야 부처님께서는 받으셨다. 원숭이는 부처님께서 꿀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는 앞뒤를 살피지 않고 깡충깡충 뛰다가 우물속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원숭이는 죽자마자 나지가 마을의 청정한 바라문 부인의 태안에 잉태되었다. 그가 바라문으로 잉태되자 부처님께 꿀을 공양한 인연으로 나지가 마을 안에는 하늘에서 꿀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현우경〉

이처럼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을 공양한 이야기는 〈현우경〉뿐만 아니라 〈불오백제자자설본기경〉, 〈유부약사〉, 〈유부파승사〉 등 많은 경전에 소개되어 있으며, 산치대탑의 북문 외에도 많은 불교조각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서문**〈사진6〉**은 배가 튀어나온 난쟁이들에 의해 지탱을 받고 있으며, 한쪽 기둥의 뒷면에는 부처님이 세 눈을 지닌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 마라(Mara)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악마들은 도망을 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부처님의 저항을 보고 성원하고 있다. 이 서문의 횡량 상단 정면에는 부처님의 7가지 화신(化身)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불상 시대이므로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세 번은 불탑의 모습으로 네 번은 보리수 나무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사진7〉**.

동문의 기둥에는 부처님의 열반에 드는 모습을 담고 있고, 또한 부처님께서 강물 위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 동문의 중단 횡량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해 출가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단지 한 마리의 말로서 상징되고 있다.

한쪽 기둥에는 마야왕비가 부처님을 잉태했을 때 꾸었다는 태몽의 장면이 새겨져 있으며(사진8), 횡량 하단에는 아름다운 약시(yakshi)상이 장식되어 있다(사진9). 나무의 신, 산의 신, 토지의 신, 또는 가정의 수호신으로까지 불리는 약시 여성상은 산치 대탑에서는 지모신(地母神)으로서 토지의 수호신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약시상이 점차 변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야차(夜叉)라고 불리는 악귀로 변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사람을 홀리는 해로운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4개의 탑문을 지나 층계를 오르면 탑돌이를 할 수 있도록 탑신에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처럼 불탑을 신앙함에 있어서 탑돌이가 왜 중요하게 강조 되었는지는 다음 호에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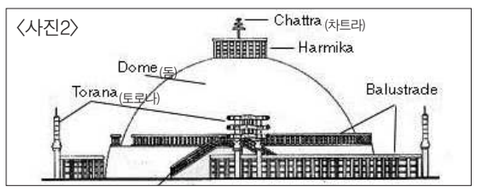
글 · 우인보

〈사진1〉



산치 제1탑. 높이가 16.5m이며, 직경이 37m에 달하는 거대한 산치 제1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치대탑이라고 한다. 산치 대탑은 아쇼카왕이 사랑하던 여인을 그리워하며 조성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사진2〉



산치대탑의 외형적 구조는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4〉



산치대탑 북문.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다.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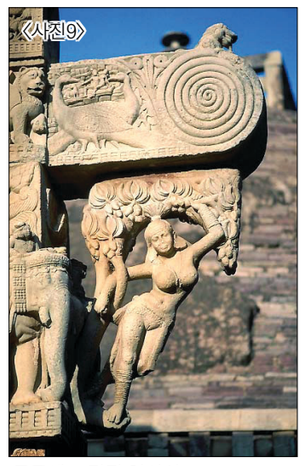
산치대탑 남문. 안드리왕조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진8〉



마야왕비의 태몽(동문)

〈사진9〉



동문에 조각된 약시상

〈사진5〉



원숭이의 꿀 공양 조각(북문)

〈사진6〉

산치대탑 서문.

〈사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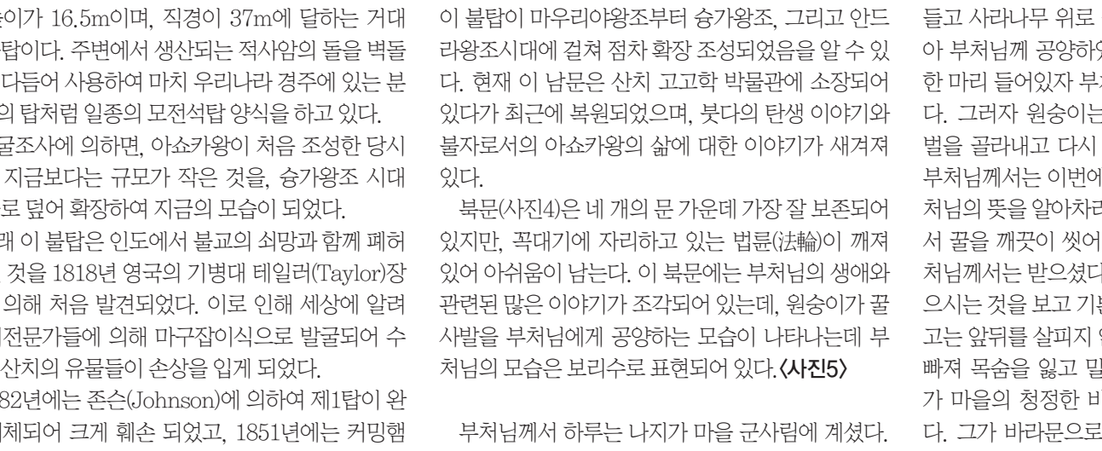
보리수로 표현된 부처님(서문)

수행으로 탄생한 竹林法燈

세계유일의 신제품!! 특허출원중

죽림정사는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때 자주 머무르시면서 설법하신 곳이며 기원정사와 함께 불교 최초의 2대가람(二大伽籃)으로 불리웠습니다. 죽림정사에서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법을 생각하고, 참선 및 기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등이 竹林法燈입니다.

慧梵 海龍 합장



제품 특징

❶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세상 유일의 수공예 대나무 法燈(법등)입니다.
❷ 12가지색의 파노라마 LED전구가 내장되어 있어 법당 장엄용으로 최고입니다. (LED전구 내장으로 전기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❸ 특히 윤장대 법등은 업장소멸에 많은 기도를 드릴수 있어 포교원에 적합한 法燈(법등)입니다.
❹ 법등이므로 불안심리, 가위 등이 눌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 소멸에 많은 도움을 주며, 취침燈(등) 대용으로도 최상입니다.
❺ 천연(자연) 그대로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보존기간이 길며, 인테리어燈(등)으로써도 최상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수공예 작품이므로 크기는 주문 사양에 맞추어 드리며, 제작 기간은 1달 소요 됩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大韓佛敎曹溪宗 참선.약사기도 도량
舞鶴山 藥師禪院
敎法師 慧梵 海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77(회원2동)
TEL : 010-6561-3277 / 055-244-3277
FAX : (055)244-327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法의 갈망 · 애민을 우리말로 노래하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④ '님의 침묵' 과 오세암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충남 홍성 만해문학관에 만들어진 오세암에서 시 창작을 하고 있는 만해 스님의 모형. 만해 스님은 1925년 8월 오세암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했다.

1925년 중년의 만해 스님은 다시 설악산 오세암으로 돌아온다. 지척의 백담사가 출가의 길을 걷게 한 곳이라면 오세암은 만해 스님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곳이다. 3.1 운동 주도한 이후 3년 간 옥고를 겪었던 스님이 오세암을 찾은 것은 출가 초심을 다시 되짚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스님은 오세암에 들어온 후 장경각에 있는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다. 그곳에서 만해 스님은 매월당 김시습의 〈십현담 주해〉를 발견한다. 〈십현담〉은 동안상찰 선사의 법문으로 뜻이 오묘해 초학자가 읽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김시습의 〈십현담 주해〉를 읽은 만해 스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간다. 결국 그해 6월에 만해 스님은 〈십현담 주해〉를 완성한다. 불이 붙은 집필 욕구는 시작(詩作)으로 이어졌다. 염천(炎天)의 여름, 만해 스님은 〈십현담 주해〉를 완성한지 2달만에 '님의 침묵' 을 비롯한 시 80여 편을 탈고한다.

속성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던 것은 갑작스런 감흥이 영향이었다는 주장과 오랜 시간 사유와 천착이 바탕됐다는 시각으로 나뉜다.

고은 시인의 경우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탈고는 하루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그의 시작철은 그 시의 초고들을 잔뜩 싣고 있다가 그것에 갑작스러운 감흥의 영감이 불을 질러서 하룻밤의 깊은 내설악의 어둠에 쌓인 그의 산중밀실에서 완성됐다"고 기술해놓고 있다.

반면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는 탈고 1년 전부터 초(草)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3.1 운동으로 3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거작(巨作)를 만들 수 있는 사상적 천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 '한용운 문학 연구' 에서 "3년에 걸친 옥중 생활에서 동지나 후배들이 차입해주는 서물(書物)에서 한시와 불서 이외의 근대문학이론이나 작품은 물론 구미의 신문학을 불규칙한 접근방법으로 대해오던 미흡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면서 "아마 여기에서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 의 테마와 감정적 주조의 틀이 잡혔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순간의 감흥이던 오랜 사유와 천착의 결

1925년 여름 설악 오세암서
'님의 침묵' 80수 속성 탈고
옥고 중 면벽 수행 詩作 영향

민족사에 길이 남을 詩로 평가
'님' , 민중 · 불타 등 다중적 의미

과이던 만해 스님은 1925년 8월 29일 오세암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한다. 수행자이자 불교 개혁가,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해오던 스님이 40대의 끝자락인 47세에 시 창작의 욕구를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적지 않는 논자들은 스님이 시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중생을 위한 마음과 깨달음을 우리 말로 노래하고 싶었던 문인의 욕구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님의 침묵〉의 서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군말' 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님' 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의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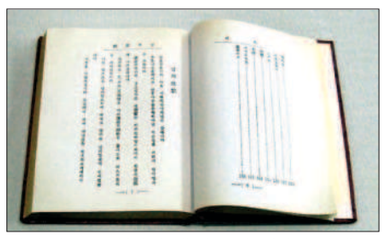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맛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위해' 라는





님의 침묵 표지(사진 위)와 초간본(사진 아래)



오세암 전경. 이곳에서 만해 스님은 〈십현담 주해〉와 〈님의 침묵〉을 썼다.

기독교적 문구마저 차용하면서까지 만해 스님이 강조한 것은 이 시집을 발간한 이유가 번뇌와 불안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함에 있다는 것이다. 불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중생구제와 같은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시는 '님' 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최동호 고려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님의 침묵〉에 나타난 호칭은 당신(39편), 님(36편), 너(2편), 그대(2편), 애인(1편), 무호칭(6편)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당신과 님이 중점적인 호칭으로 사용됐지만, 결국 '님' 은 이 모두를 포용하는 호칭이다.

그렇다면 만해 스님의 '님'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역시 만해 스님의 문학을 연구하는 논찬자마다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님의 침묵〉을 분석한 최동호 교수는 "당신 · 님 · 그대 · 애인 등 호칭은 달라도 만해에게 '님' 은 민족 · 조국 · 민중 · 불타 · 중생 등 바로 그 모근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시학"이라고도 평가했다. 스님의 문학 속 '기다림' 은 조선시대 정철의 '사미인곡' 과 같은 권력자를 향한 충절이 아닌 떠나간 조국을 찾기 위한 민족해방의 기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님이 떠나감을 부정함으로써 만해 스님의 기다림은 역설적인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인용했지만 '님' 이라는 한 글자가 만들어낸 해석의 스펙트럼은 실로 다채롭다. 故 장백일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국현대문학론〉에서 만해 스님의 님에 대해 "불타 정신에 뿌리 박은 조국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조종현 시인은 '절대 자유' 곧 '진아' 로, 김종균은 '민족과 불타를 일체화한 것' 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오세영 서울대 교수는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는 참다운 무아(無我)"라고 님을 해석했으며, 김홍규는 "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계 안에 존재하지도 전혀 부재하지도 않고 그 것을 갈구하는 자의 끊임없는 예기(豫期)와 모색의 실천 속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봤다.

이 같이 다양한 논찬들이 있을 정도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가지는 문학사적 가치는 크다. 만해 스님의 시 전편을 해설한 故 송욱 서울대 교수는 만해 스님 시의 가치를 이 같이 평가한다.

첫째로 만해의 시는 시문학사에서 가장 높고 넓으며, 깊은 인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둘째로는 그의 산문시가 현재 이 나라에서 시로서 표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절실한 시를 싱싱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학평전(1963) 中〉

그러면서 만해 스님은 시대의 아픔을 황금을 빚어내는 도가니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나타난 〈님의 침묵〉시집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라고 경외하고 있다. 어린 아이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님' 이라는 단순하면서 다양한 시적 상징체계로 대학교수마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도 만해 스님의 시학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불교대전은 3.1운동, 즉 일제의 굴레를 태우려는 겁화 속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황금 꽃다발로 이변했다. 따라서 이 시집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대장경이기도 하다. '님' 이 불교의 진리를 말한다고 함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이 시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며, 또 읽는 이에게도 어떤 이변을 빚어내니까 말이다. 〈송욱, '시인 한용운의 세계' 中〉

오세암은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 는 관음영험설화를 창건설화로 가지고 있다. 〈님의 침묵〉이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기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만해 스님의 원력이 닿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시공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사찰명 인쇄 접수중 마감임박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팔각주름등



연꽃만월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 화 연 등



정품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 031)526-2202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모습이 있는 것은 지혜가 없다

철야정진법문 ⑦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좋은 것이, 그러면 내가 뭣고 이 생각 자연히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죽 해서 몇 가지를 알아버려.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서 대도 성취합니다. 대도 성취. 어떤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아, 견성이라는 건 딴데 이상야릇한 뭣이 있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벌써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장애물이 딱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차차 알아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육체는 자체성이, 자체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육체뿐인가? 아니에요. 이 지구 위에 숱한 물건들이 있어요. 나무니 뭣이니 이건 무정물이에요. 지혜가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하고. 여러분 지구,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를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의지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면 참 거룩한 자립니다. 믿어야 된다면 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구 지혜 없습니다. 만약 지혜가 있다면은 지구 위에서 무슨 폭탄 무슨 폭탄이, 난 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퉁퉁 터지고 이러는데, 부회(화)가 나서 흔들흔들 해 버릴 겁니다. 하나 모습이거든요.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거 하나의 모습이라.

그러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모습이라. 모습이니까 지혜가 없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 이건 슬기 자리다 이걸 알았으니까 지혜가 없다.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니 지혜가 없어. 그러면 지구뿐인가. 우리가 태양의 혜택을 얼마나 받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신문에 보니 핵전쟁으로서 소련하고 미국에서 해결하자 했는데 소련에서 반대했더구만요. 반대했는데 만약 핵전쟁을 일으킨다 할 것 같으면 이 지구가 백도가 된답니다. 백도 이상 된답니다. 백도 이상 된다면 우리는 얼어버립니다.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태양 역시 자체성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도 지혜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있는 것, 사람 몸뚱어리 이거 모습이거든요. 상이거든요. 우리말로 모습, 이거 지혜가 없죠? 지구도 지혜가 없죠? 태양도 없죠?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님 몸뚱어리,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 몸뚱어리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은 생겨. 나타나. 나타났으니 비롯이 있어. 나타났으니 나중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변하는 거예요. 이 태양도 지구도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뭣인가 어디 변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변해 가.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거든지 생긴 겁니다.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끝 조짐이 있어. 없어져버려. 우리 몸뚱이도 반드시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실다운 것이든 실답지 않은 것이든 이거 있습니다.

> **몸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 **단지 관리인일 뿐이다.**
>
> **태양도 지구도 우리의 몸도**
> **지혜가 없음을 알면**
>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몸뚱어리, 지금은 다 살아 있지만 오랜 세월이 가서는 나중에 죽어버려. 생겼으니까. 어머니에게서 났으니까.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말 하냐 할 것 같으면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사람뿐 아니라 어떠한 거라도 말이죠 화분의 꽃도 그렇고 한 그루의 나무도 그렇고 사람의 모습도 사람도 반드시, 모습이라 말이지. 이것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전부가 모습 있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로 이런 얘기를 종종 내가 합니다. 종종 하는데 실로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알아. 학교에서 선생이 말해 주면 글 따라 읽어. 따라 읽는 그 글은 알아. 알지만 그 의미는 실감이 안 나듯이 말이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로 알고 보면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태양도 지구도 우리의 몸뚱어리도, 집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몸뚱어리 지혜가 없다. 이렇게 안다 해서 나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알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또 사랑해야 돼. 젠장 작용하는데 왜 사랑을 안 해요? 또 미운 것 있으면 밉다고도 해야지. 다 작용인데, 본래의 진짜 내의 작용인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문제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해 나가면서 우리가 불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입니다. 절대 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서 과학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과학이 아니면 나도 말 안 할랍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거든지 모습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일이삼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서 틀리다 할 것 같으면 안 믿어도 좋습니다만 모습에는 지혜가 없다. 나도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그러하니 눈이 안 본다 귀가 안 듣는다. 혓바닥이 맛깔을 볼 줄 모른다 이 말이 딱 맞거든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시간에 딴 말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도대체 이것부터 해결 안 하고는 불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는 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습놀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불상 모시고 있습니다만 삼십이상 팔십종호가 전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차차차차 딴 문제가 나옵니다. 그 모습, 이걸 갖다 진짜로 알거든요. 그걸 진짜로 아니 내 몸뚱이 이것도 진짜로 알지 안 해?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 두세요. 보통 우리 몸뚱이 이걸 소유물로 알아요. 관리물에 지나지 않아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왜 내 몸뚱어리 내 소유물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말로 여러분의 몸뚱이 여러분의 소유물로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有와 無 극단 넘어 중도를 택해야

4-6 귀경례

더욱 직접적으로 사회의식(社會意識)이라고 하여도 좋은데 이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두 극단에 떨어지기가 쉽다.

두 가지 극단이라고 한 것은 유(有)와 무(無)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固定觀念)이다.

신(神)이, 하나님이 있다느니, 우리에게 불멸의 영혼(靈魂)과 같은 것이 있다느니 하는 유(有)의 관념과 이를 부인하는 아무것도 없다,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무의 관념이 언제나 우리 내부에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운명론을 유발하고 드디어는 숙명론(宿命論)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귓밥이나 만지고 앉았지, 인간의 노력 정진이 관여할 틈을 찾을 수 없다. 또 무의 관념에 고착(固着)되어 버린다면 허무의식(虛無意識)만 곰팡이처럼 번식해서 퇴폐에 흘러, 매사에 되는 대로 흥청거리게 되고, 부모고 형제간이고 아랑곳 할 바 아니므로 잔뜩 에고이스틱하게 뭉쳐버려 사회는 아귀다툼의 수라장화(修羅場化)하고 질서가 아주 문란해진다. 사회는 무기력(無氣力)과 공포(恐怖)를 낳으면서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변(二邊)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라고 하여 반쯤만 있고 반쯤은 없다는 따위로 엉거주춤 둘 다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공정성을 확고히 믿는 데서 대사회 건설이라는 보살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다. 대자대비로서 중생과 더불어 중생을 위한 보살의 사업에 협력해 나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빛나고 우리들의 사회에도 아름다운 아침은 밝아 올 것이다.

이 중도를 지키는 것을 불교에서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여 정신(正信)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信念]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다음 두 개의 망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점이 불교가 휴머니즘과는 다르고 이를 경계하는 단적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 났다, 내노라하는 자기중심(自己中心)에 빠진다. 이것은 이른바 아집(我執)인 것이다.

둘째는 내가 안 것이 제일이다. 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내세우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 하고 부인하는 태도,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그것만 지상(至上)으로 섬기려는 외고집 같은 데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법집(法執)이다.

양대진영으로 나누어서 냉전으로, 또는 지역적인 제한 전쟁으로 첨예화된 오늘날 세계의 정치적 양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야말로 불교의 입장으로 이를 법집(法執)의 상(相)이라고 일컫는데 주저치 않을 것이다. 제가끔 자기 자신을 이데올로기에 결박지워 용신을 못하는 꼴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와 인류 장래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지 않는다고 장담들을 하는 것일까?

아집과 법집을 홀가분히 벗어던져 버리고 애착을 버렸을 때 무분별지(無分別知)를 얻는다.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이 분별을 다 초월하여 반야(般若)의 지경에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를 가리켜 여래가(如來家)에 태어났다고 한다.

> **중도는 바른 믿음으로**
> **공정성을 확고히 해서**
> **대사회 건설하는 '보살의 길'**
>
>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 **아집과 법집에 빠진다.**
> **애착 버려 무분별지 얻으면**
> **여래집에 태어났다한다**

여래의 집에 태어났다는 말은 이 세상을 건질 사람, 구세주(救世主),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아주 공정한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을 잘 알아 가지고, 구세할 수 있는 여래의 집에 새로운 일원이 되어 태어났음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한다면, 공정한 우주의 생명력과 호응하는 대승(大乘)이며, 대사회성(大社會性)의 역사적 사명을 바르게 파악하여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람은 부처의 지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 구세주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대희대사(大喜大捨)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위한다. 이 보살은 우리가 위로 부처님의 도를 넓히는 길이란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으로는 중생을 건지고 후진을 교화(敎化)해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도를 연구하여 넓혀 나간다.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마하살을 받드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마하살(摩訶薩)은 마하 — 큰, 거룩한, 하는 데에 사뜨바가 붙어서 된 말로 거룩한, 큰 생명력 있는 어른이라는 뜻이다.

至心歸命禮海東敎主元曉菩薩摩訶薩(一拜)

지성스런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여기서 절하는 것은 바로 이편의 우리 신라(新羅)에 나신 가르침의 주인 되는 어른 원효보살(元曉菩薩)이라는 분 앞에다. 이 원효보살은 부처님의 제자로 승보(僧寶)에 드는 분으로 앞에 나온 문수(文殊)·보현(普賢)·관세음(觀世音)·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의 각기 일면을 나타낸 상상의 인격(人格)들이지만 (定中의 佛菩薩像) 원효보살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천삼백여년 전 신라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왜 이 분을 받들어 여기서 모시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이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 행원례(行願禮)에서 논의하는 데는 우리니 남이니 그런데에는 상관 없이 다만 어떻게 하면 알뜰하고 참된 진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관점을 둔다. 원효보살을 여기 모시는데는 이에 대한 설명을 이 분의 가르침에서 얻게 되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우주적이고 대사회적인 깨침이 부처님의 본 뜻에 꼭 계합(契合)하는 말씀이라 여겨지므로 이 분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수련기간 **2014년 3월 6일(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 ~ 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수련학습 내용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수련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 대 생 활 레 이 키 연 구 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 산 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 화 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화엄의 신통력으로 멀리보고…

초의와 추사와 관련이 있었던 승려들은 상경하는 길에 초의의 편지와 차 꾸러미를 추사에게 전해 주었다.

특히 운구는 추사의 과천시절, 일 년을 함께 지냈던 승려인데, 이러한 사실은 1853년 12월 16일에 쓴 추사의 편지에 '근일에 운구와 함께 지냈던 일 년은 흡족했습니다' 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그는 아마 초의와 추사와 가까웠던 대흥사 승려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한민(漢旻)이고, 금강경과 능엄경에 밝았다. 그를 추사에게 소개한 것은 권돈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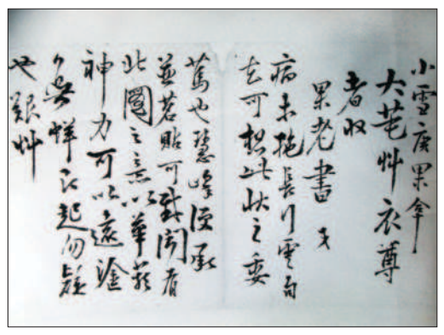
따라서 그는 추사와 학문적 담론이 통했던 학승으로, 추사의 불경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추사는 그가 떠난 뒤, 몹시 쓸쓸해하던 중, 반가운 인편이 도착했으니 그가 바로 혜봉이었다. 이미 추사와 혜봉은 면식이 있었던 처지인데 고대하던 초의의 편지와 차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추사가 '위안이 됩니다' 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략 1853년 12월 말이나 1854년경에 보낸 편지로 여겨지는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둔사 초의스님 받으시오. 과노가 법식을 갖추어 씁니다.

병으로 먼 길 행차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운구스님은 떠났으니 내 상황의 쇠락과 성함은 짐작이 될 겁니다. 혜봉 스님 편에 차를 부쳐주셔서 위안이 됩니다. 이번에 도모하시는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엄의 신통력으로 멀리 볼 수 있고 탈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일을)시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간단히 씁니다(大茁艸衣尊者收 果老書



혜봉 스님 편으로 초의 스님이 보낸 편지에 화답하는 추사의 편지

초의, 추사의 건강 기원하며 차 보내

추사, 노쇠해 지지 않기를 소망

式 病未拖長行 雲句去 可想此狀之委篤也 慧峰便承惠茗貼 可慰 聞有此圖之意 以華嚴神力 可以遠鑒無鮮 卽起勿疑也 艱艸)

당시 추사의 건강 상태는 원만하지 않았던 듯하다. 먼 길을 떠나지 못했다는 그의 말은 이런 정황을 짐작케 한다. 더구나 초의는 이미 운구를 통해 추사의 근황을 들었을 터이다. 그가 '내 상황의 쇠락과 성함은 짐작할 수 있을 것' 이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리라.

늘 서로를 잊지 않았던 벗, 초의가 보낸 차와 편지는 추사에게 가장 큰 위안꺼리였다. 아마도 초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지 추사는 '화엄의 신통력으로 멀리 볼 수 있고 탈이 없을 것' 이라는 기원과 함께 '이제 (일을)시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는 격려를 보낸다. 운구와 함께 했던 추사는 '근일에 운구와 함께 지냈던 일 년은 흡족했습니다. 운구와 함께 노쇠해지지 않기를 밤낮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에서 그의 흡족한 일상이 전달된다. 당시 운구와의 이별이 못내 아쉬웠던 추사는 〈증운구상인(贈雲句上人)〉을 지어 전별의 뜻을 이렇게 전했다.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로다(山山與水水)
봄바람에 물병 하나, 바리때 하나(春風一甁鉢)
바다를 한 없이 건너가고(紆白勞漫汗)
푸르게 물들인 듯한 봉우리, 높이도 올라간다(結黛戀巉薛)
서구와 북쪽의 울단에(西瞿北鬱單)
질그릇 바퀴처럼 막힘없이 돌아가네(陶輪無遮截)
육정(六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情根根何處)
머뭇거리며 차마 이별하지 못하는구나(　　不忍別)

서구는 수미산 서쪽에 있는 큰 주의 이름이고, 울단 또한 북쪽의 지명이다. 질그릇 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월, 정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있기에 서로의 이별이 이토록 아쉬웠던 것일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지성·대중·생활불교로 새 불교운동 나서야"

박호석 법사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 전 농협대 교수)

"불교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의 20대 젊은이들이 불교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군법회만 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절에 오는 장병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사찰에 다녔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불교는 49재, 제사 이런 것들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국불교가 삽니다."

늘 한국불교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가 있다. 바로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박호석 법사(前 농협대 교수 · 66). 특히 그는 한국불교가 젊은이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군대인데 불교계가 군포교를 소홀히 대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불사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 대출까지 받으면서 군법당 4개를 건립하고, 매주 군법당에서 법회를 주관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군포교 사각지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 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불교지명이 사라지는 것을 교계에 알렸으며, 2013년에는 전통문화 훼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도로명 주소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이런 신심은 1969년 덕산 이한상 거사가 이끄는 삼보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길러졌고, 40여 년간 불교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박호석 법사를 대한불교삼보회 제7대 이사장 취임식을 사흘 앞둔 지난 2월 13일에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만났다.

가톨릭 장군 부탁으로 군포교 시작

충북 괴산 출신의 박호석 법사는 집안 대대로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 집안에서 자랐다. 집안의 종손이기도 한 그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강했는데, 충북대학교 재학시절 청주 뒷산 우암산 용화사에서 환성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연을 맺었다.

환성 스님은 당시 물리학과 반야심경을 연결해 설명하곤 했다. 이공계를 전공한 박 법사는 법문이 너무나도 잘 이해됐고, 불교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말마다 용화사를 찾았고, 자연스레 충북대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1970년에는 충북지부장까지 맡았다.

충북대 불교학생회 활동을 할 때에는 열심히 전법활동을 했다. 당시 충북대가 단과대학 시절로 전교생이 8백 명이었는데, 무려 200명을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만든 것이다.

박 법사가 군포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2년 특전사령부에 배속돼 군복무를 할 때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마저 없던 부대 실정을 바로 잡아 누에 치는데 사용하던 사단사령부 강당을 법회에 활용하고, 불교군종사병으로 임명돼 사령부 법회와 예하부대 군종교육을 주관했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이 사병이 군승의 업무를 대신한 육군 초기의 불교 군종병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공학 가운데서 농업기계를 전공한 박호석 법사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77년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10년 간 농공연구사로 재직했다. 중간에는 프랑스 국립 파리농학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1991년부터 12년간 농협대학 농공기술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농기계 전문가로 활동했다.

박호석 법사가 군포교 활동에 전념하게 된 것은 교수직을 퇴임한 이후 부터였다.

2003년 대학 퇴임 후 집필과 연구활동에 전념하던 박 법사는 2006년 쯤 우연치 않게 동네인 고양시 삼성동 뒷산에 소재해 있는 육군 제1공병여단에 법왕사라는 군법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해 부처님오신날에 연등을 달러 군법당에 갔다가 그만 군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죠. 큰절보다는 작고 어두운 법당에 등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가톨릭 신자인 여단장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이곳 불교 법당에 법회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이곳에 나와서 교수님께서 법회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고요. 참, 거절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불자도 아닌 가톨릭 신자인 여단장의 부탁을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법사는 같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월 2회만 법회를 진행했다. 2008년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법왕사에는 매주 정기법회가 열렸고, 참석인원도 평균 20여 명에 머물던 것이 80~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교수출신 법사의 법문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11보급대대 안국사의 법회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박 법사는 실미도 희생자와 군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안국사의 법회를 활성화시켰다. 또 15평의 낡고 비좁은 공간에 최대 수용인원은 30여명에 불과했던 낙후된 법당을 가수 송춘희 씨가 1억을 기탁하는 등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법당불사를 완성했다.

"한 번에 두 군데 법회를 보게 되니 일이 많아지면서 감당이 되지 않더군요. 대불련총동문회 출신 가운데 희망자를 뽑아 군포교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군법사지원단장을 맡은 박호석 법사는 11보급대대 안국사 불사에서 남은 모연금으로 1사단 12연대 석불사, 9사단 수색대대 영축사, 철원 5포병여단 105대대 비룡사 등 3개의 군법당 불사를 더 진행했다. 불사에 전념하는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생하기도 했다.

"말도 못하고 몸 반쪽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지경이었죠. 그런데 부처님 일을 더 하라는 뜻인지, 지금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 부처님의 가피죠. 또 신기한 것은 불사를 할 때마다 항상 불사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딱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더군요."

삼보장학회 장학생 이후 40여년 불교활동

퇴임 후부터 본격적으로 군포교 활동 시작

불사금 부족땐 대출까지… 4개 군법당 건립

도로명주소 위헌소송… 불교 지명은 문화유산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 지명사전〉 출간

"삼보법회 명성 되살려 정법수호 · 바른수행"

현재 박호석 법사는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민간인 성직자로 제 8350부대 안국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1사단 12연대 석불사, 9사단 수색대대 영축사, 철원 5포병여단 105대대 비룡사 등 3개의 군법당 불사를 더 진행했다. 불사에 전념하는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생하기도 했다.

현재 박호석 법사는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민간인 성직자로 제 8350부대 안국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박호석 법사는 현재 박호석 법사는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민간인 성직자로 제 8350부대 안국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으로 불교지명 사라져

박호석 법사가 불교용어로 된 도로명 주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부터였다.

"하루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한 목사가 기독교계 신문에 매월 1회 연재 하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심금' '전생' 등 이런 말들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니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죠. 아니, 평소에 자주 쓰게 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입을 열고 사나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이 동국대 도서관에 가 교계 신문을 살피고, 이희승 국어학자가 저술한 4000페이지 분량의 〈국어대사전〉을 두 달에 걸쳐 샅샅이 읽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는 300여 개. 여기에 불광출판사와 1년 반 동안 작업하면서 총 600단어를 찾아 2011년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 지명사전〉(불광출판사 刊)을 출간했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박호석 법사는 불교식 지명이 사라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전국에 현존하는 불교지명은 어





박호석 법사는 … 1975년 충북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동대학원 농학 석 · 박사졸업(1988).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농공연구사(1977~1991). 농협대학 농공기술과 교수(1991~2003). 프랑스 국립 파리농학연구원 객원연구원(1984~1986). 농민신문 논설위원 역임(1993~2007). 1968년 불교에 입문했으며, 이듬해 삼보장학생으로 선발됐다. 1970년 대불련 충북지부장을 맡았으며, 2007년부터 육군 제1공병여단, 제3군수지원사령부, 제11보급대대, 탄약대대 등 9개 군법당에서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11보급대대 안국사와 12연대 석불사, 수색대대 영축사, 호국비룡사 군법당 건립에 공헌했다. 현재 대한불교삼보회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 지명 사전〉〈오직 지금뿐〉 등의 서적을 저술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지간한 불교용어가 모두 있을 만큼 그 종류만도 5백여 가지를 훨씬 넘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제(巨濟), 보은(報恩), 안양(安養), 영광(靈光) 등과 같은 시군구(市郡區)의 이름도 있고, 가야(伽倻), 보문(普門) 등과 같은 읍면(邑面)의 이름, 그리고 수백 가지가 넘는 리동(理洞)의 법정지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100여 년부터 많게는 천 년이 넘게 지역의 이름이자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징표로 역사와 함께 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의 시행과 함께 미륵과 아미타불을 뜻하는 서울 강북구의 미아(彌阿), 도선대사의 전설을 간직한 성동구의 도선(道詵)이란 법정지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호석 법사는 이를 보면서 종교편향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주도면밀한 작품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천 년을 써온 이름을 송두리째 없앨 계획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지난 해 6월 박호석 법사는 대한불교청년회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명주소법이 위헌이라며 대불청과 전 문화부장관 정동채 문화행정전문가 등 총 63명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신아법무법인을 청구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소송장을 접수했으며,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2월 16일 제7대 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취임

박호석 법사는 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재가불자 신행단체인 대한불교삼보회의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60~70년대 한국불교의 현대화 · 근대화를 이끌던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청정의 표상인 승가공동체가 빛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다수 불교단체들도 바로서지 못하고 있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모습은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세기 전, 덕산 이한상 거사께서 한국불교 중흥을 지성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통해 이루고자 인재양성, 교육 포교에 헌신하셨던 그 목표와 열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2천 년 전 대승불교가 자기 이익만 좇던 승단에 반발해 태동됐던 것처럼, 바로 지금이 제2의 대승운동을 전개해야할 시점입니다."

최근 한국불교를 이같이 진단한 박 법사는 "과거 한국불교중흥의 선봉에 섰던 삼보법회의 역량을 되살려 정법을 수호하고 올바른 수행과 전법을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960~70년대 서울 풍전호텔 삼보회관에 매주 일요일 7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법회를 보던 명성은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과거의 명성을 찾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모든 조직이 젊어질 수록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진행한 군포교 활동과 지난 해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을 통해 처음 배출했던 법사 제도를 강화해 군부대, 병원, 호스피스 등 보다 체계적인 포교와 업그레이드된 포교역량이 필요한 것에 지원 할 것입니다."

박 법사는 2년 전 안국선원에서 7일 간화선체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꼈다. 그 인연으로 수불 스님으로부터 월공(月空)이라는 법호를 받은 그는 포교에 임하는 자세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진심에서 우러나오게끔 임하고 있다는 것.

그는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불자라면 불교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해 불교를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종교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불교는 기독교 카페 수의 1/5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불교 카페 가운데서도 무속, 점집이 포함된 것이 상당수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불자가 불교를 제대로 배워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만 알면 되는 건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불교가 이런 형태로 잘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주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들은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고급차 타고 도박하고 골프장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 진 것은 불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실미도 희생자와 군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안국사



지난 해 박호석 법사는 대불청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명주소법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법일기

군법당에서의 '산사음악회'

대부분 남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군대' 하면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조직이 아닌 "하면 된다", "하라면 해" 식의, 의견 수렴이 안 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군도 많이 바뀌었다. 군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답게 이곳에 살고 있는 병사들의 능력과 재능들이 각양각색, 무한한 곳이다.

어느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간식을 먹고 난 뒤 법당을 나서지 않고 피아노를 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제법 실력이 좋았다. 그 병사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다가와 피아노를 쳐도 되겠냐며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들리는 피아노 선율은 앞서 친구의 연주보다 더욱 황홀했다. 대학교 시절 밴드 동아리에 있으면서 건반을 쳤단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병사의 한마디. "법사님, 저는 기타를 칠 줄 압니다." "저는 색소폰을 합니다."

어라? 이 분위기는? "얘들아~ 우리 법당 밴드 구성하자. 법사님이 바이올린을 조금 켤 줄 알거든. 각자 악기는 집에서 가져오고, 법당에 보관하고. 주말 이용해서 연습들하고, 어떠니?"

"좋습니다!!"

이렇게 단 10분 만에 작은 악단이 구성 됐다. 악단 이름은 우리절 통일사 이름에서 따온 '밴드 유니온' . 이후 이 밴드는 법당의 문화전령이 됐다.

어느 날 다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 '문화 전령단' 을 이용해서 장병들과 민간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당에서 음악회를 열어볼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도 산사 음악회 못할 거 뭐 있나? 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절은 산사에 있는 것이 아니니 산사 음악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어차피


그림 · 박구원

오순도순 법회에 오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소통하는 '조촐한 음악회' 였기 때문에 별도로 음악회의 이름은 걸지 않았다.

음악회를 한다고 몇 주 전부터 법회 때마다 공지를 했는데 소문을 들은 보살님들이 주로 물어보는 것은

"거기 음악회는 어떤 가수가 초청되어 오느냐?"하는 것이었다. 아마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 읍, 면 체육대회 하듯 가수를 부르는 줄 알았나 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청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백의리 주민들 몇 분 오시고 원래 일요법회 때 마다 오는 우리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음악회입니다. 손주들 학예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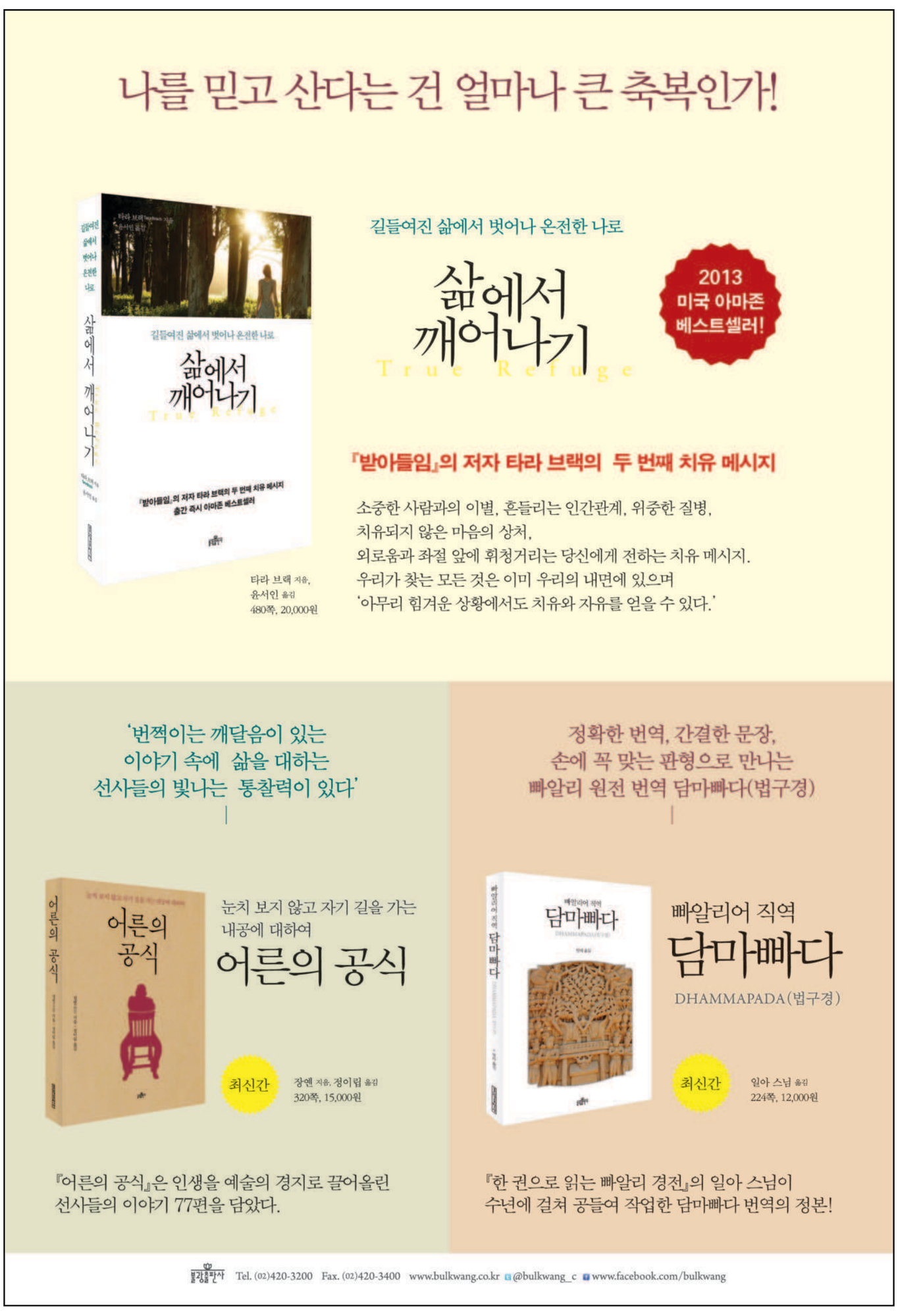
출연진으로는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노보살님의 손녀 은지의 판소리, 통신대대 멋쟁이 오병장의 솔로 기타연주, 공병대대 정 상병의 색소폰 연주, 나도 바이올린으로 연주자로 가입한 유니온 밴드의 합주곡, 옆 동네 원불교 교무님의 아프리카 민속악기 젬베 연주, 그리고 대대 군종병들이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 등 나름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관객도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 60평 법당에 백오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세상에 드럼 없는 밴드가 무슨 밴드냐고 하겠지만 이렇게 좌충우돌 산사 아닌 산사 음악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모든 참가자들의 가슴에 추억으로 남았다.

자신의 타고난 각양각색의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군대다. 이 속에서 발현되고 있지 않을 뿐, 그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요일마다 법당에 나와 부처님 전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우리들이 군 포교를 사명으로,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가 공존하며, 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공존하는 군대, 그 속에서 살면서 법회를 마치고, 줄지어 돌아가는 장병들의 뒷모습을 본다. 먼 훗날 미래의 대통령 중 "군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당당히 "군 법당이 기억납니다. 군 법당을 통해 여러 활동도 하며 군 생활을 유익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꿈꾸며 오늘도 법당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고요한 동굴 속 사원

동굴 안에 자리한 불교 사원을 찍은 사진들. 신성함에 잠시 말을 멈춘다. 동굴 사이로 비친 빛은 참배객들의 지친 마음 속까지 내려앉는다. 하늘까지 닿으려다 만 공허한 높이를 그 빛이 적막하게 채워준다. 사진은 미얀마 닷도타웅 동굴(Datdawtaung Cave)(사진 왼쪽), 태국 카오 루앙 동굴(Khao Luang Cave)(사진 오른쪽)

배현진 기자

부처님 말씀, 대중의 코드에 맞춘다

일본, 불교만담 스토리텔링 포교 호응

일본 불교계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을 접목한 '포교 프로그램'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Japan Times〉지는 지난 10일 "불교스토리텔러 교쿠도 난카이(Kyokudo Nankai), 교코 오카자와(Kyoko Okazawa) 등을 필두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한 불교 교실이 대중들 사이에 호응을 얻고 있다"며 "특히 불교스토리텔러 대부분 일반 불자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불교스토리텔링 역시 이야기로 청중과 소통한다는 형식에서 일반적인 스토리텔링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소재로 경전, 탱화, 설화 등을 선택한다는 점이 비교된다.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Japan Times〉지에 따르면, 불교스토리텔러의 선두주자인 교쿠도 난카이(Kyokudo Nankai)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사카에 있는 미나미(Minami) 상업 지구에서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불교교실'을 열고, 진언종(Shingon school of Buddhism)의 창시자인 '고보 대사'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신심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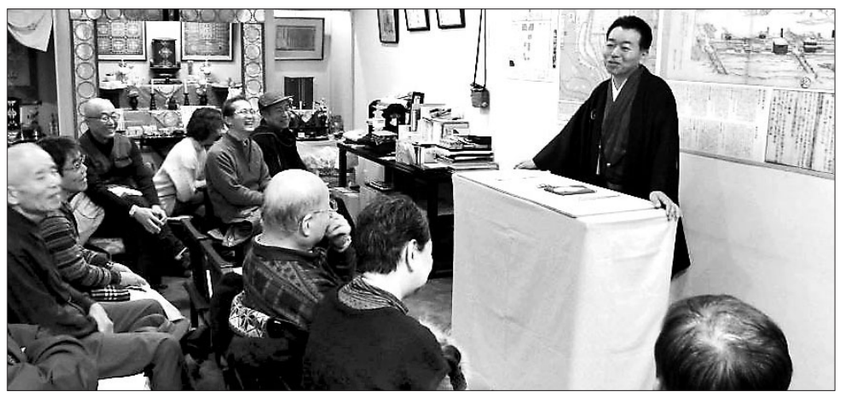
〈Japan Times〉지는 "고보 대사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청중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교쿠도 난카이 씨는 청중들의 웃음과 웃음 사이에 고보 대사의 실천이 돋보였던 '중생구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스토리텔링 불교교실'의 강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러 종단 스님의 설법을 경청할 때마다 '현대인들이 다가서기에는 무언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쿄쿠도 난카이 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강설'도 이제는 '대중 문화'의 틀에 담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담 같은 강설이 자칫 정통 불교계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중에게는 더욱 다가설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는 교쿠도 나카이 씨는 "불교스토리텔링은 '예술적 강설'"이라며 "이는 불교와 대중의 벽을 낮추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코 오카자와(Kyoko Okazawa)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불교스토리텔러'이다.

〈Japan Times〉지는 "나가노 시에 있는 하세(Hase) 사원(진언종) 주지 스님의 부인이기도 한 교코 오카자와 씨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Nehan)'을 주제로 한 '그림 우화'로 대중의 불심을 사로잡고 있다"며 "그녀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대중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한다"고 보도했다.



불교스토리텔러 교쿠도 난카이(Kyokudo Nankai)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사카의 한 사찰에서 '스토리텔링 불교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Japan Times〉지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며 '헤이안 시대(794-1185)의 여성과 불교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던 교코 오카자와 씨는 하세(Hase) 사원의 수장고를 정리하던 중 에도 시대1603-1863)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을 주제한 그림을 발견했다. 이후 이 그림은 그녀가 '죽음'을 주제한 '불교스토리텔러'로 나서게 된 단초가 되었다.

"인생은 거칠고 험난한 여정이고, 그 귀결은 바로 '죽음'"이라고 전제한 코코 오자카와 씨는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고, 또 그 결과, 즉 죽음을 여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 수장고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이 그림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Japan Times〉지는 "교쿠도 난카이, 교코 오카자와 등 '불교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그들에게 사원과 불교 단체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 · 노인 · 복지 · 기독교 등 불교와 사뭇 다른 단체에서의 강연 섭외도 들어올 정도"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놀이공원식 테마파크 인기, 불상도 봉안

불교 모티프 삼은 베트남 스이티엔 공원

불교를 오락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스이티엔(Suoi Tien) 놀이공원은 불교식 테마파크다. 베트남 전통문화를 오락시설에 접목해 신화와 불교 이야기가 살아있는 놀이동산을 만들었다.

불교식 이야기를 입힌 놀이 도깨비 집(Ky Lan)이 대표적 장소. 사후 지옥을 형상화한 곳으로 지옥의 사신이 지나가는 관광객을 노려보는가 하면, 불교의 18곳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을 연출해 섬뜩함을 준다.

놀이동산 곳곳에 불교에서 모티프를 얻은 조형물을 만들었고 심지어 불상도 봉안했다.

1995년 만들어진 이 공원은 개장 이후로 베트남이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둘러보는 데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규모는 박쥐 동굴, 지하터널 수족관, 악어 먹이 체험 등 풍부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유럽의 고성 등 서양식 테마파크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베트남 고유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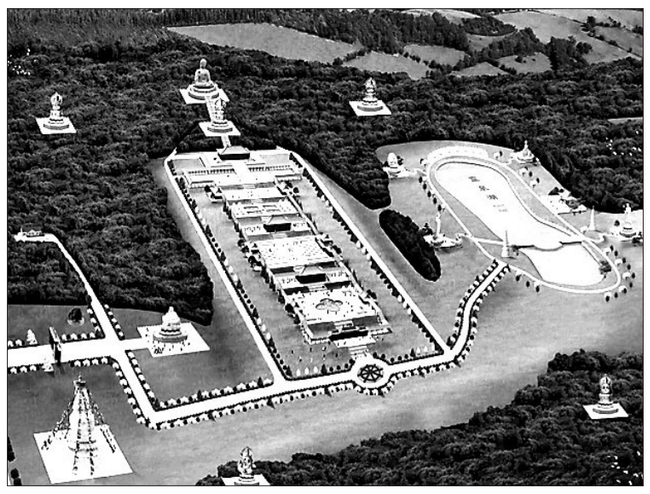
베트남 스이티엔 놀이공원에는 사천왕상, 코끼리 상등 불교식 조형물이 가득하다.

이곳은 세계 각지의 관광 정보를 랭킹으로 정하여 소개하는 '트래블러 존'이라는 웹 사이트(www.thetravelerszone.com)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 12선'에 선정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진퇴양난'

수행 환경 보호냐 친환경 발전시설 건설이냐



참 산(Cham Shan) 사원이 온타리오 오크 리지스 모레인(Oak Ridges Moraine)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지순례 프로젝트'의 조감도. 이에 따르면 새롭게 개원될 네 개의 불교 센터가 산책로로 연결되고,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걸으며 네 개의 불교 센터를 방문하는 일명 '성지 순례' 길이 조성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대만 불교계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National Post〉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온타리오 오크리지스 모레인(Oak Ridges Moraine) 지역에서 '수행 환경'을 보호하려는 참 산(Cham Shan) 사원과 '저가 친환경 발전시설'을 세우려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는 주정부가 3년 전 참 산 사원의 '증축 프로젝트'를 승인한 데 이어 최근 인접 지역에 '풍력발전소 신설'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참 산 사원은 3년 전 오크 리지스 모레인 지역에 네 개의 불교 센터를 세워, 이들을 연결한 산책로를 따라 걷는 일명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온타리오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한 개의 불교 센터를 완공해 4분의 1 가량 진행됐다. 완공된 불교 센터에는 네 명의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한편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오크 리지스 모레인 지역에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2030년까지 온타리오 주 연간 소비전력 10%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주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불교 센터와 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가깝다는 데 있다. 여기에 참 산 사원 측의 주장도, 지역 주민 측의 주장도 모두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참 산 사원 측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인 만큼 '수행 환경' 등 프로젝트 제반 조건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 측은 "관광산업과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가 절실하며, 따라서 최적의 입지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주정부를 비판

불교센터 인근에 들어설
풍력 발전소 두고
불교계와 지역계 행정 소송중

불교계
3년전 이미 건축허가 된 것

지역계
최적 조건 갖춘 곳

한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의원(온타리오 주)은 "참 산 사원은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40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오크 리지스 모레인 지역에서 풍력발전소의 필요성을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주정부는 발전소 부지 선정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National Post〉지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참 산 사원 측과 지역 주민 대표 측과의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 주정부가 어떤 쪽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놓고 온타리오 각 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법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

법사(法師) 양성에 교학의 열정이 피는 곳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 학장 지일스님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소중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그 어떤 일보다 기쁨과 보람이 크다.

종신지계막여수인(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한평생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원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경제 활동을 통해 물질 축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가치 있는 삶의 미덕은 미혹으로부터 밝음으로 안내하고, 자아 완성, 인격 도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자의 삶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국가의 백년대계도 교육이라 하였다. 불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움에 힘쓰는 일,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는 길은 승속을 떠나 중요하다. 출가수행자로서 불교 교학을 통해 불교지도자인 법사양성에 전념하는 그 자체를 일상삼매의 수행이라고 여기는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 학장 지일스님을 친견했다.

– 교학일상(教學一相)이 곧 나의 수행

보편적으로 출가수행자라 하면 세속에서 벗어나 산중사찰 속에서 불도수행자로 수도고행의 길을 걷는 고즈넉한 장면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학장 지일스님은 수행과 수행처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수행은 직심(直心)을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장소를 가리며 수행처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수심(修心)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세속이 수행처고, 수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는 그에 맞는 수행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만사(世上萬事)가 무비선(無非禪)이라 합니다." 수심은 마음 닦는 수행으로 참선과 고행 그리고 경학 등이 있다. 보통 수심은 자아 완성을 이루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있어 그 도(道)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일스님의 수행관은 이것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요, 실천궁행(實踐躬行)적 측면에 더욱 가깝고 선가에서 말하는 활발발지(活鱍鱍地)에서 수행을 한다고 해야 맞을 듯하다. 가장 번잡 도심 속이 스님의 수행처인 것이다.

"나의 수행관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학일상이 나의 수행법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마해야 하고, 또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니 교학수행이야 말로 진짜 살아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교학일상(教學一相)이 나의 수행관이고
일적적연(一適積淵)은 나의 교육관이며
초심지족(初心知足)은 나의 철학입니다.

– 법사(法師) 양성은 무위불사(無爲佛事)

지일스님은 22여년 전부터 불교의 대중화, 생활불교 정책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을 운영해 오며 불교지도자인 법사(法師:dharma-bhanaka) 양성에 주력해 오고 있다.

법사를 양성하는 업이 곧 수행임을 밝히며 법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설한다.

법사의 정의는 불교 도심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불교 도심(道心)이야말로 법사의 생명력이고 법사가 해야 할 도심행인 것이다. 이에 지일스님은 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법사는 불교 포교와 설법, 그리고 자기수행을 연마해가고자 수행지위에서 정진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래 원어는 다르마바나까(dharma-bhanaka)이며 불교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자질을 불교전문교육과 수행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불교교육 단체에서 교습받고, 설법, 포교, 수행, 포교원 운영 등 신도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수행 정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불교지도교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법사란 용어는 낯선 용어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법사는 그리 낯선 용어가 아닌 익숙한 것이 되었다. 그만큼 불교가 저변확대된 것이며, 또한 시대적 부응에 불교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으로 보아 불교의 교육불사 와 재가법사 양성은 불교발전에 큰 원동력이 됨을 엿볼 수 있다.

"불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인재불사가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사사불사(事事佛事)는 필경화진(畢竟化塵)이지만 법사 양성은 무위불사(無爲佛事)입니다. 즉, 훌륭한 인재 양성만이 불교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이며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법계공덕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러합니다. 특히나 현대사에서 재가법사(在家法師)의 역할은 불교발전에 커다란 경쟁력이 되는 만큼 재가법사 양성과 활동에 깊은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오직 법사양성만이 학장 지일스님의 수행요체임과 동시에 인재불사만이 보리장엄의 공덕이라고 고집하는 소신과 원칙적 성격으로 다져진 행리는 22년의 법사양성 경륜이 수행의 표점으로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는 법사 양성의 교육관도 함께 엿볼 수 있다.

"교육적 철학이 무엇이냐 하면 일적적연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모이고 모이면 큰 연못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법사로 양성시키면 그 가정도 법사가정이 되고, 직장도 법사직장이 되고 나아가 사회도 법사들이 주축이 되어 법사불교가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학장 지일스님의 투철한 법사교육관으로 일관된 집념의 목표는 법사불교(法師佛教)라고 하며 대승불교사상에 일치시키고 있음을 역력하게 알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으로 편성되어 22년의 학풍을 간직하고 불교권 내에 있는 불교법사 양성 전문도량이다. 본 도량은 불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불교 발전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학장 지일스님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안양교도소 종교위원으로 15년간 활동중이며 2002년도에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문의 : 02)733-1959,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우들의 하계수련회 모습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인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전문인재 등용의 시대 !



미래예측학 박사 안 성재

국민교육헌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68년도이다. 헌장 내용중 한 부분이 "타고난 저 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바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자는 명리학을 통하여 진학의 관계성을 가지고 박사논문에 임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남,여 각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83%에 해당하는것을 보고 70년대는 대학진학률이 27%에 불과한 것이 현재는 10명중 8명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내 놓은 자료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10명중 10명 전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대학은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대의 변화중에서 과거는 명문대를 중시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보다는 학과전공에 더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그만큼 대학을 들어가기는 쉬워졌지만 졸업 후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대학에서 학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명문대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을 통하여 결론을 얻었고, 대학을 진학하는데에도 특별전형인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하려고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전문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시1,2차를 통하여 학과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진로나 직업과 연관된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성적을 대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만 대학보다 학과의 중요성에 학생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졸업 후 자신이 전공한 분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도 70%에 이르렀다. 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세상을 보는 이치를 알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되고 대학은 그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 전문성(전공)을 갖고 사회에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원은 전문가중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이제 21세기는 평생교육의 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평생직업이라는 울타리가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성장동력은 첨단과학이나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食에 관한 연구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에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자신이 가장 잘 맞는 특기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가를 만드는데 부모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며 블루 칼라가 더욱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맞추어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일찍 발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곧 목적을 실현하는 시대이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명리학에서 심리구조를 통하여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90개의 구조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명리학은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유일한 예측학문이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임상과 통계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기준하여 예측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명리학은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연구하여 삶의 본질을 높여주며 길흉화복을 예지해주는 학문으로 더욱 발돋움 할것이다.

저서. 규명1권(명리입문서).
명리상담술.
진로와전공.
명리 진학정보론
H·P 010-5418-5972

추천 서적

'천자문은 광활한 우주'

철학 · 불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한자 이론

고려 · 조선시대 보다 오히려 오늘날에 이르러 한문 학습자들에게 천자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하다. 이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무수한 천자문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와 있다. 고대전통침구학자인 천명일의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은 기존에 발행된 천자문 서적 중에 단연 돋보이는, 오랜 시간 동안 천자문 관련 서적 무리 중에서 군계일학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있을 명저임에 틀림없다.



우선 이 책에는 독자들이 전율할만한 저자의 박학다식한, 지적인 내공이 녹아들어 있다. 부산불교경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불교연구가이자 불교이론과 철학과 관련한 수많은 저서들을 남긴 저자는 불교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동양고전과 사상, 의술, 침술, 역학 등으로 천자문을 풀어내며 4자 1구 250수로 이뤄진 천자문의 요체를 밝힌다. 여러 우화들을 예로 들어 심오한 철리가 숨겨져 있는 천자문의 글귀들을 쉽게 풀어내며 천자문의 진정한 대중화를 돕는다. 불교 지식 이외에도 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 다양한 종교에 대한 단상 등이 천자문과 함께 글 속에 녹아있다.

천명일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옛 고대 성인들의 해석과 오늘날의 학식, 지식, 상식으로는 현대천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천자문에는 초월적, 3차원적,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 천자문을 책으로 엮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대 가치이기도 한 초월적 · 3차원적 · 영적인 세계들은 종교나 사상을 떠나 매우 보편적으로 와 닿는다. 이유가 무얼까? 그것은 저자가 오로지 온 인류의 본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데서 기인한다. 저자는 비록 "너를 알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좇아 천자문을 풀었지만 지혜와 철리를 종교적 틀에만 가둬두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일갈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이다 불교적이라며 표현하는데 참 답답하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 등 무궁한 세계가 있다. 예수와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을 논한다. 그러나 종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성과 의식의 문제 아닌가?"

천명일 지음 | 지혜의나무 펴냄
신국판 | 533쪽 | 값 18,000원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법화경 해설)

사람답게 살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 법화경 해설

연꽃은 씨앗의 나툼이듯이 성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나툼이다. 그 불성(佛性)이 저 더럽고 어두운 진흙 속과 같은 무명(無明)에 가려 있지만 햇볕이라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설법이란 법비[法雨], 즉 물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호와 같은 적당한 온도를 만나면 싹이 터서 자라고 성불이라는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게 된다. 저 연꽃의 씨앗이 있는 그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고, 연꽃이 있는 그대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듯이 우리도 누구나 있는 그대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다.불교 경전하면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법화경 해설)」은 그런 독자들에게 희망이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저자 황명찬은 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하던 노하우와 30여 년간에 걸친 불교공부를 접목하여 불교경전 법화경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요점을 정리하고 비유와 반복을 통해 경전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수행에 접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동중우의 사진 30여 장이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고 마음에 여유를 준다. 복잡한 현대인들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쉽고 간단한 법화 수행을 통해 지혜와 마음에 평화를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비로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지혜(佛智慧)를 가지고 있어 본래 부처이고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가 아니고 바로 즐거운 곳이라고 설한다. 우리 마음에서 시비분별을 버리고 아상을 비롯한 모든 상을 버리고 나면 이곳이 고통의 땅이 아니라 행복의 땅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모든 강이 바다로 귀일되듯이 법화경 이전의 모든 가르침은 〈법화경〉이라는 큰 바다에 귀일한다. 법화경에서 붓다는 말법시대의 사람들에게 법화경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였다. 우선 우리는 말법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법화경〉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되는지 알아야 하겠다.

황명찬 지음 | 동중우 사진
지혜의나무 펴냄 |
신국판 | 240쪽 | 값 12,000원

불교성전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스님) 역경원이 '불교성전(부처님 말씀)' 을 편찬했다. '불교성전' 은 부처님 말씀의 정수를 뽑아 엮은 책으로 부처님, 가르침, 계행, 도반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은 내용이 충실하고 문장도 쉽고 평이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책 앞쪽은 한글로 기록하고 책 뒤쪽은 영문으로 실어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혜인스님은 책 서문에서 "이 경전을 함께 하는 이,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고 밝혔다.

– 서문 –

『이 경을 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다겁생(多劫生)동안 고행을 통하고서 비로서 보리수 밑에서 정각(正覺)이루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 광명이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청정심으로 종(宗)을 삼고, 중생의 믿음은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 종(宗)으로 거울을 삼는다. 중생계는 미혹 때문에 중생이 되고 모든 부처님은 청정심으로 부처가 되었다. 중생과 부처는 영상이며 삶과 죽음은 이름 뿐이다. 만일 사람이 부처로써 거울을 삼는다면 '계, 정, 혜' 가 모든 청정심이 선(善)이 되어 신과 하늘 성문 연각, 보살 여래가 이로 인하여 나오는 줄 알면 믿고 따르지 않는이 없고, 중생으로서 거울을 삼는다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모든 악의 종이 되어 수라, 축생, 지옥, 아귀가 이로부터 나오는 줄 알 것이다. 선과 악은 다르다 해도 종(宗)은 동일하다. 한 방울의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다시 수증기로 구름, 비, 눈, 얼음산을 이루며 다시 바다로 모이는 것과 같다. 이 경전을 열면서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옮기지나 않았는지 염려되고 조심스럽다. 태양의 광명을 감사할 줄 모르듯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께 겨자씨 만큼이라도 보은(報恩)이 되고자 한다. 부처님 말씀(불교성전)으로 행복의 길을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혜인스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께 겨자씨 만큼이라도 보은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불교성전의 출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값 15,000원
문의 : 02)511-2026

선암사 감로왕도 최초 공개

불교중앙박물관 상설전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 상설전을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사진은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보물 1553호)

선암사 감로왕도가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이 2014년 상설전을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인각사 발굴 유물과 조계사 상량식 유물은 물론 보물 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가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불교중앙박물관 김추연 학예연구사는 "지난해 인각사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매우 평가가 좋았고 조계사 유물 전시 역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는 이들 전시의 연장 형태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최초로 공개되는 선암사 감로왕도가 이번 전시의 의미를 더해줄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은 보물 5건을 포함해 총 92건 277점이다.

인각사의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한 제 1전시실은 총 55건 125점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인각사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 스님이 주석해 넓은 사역을 지닌 사찰이었으나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발굴로 인각사의 사역이 복원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년 11월 기획특별전이었던 '인각사와 삼국유사' 전시를 압축적으로 전시해 인각사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9세기 무렵 출토된 10여점의 인각사 불교금속공예품은 그 하나 하나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는 인각사의 불교금속공예품들과 주요 발굴유물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신앙의 힘으로 창조한 불교미술' 을 주제로 하는 제 2전시실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공간을 장엄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교미술품을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법당 내부를 장엄한 불화와 범종 · 향완 · 사리장엄구 등 여러 불교공예품들을 전시실로 옮겨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

인각사 금속공예품 한 자리에
조계사 창건 역사도 엿볼 수 있어
277점 유물 5월 31일까지 전시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출품된 7건 7점의 불교미술품들은 단연 주목할 만하다. 조선 후기 1736년에 제작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18세기 감로왕도 최전성기의 전형을 이루는 작품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승인 의겸 스님이 제작한 불화로, 스님의 전성기 화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선암사 동종은 조선 후기인 165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본래 보성군 대원사 부도암의 종으로 주조된다. 이 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주종장인 김용암(金龍岩)이 제작한 것으로 17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 대웅전의 건립' 을 보여주는 제 3 전시실에서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조계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각황사(覺皇寺)로 사대문 안 최초의 사찰로 창건되었다. 1938년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세우기 위한 총본산으로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을 설립하고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북한산 태고사(太古寺)를 이건하는 형식으로 태고사로 명명한 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지금의 조계사(曹溪寺)로 불려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938년 조계사 대웅전이 건립 되었을 당시 납입되었던 상량유물이 전시된다. 이 상량유물들은 일제강점기 불교의 상황뿐 아니라 당시의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으로 총 18건 112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02)2011-1954 **정혜숙 기자**

남녘 제주서 불어오는 찬불 향연

약천사 어린이합창단 제4회 공연


창단 다섯돌을 맞은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합창단 2월 15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제 4회 정기공연을 갖고 봉축 전야제의 재공연을 준비중에 있다.

봉축의 봄바람이 남쪽 제주에서 불어오고 있다. 올해로 창단 다섯돌을 맞은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합창단(지도법사 성원 스님)이 2월 15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제 4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애니메이션 '오세암 가는 길' 과 합창 공연을 재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제주 봉축 행사에서 재공연 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도법사 성원 스님은 "이번 정기공연은 기존에 지루하게 느껴졌던 합창공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획으로 공연됐다. 인기리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오세암' 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합창제에 맞게 영상을 재구성했다. 공연은 합창과 함께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 리틀붓다 어린이들의 합창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성원 스님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도 맡았으며, 최세영 PD가 영상편집을 협조했다. 성원 스님은 어린이 법회 아이들에게 오세암을 보여줬는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3개월 정도의 연습 기간을 거쳐 공연을 완성했다.

"그동안 합창단의 활동이 뜸해서 이를 활성화시켜보자 기획된 공연이기도 해요. 그런데 매주 일요일 마다 나와 3개월 정도의 연습을 했죠. 그런데 15곡 연습하기가 힘겨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마치고 같이 영화 관람도 하고 기분 전환도 시켜 가면서 공연을 준비하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합창은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영상으로 막을 열었다. 1부 '바닷가에서' 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내는 오세동자의 영상을 무대에서 연출해 냈다.

애니메이션 오세암 재구성
스토리 합창공연으로 승화
올해 봉축 전야제서 재공연 예정

여기에는 단원의 어머니(김현정 씨)가 어머니 역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단원들은 제주 전통의 갈옷을 입고 출연하여 섬집아기를 비롯한 동요를 부르며 막을 열었다.

2부 '백담사의 즐거운 생활' 에서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산사의 하루일상을, 3부 '오세암 가는 길' 은 희망을 안고 오세암으로 겨울안거 떠나는 즐거운 산행을 주제로 '우리들의 말씨가 꽃씨가 되어서' 등 경쾌한 곡들이 합창됐다. 4부 '관세음보살 친견' 은 눈 쌓인 오세암에서 홀로 남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오세동자의 영상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리틀붓다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석가모니불' 등을 불러 관중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마지막 '관세음보살' 정근에서는 오세동자가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 함께 손잡고 무대 위로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 참가자 모두가 관세음보살을 정근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영상과 함께하는 합창제는 어린불자들이 부르는 청아한 노래 소리와 더불어 어느 때보다 큰 감동을 전하고 100분 동안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재, 리틀붓다 어린이 합창단은 20명이 넘는 대기 단원들이 있을 만큼 그 관심이 뜨겁다.

성원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는 40여 단원이 동참을 했는데 공연을 보고 단원 신청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20여 명이 대기자로 연습을 하고 있을 만큼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봉축 전야제 행사 때는 이 모두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서귀포승가연합회장 혜일 스님, 서귀포문화원이사장 도종 스님, 서귀포봉축위원회 대회장 진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도지사, 양병식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서귀포신행단체장,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지휘자 이춘기 교수와 제주도 내 합창단 단장 및 단원들을 비롯해 불자와 서귀포 시민들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예술가는 정년 따로 없지요"

불자 무용가 김복희 교수 퇴임 공연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는데 후배들에게 또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정년퇴임이죠. 사실 예술가들한테는 정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학이라는 제도에서 정년이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올해로 10년째 한국무용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복희 한양대 교수〈사진〉가 이달 정년퇴임을 기념한 공연을 2월 22~23일 이틀간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가졌다. 정년퇴임 기념 무대에는 김 교수가 1999년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곱추' 를 한국의 남사당패 이야기와 접목해 안무한 '천형, 그 생명의 수레' 를 올렸다. 첫날에는 15년 전 초연 무대 무용수들로 구성된 '올드 드림팀' (김복희 손관중 김남식 등)이, 둘째날에는 젊은 무용수로 구성된 '뉴 드림팀' (김성용 박종현 박은영 등)이 공연을 펼친다. 여기에 이청준 작가의 소설 '눈길' 에서 영감을 얻어 안무한 신작 '삶꽃 바람꽃 V, 눈길' 도 선보였다.

정년을 앞둔 김 교수는 제자들의 성장에 기쁨을 느낀다고 전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허무감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제자들이 훌쩍 커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허무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커요."

전통과 불교 기반한 창작무
'법열의 시' 등, 다수의 작품 창작

그동안 김 교수는 십우도 원효대사 등 불교적 정서를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머니가 신실한 불자였어요. 어린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대구 동화사 암자에서 지낼 만큼 절집과 친근하게 지냈죠. 효봉 스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등과 인연이 깊었어요. 불교는 늘 내 삶과 작품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죠."

특히, 그녀의 첫 창작 공연 '볍열의 시(詩)' 는 참선 과정을 춤으로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스물셋의 나이에 개인무용단을 만들어 1971년 제1회 현대무용발표회에서 무대에 올린 창단작품이 '법열의 시' 이기도 하다. "스님들의 선방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냈는데 돌이켜 보니 20대에 그렇게 심오한 주제로 춤을 풀어냈다는 것이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꾸준하게 동양적 정서와 불교적 정서를 반영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8월 아르헨티나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작품 구상도 틈틈이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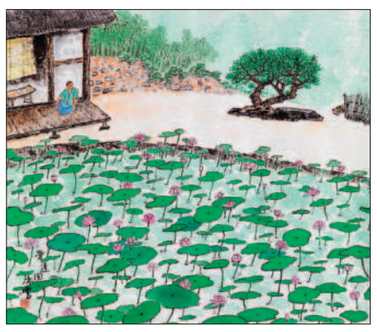
오견규 작품전 2월 28일까지…전남대 병원서

한국화가 오견규 작품전이 2월 28일까지 전남대병원 1동 로비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세상에 꽃 아닌 것 없다' 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매화 · 연꽃 · 동백 등을 소재로 한 '봄이 오는길' '선운사 동백' '꽃을 따다가' '애련도' 등 최근작 20여점이 선보인다.

먹빛의 담백함과 정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박함 그리고 초연함을 만날 수 있다.

목운 오견규 작가는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062)220-5092


오견규의 '애련도'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경의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각종 케이블 방송외 다수 출연

1회 무료수강 가능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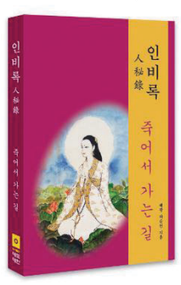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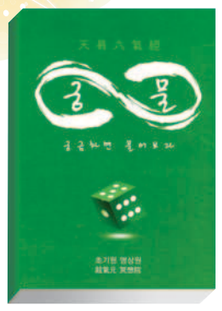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 · 사 기업체 출장강의 환영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문화

소소한 일상의 깨달음 禪카툰으로 전해주고 싶어요

명상카툰 작가 배종훈 씨



간결한 문구와 그림으로 깨달음을 주는 명상카툰 작가 배종훈 씨는 불교 교리를 만화로 풀어내며 11년간 독자들을 만나왔다. 사진=박재완 기자

"삶에서 느낀 것들을 불교교리와 결합해 쉽게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독자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죠."

간결한 문구와 그림으로 깨달음을 주는 명상카툰 작가 배종훈 씨는 불교 교리를 만화로 풀어내며 11년간 독자들을 만나왔다. 그간 배 씨가 불교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명상 카툰은 900 여 컷. 또한 명상 카툰집 〈내 마음의 죽비소리〉 〈자네 밥은 먹었는가〉 등을 출간했고 페사지에서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김윤희(맑은소리 맑은 나라 대표) 씨가 글을 쓴 〈페사지에서의 발견 여래를 품다〉 등도 펴냈다. 여기에 '카툰 선을 만나다' 展 등 5회의 개인 전시를 열며 지난 10여 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의 본업이 교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성과들이 녹록지 않은 결과물임에 분명하다. 국어 선생님도 화가도 어린시절부터 모두 그가 꿈꾸었던 직업이라고. 그는 욕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국어교사인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삼국유사〉를 읽으면서부터다. 이후 사찰 구석구석을 찾아다녔고, 페사지를 여행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사진으로 남겨 그림으로 풀어냈다. 또 불교서적을 읽으면서 틈틈이 좋은 문구들을 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준비된 작가였던 그는 2002년 겨울 〈월간 불광〉 독자투고란에 카툰 한 점을 보내면서 명상카툰 작가라는 직함을 갖게 된다.

"처음부터 카툰을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림에 이야기를 담으면 전달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도해 봤는데 연재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2003년부터 명상카툰을 연재하게 됐죠."

카툰 작가로 첫걸음을 뗀 그는 이후 본지를 비롯해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불교신문〉 등 교계 매체와 꾸준히 인연을 맺으면서 명상카툰과 삽화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교리 면에 들어가는 삽화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야 하니 매주 내용을 꼼꼼히 읽었어요. 불교 공부가 많이 되죠. 이 과정들이 명상카툰을 그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900여 작품 발표
4월 경 일본 전시 계획도

그림 그리기와 교사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법한데 그는 노력을 기울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수면 시간은 하루 4시간. 시간을 쪼개 여행을 다니고 독서를 하며 창작의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정작 그가 힘들었던 부분은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해왔는데 제 그림을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제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길이 없었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답답했죠. 하지만 최근 페이스북을 시작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페이스북(www.facebook.com/jh.bae.963)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배 씨는 현재 11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서는 불교 카툰 이외에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느낌, 그가 오랫동안 팬이었던 故 김광석 노래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그간의 작품 중 180여 점을 선정해 책으로 엮은 〈행복한 명상카툰〉을 2월 말 출간하는 것은 물론, 3월 6일~9일 붓다아트페스티벌 만화전의 초대작가로, 또 4월에는 일본에서의 초대전시도 갖는다. 배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많은 이들에게 소소한 깨달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 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면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제 그림이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배종훈 작가는 사찰 풍경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오고 있다. '상원사' 일러스트.



'삶이 수행' 명상카툰

화려한 풍경 너머로 느끼는 삶의 애환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⑨ 삼당(三唐)시인과 봉은사 ㊥





조선중기 선비들은 깊은 숲 속에 위치한 봉은사를 찾아와 시흥을 즐겼다. 지금은 빌딩숲의 전법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절집의 봄날 떠돌이의 슬픔

삼당시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시인은 손곡(蓀谷) 이달이다. 그는 서얼출신이었기에 당초 벼슬길에 나갈 생각조차 접었으며, 그 신분적 한계로부터 오는 비애를 안고 평생을 떠돌았다. 이달은 자식도 없이 떠돌다 평양의 어느 여관에 얹혀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무덤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초라하지 않았다. 제자 허균(許筠)이 그의 유작을 모아 〈손곡집〉을 편찬하고 서문에서 스승의 생애와 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손곡옹(蓀谷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두보(杜甫)와 소동파(蘇東坡)를 호음(湖陰)에게서 배웠다. 그 읊고 읊조린 것이 이미 웅대하고 치밀하였으나 최경창과 백광훈을 사귀게 되자 배움의 허술함을 깨닫고 진땀이 흘러내리므로 그간 배운 바를 모두 버리고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의 시는 공봉(供奉, 이백(李白)을 가리킴)에 근본을 두었고 우승(右丞, 왕유(王維)를 가리킴)과 수주(隨州, 유장경(劉長卿)을 가리킴)를 드나들어 기운이 따사롭고 지취가 뛰어나며 빛이 곱고 말이 담담하며 그 곱기는 남위(南威, 춘추 시대의 미녀)와 서시(西施)가 성복(盛服)하고 밝은 화장을 한 듯하고, 그 온화함은 봄볕이 온갖 풀을 덮는 듯하며, 그 맑음은 서리 같은 물줄기가 큰 골짜기를 씻어 흐르는 듯하고, 그 울림의 통량함은 마치 높은 하늘에서 학 타고 피리 부는 신선이 오색구름 밖을 떠도는 듯하며(중략) 우리나라 여럿 이름난 작가들과 비교하면 그들 또한 눈이 휘둥그려져 90리나 물러설 것이다. (허균 〈손곡집〉 서문)

허균은 또 이달의 전기 〈손곡산인전〉에서도 스승의 문학을 "맑고도 새로웠고, 아담하고도 고왔다[淸新雅麗]"고 찬탄했다. 불운을 안고 떠도는 사람의 심성이 왜곡되거나 반항적으로 길들여졌다면 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달의 경우, 타고난 시적 재능과 감수성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운명 속에서도 '따사롭고 빛 고운' 시들로 표출되며 세상을 보듬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역경운 운명을 청신아려한 문학으로 승화시킨 것은 재주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로 삶을 완성하려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을 것이다.

동호정도잠경과(東湖停棹暫經過)
양류유유수안사(楊柳悠悠水岸斜)
병객고주명월재(病客孤舟明月在)
노승심원락화다(老僧深院落花多)
귀심암암련방초(歸心黯黯連芳草)
향로초초격원파(鄕路超超隔遠波)
독좌계정운해외(獨坐計程雲海外)
불감서일청제아(不堪西日聽啼鴉)

동호에 배 멈추고 잠시 들렀더니
버들가지 하늘하늘 강 언덕에 비껴있네.
병든 나그네 실은 외로운 배에 밝은
달이 떠있는데
늙은 스님 계신 깊은 절에 떨어진 꽃잎
많구나.
돌아갈 마음 어둑하게 고운 풀에 이어지고
고향 길 까마득히 먼 물길에 막혀 있네.
홀로 앉아 구름바다 넘어 갈 길을
헤아리니
서산의 해에 우는 갈가마귀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이달 '연상인의 시축에 쓰다' 〈손곡집〉

이달이 성연 스님에게 써준 시다. 성연 스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달 백광훈 등과 깊이 교류하던 봉은사 스님이다. 시인이 동호에서 배를 타고 봉은사로 가는 시점은 버들이 늘어지고 꽃들도 만발한 봄날이다. 그렇게 좋은날이지만 시인은 슬픔에 젖는다.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떠돌이 신세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외로운 배 위에 떠 있는 달에 비유한 시인은 지는 꽃 속에 한가로운 노승을 대비시켜 슬픔을 더욱 확장한다. 그리고 저물녘 갈가마귀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탄식으로 비감을 극대화한다. 슬프다.

이달이 봉은사에서 누리는 봄날의 서정은 아름답고 화려한 풍경 너머로 느끼는 삶의 애환이다.

출곽도강소(出郭渡江少)
소년다왕래(少年多往來)
매휴최백배(每携崔白輩)
승원과시재(僧院課詩才)
구우조령진(舊友凋零盡)
유년차제최(流年次第催)
침음의주구(沈吟倚柱久)
서일하생대(西日下生臺)

성곽을 나서 강을 건너니
젊은이들 왕래가 많구나.
매번 최씨와 백씨와 더불어
절집에서 시재를 겨루었지.
옛 벗은 다 떠나고
흐르는 세월은 점점 재촉하네.
침통히 읊조리며 기둥에 한참
기대어 있으니
서녘 해가 생대에 지는구나.
–이달 '동호의 절에서…' 〈손곡집〉

내용으로 보아 이 시는 최경창과 백광훈이 세상을 떠난 뒤에 지은 작품이다. 제목은 '동호의 절에서 스님의 시축을 보니 최와 백의 시가 있어 서글퍼져서 시를 지어 준다(湖寺見僧軸有崔白詩愴懷有贈)'이다. 봉은사에 가서 스님의 시축을 보고, 거기 먼저 생을 마친 두 글벗의 시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개가 무량하고 서글픈 생각이 솟아 시 한수를 적어 시축에 보탠 것이다.

이달의 봉은사 인연은 최경창 백광훈과의 어울림으로 절정을 이루었기에 그들이 떠난 뒤의 봉은사는 침통한 회한일 뿐이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은 따뜻하다. 흐르는 시간, 바뀌어가는 세상, 늙어 가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어서 더욱 애잔하게 읽히는지도 모르겠다.

제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 운 교육부장 상 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 (총무원) 052) 262-6857
010-9707-8850

삼 보 양 초



①원기등홈 / 원기둥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출시예정 11만원)
②돈타레홈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 2BOX이상 구입 시 그을음 없고 무향, 고급향 1SET 무료증정 합니다.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 원 사 주지 도명 합장



육조대사의 법을 꽃피운 하택 신회 대사의 깨달음의 경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실증설(實證說)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방거사 어록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현재 32종 64권의 저서 출간 !
031-534-3373 바른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 ~ 2/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2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7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8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철러	궁리
4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9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10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누구나 여래 씨앗 가졌다



대승기신론 강설

아유와고샤(마명) 보디삿뜨와 지음
삼장법사 빠라마르타(진제) 한역
이평래 강설 | 민족사 펴냄
2만9천5백원



여래장사상의 〈대승기신론〉 강설
대승의 정체 '마음' 두 가지로 고찰
심진여문 · 심생멸문
이해 쉽게 의역, 용해, 도표 활용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라는 의미이다. 그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다' 라는 선종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는 여래장(如來藏)사상을 말한다. 30년 넘게 여래장사상을 연구해온 이평래(사진 · 충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현재 원효학연구원장) 교수가 〈대승기신론 강설〉을 펴냈다. 〈대승기신론〉은 불교 교리와 실천 및 수행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논서이다.

일반적으로 〈대승기신론〉은 마명(馬鳴) 보디 ꠏ 가 짓고, 진제(眞諦) 삼장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평래 교수는 진제 삼장이 짓고, 마명에게 가탁(假託)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을 한데 녹여 총체적으로 구성한 저술이다.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철학적, 종교적, 논리적, 이론적, 체계적, 윤리적,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학의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의 '대승' 은 소승에 대한 대승이 아니라 '마음' 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진여(眞如)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탐(貪) · 진(瞋) · 치(癡) 3독(毒)의 번뇌에 더럽혀져서 추한 존재로 있는 것이다. 즉 대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대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래장' 인 것이다. 그러나 그 추한 마음이 깨닫는 것이다. 오뉴월의 푸른 땡감이 잘 익어서 동지섣달의 빨간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음 밖에 깨달음의 주체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중생심에는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이 힘이 '승' 이다. '승' 이란 수송수단, 운반수단 등 운반하는 힘을 가리킨다. 중생의 마음에 중생을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운반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의 '승' 이다.

마음이 무한한 가능성, 능력, 곧 덕성을 갖추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이며, 특히 〈대승기신론〉은 인간의 본성을 낙천적, 긍정적, 능동적, 실천적, 청정성으로 보고 있다. 불교는 (神)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마음의 본성이 맑고 깨끗하다는 '자성청정심' 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자성청정심인 것을 깨닫는 것이 '기신(起信)' 이다.

자기의 마음이 '여래장' , '불성(佛性)' 인 것을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분석이나 분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붓다의 깨달음을 역으로 추론하여,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고따마 싯다르타 태자가 '여래장' , '불성' 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왓장을 숫돌에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여래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주체적으로 밝히면서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서이다.

이번 책은 대승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한마음' 의 존재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째, '마음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 , 즉 '심진여문(心眞如門)' 이며, 둘째는 '마음의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문' , 즉 '심생멸문(心生滅門)' 이다. 전자는 부처의 세계이며, 깨달음의 세계이고, 자성청정의 마음이며, 완성된 인간의 마음이고, 후자는 시간의 변화를 타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번뇌의 세계이다. 〈대승기신론〉은 일심(一心)을 붓다와 중생, 극락과 사바, 열반과 윤회, 진여와 무명의 두 얼굴로 전개하여 인간의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절묘하게 파헤쳤으며, 이 두 문 안에서, 마음의 세계가 각각 모든 세간적인 현상으로부터 출세간적인 진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마음의 존재방식을 포섭한다. 왜냐하면, 이 두 문은 본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일한 마음의 존재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승기신론 강설〉은 저자가 〈대승기신론〉을 강의하고 해설한 것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그래서 강설 형식을 취했다. 한글로 번역하고 강설을 한 다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용어 해설을 덧붙였다. 이번 책의 특징은 첫째,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대승기신론〉 번역서는 대부분이 축어역이다. 축어역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독자들이 어려운 한자용어를 소화하기에 힘들고 또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의역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번역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원문의 뜻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역문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원문을 함께 실었다. 둘째,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셋째,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열어놓았다. 넷째,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다섯째,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를 대입해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했다. 여섯째, 여래장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법신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강설했다. 일곱째, 마음이 곧 여래장, 불성, 중생이 곧 여래임을 확실하게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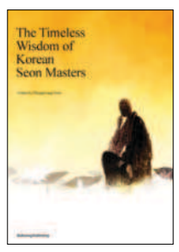
책을 펴낸 민족사는 이평래 박사의 〈대승기신론 강설〉 출간을 기념하여 3월 7일부터 불교여성개발원 강의실에서 '대승기신론 특강' 을 연다. 전문강좌로 주 1회(금요일 저녁 7시~9시), 40주(10개월) 강의이며, 80%이상 수강자에게는 대승기신론 강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수강료는 3개월분이 15만원이다. (문의:02-732-2403~4)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영어로 읽는 '고승열전'

The Timeless Wisdom of Korean Seon Master

글 · 윤청광 | 그림 · 견동한 | 번역 · 박희원
제작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불광출판사 펴냄
1만3천원





원효, 무학, 사명, 경허, 한암, 만공, 혜월, 한영, 효봉, 고암. 한국불교사의 위대한 선지식 열 분의 이야기가 영어로 묶어져 나왔다. 〈고승열전〉의 저자인 윤청광이 집필했다. 영어로 보는 '고승열전' 이다.

위의 이름들은 1700년의 한국불교사에서 저마다 분명한 자리를 지키고 또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간 선지식들이다. 아마도 자신을 '불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위의 불명은 설명이 필요 없을 한국불교의 '교재' 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울타리 밖에선 과연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20세기 들어 불교에 대한 서구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근대 초에 일본과 중국의 선승들이 불교의 세계관을 널리 알려 서구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고, 근래에 들어서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등이 평화운동과 영성운동을 통해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덕분이다.

이에 따라 불교의 역사에서 뛰어난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이야기도 서구에서 많이 알려져 감동과 성찰을 전해왔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스님들의 이야기는 많이 소개된 반면 한국 스님들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그간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외국 독자들에게 한국불교 스님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영문 책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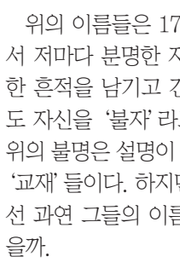
동굴에서 마신 물 한 모금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았던 원효 스님, 조선 건국의 큰 역할을 하신 무학 스님, 승병을 일으켜 왜구 침탈로부터 민초들을 지킨 사명 스님을 비롯하여, 한국 근대 불교를 일으킨 경허 스님 등 모두 열 분의 스님이 살아낸 빛나는 이야기다. 스님들의 일화 속에는 불교 고유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 불교를 받아들여 제 나름대로 소화한 한국인의 독특한 세계관도 녹아들어 있다. 그 덕분에 스님들의 일화는 한국에서 스며든 불교가 어떻게 나름의 독특하고 번뜩이는 가르침을 일구어냈는지를 알려주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은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잠언

오직, 사랑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 강만원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2천원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일곱 현인들이 밝히는 세상의 지혜와 오묘한 인생의 철학을 담아낸 책 프레데릭 르누아르의 에세이다.

네덜란드 철학자부터 몽골의 무녀까지, 가톨릭 수사부터 이슬람 수피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일곱 현인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시가 들린다. "수천 킬로미터 너머 하얀 산, 티베트로 떠나라." 누가, 어떤 힘이 그들을 세상의 끝에서 만나게 했을까? 그들이 지상의 모든 이들에게 남기고자 한 삶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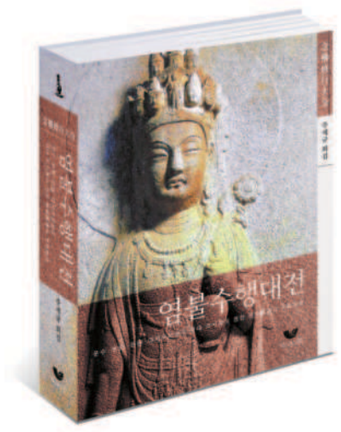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티베트의 '툴랑카' 사원에 도착한 현인들은 그곳에서 티베트 라마와 더불어 서로 지혜를 교환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수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는다. 그들은 라마의 환생인 소년 텐진과 네덜란드 철학자의 딸 나티아에게 7일에 걸쳐 '보편 지혜' 에 관한 영적인 교훈인 '지혜의 일곱 열쇠' 를 들려준다. 동양의 소년 텐진과 서양의 소녀 나티나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한계를 넘어, 살아가는 방식과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우고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인생 잠언, 다양하고 신비로운 종교와 철학 속 에센스를 모아 엮은 황금 같은 깨달음의 우화다.

현대 프랑스의 대표 철학자이며 종교사학자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영성' 의 의미에 대해 가슴 설레는 메시지이다. 저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에 도래할, 세상을 바꿀 혁명은 '영적 혁명' 이라고 예견했다. 그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정치와 종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영성의 힘을 이야기하며, 개별 종교의 형식적인 교리의 틀을 깨드리고 인간의 가치 있는 정신세계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단순하면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다.

박재완 기자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중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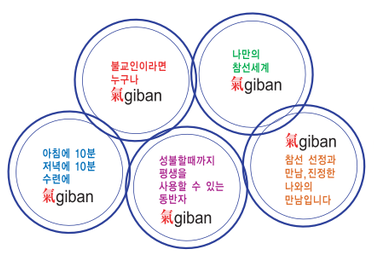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禪七' 과정속에 나타난 묵조선 핵심



비추는 침묵

성엄선사 밀씀
존 크루크 엮음
대성 옮김
탐구사 펴냄
1만5천원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때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지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수행뿐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하십시오."

이 책은 중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린 대만 성엄 선사가 1989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 웨일스서 7일 단위의 집중 선 수행인 '선칠' 을 이끌면서 했던 법문을 중심으로, 편자의 해설적 머리말과 선칠 체험기를 함께 싣고 있다. 특히 성엄 선사의 묵조선법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중 하나다. 편자 존 크루크는 웨일스로 스님을 모셔 선칠을 하면서 이 법문을 채록해 책으로 엮고, 스님의 선법에 자신의 수행 체험에 기초한 명쾌한 해설들을 덧붙였다.

이 법문에서 성엄 선사는 망명법사의 〈식심명(息心銘)〉과 굉지정각 선사의 〈좌선잠(坐禪箴)〉에 대한 강해를 위시해 선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 태도와 방법들, 특히 굉지정각 선사의 묵조선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자신의 묵조선법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성엄선사 영국 '선칠' 체험기
현대적 재해석한 묵조선법 설명
편저자 명쾌한 해설 붙여

중국 선불교에서 묵조선은 화두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다가 시대가 내려가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후대에는 사실상 실전된 것처럼 보였다. 다만 일본에서는 도겐 선사가 중국에서 이 선법을 배워와 '지관타좌(只管打坐)' 라는 이름의 행법으로 널리 보급한 뒤로 일본 조동종 수행법으로 전승됐다.

성엄 선사는 굉지정각 선사의 옛 문헌과 자신의 수행 체험, 그리고 다양한 수행지도 경험을 토대로 정통 중국 묵조선을 부활시켜, 종래 어렵게 여겨지던 묵조선을 한결 접근하기 쉬운 현대적 수행법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것은 선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전 양상인데, 그 묵조선법의 핵심을 구체적인 선칠 과정 속의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제 1부와 제 2부는 각기 1989년과 1995년에 성엄선사가 웨일스에서 한 선칠 법문이고, 제 3부는 제자인 존 크루크의 선칠 체험기이다. 망명법사의 〈식심명(息心銘)〉에 대한 강해를 포함하는 제 1부에서는 선 수행의 기본 요령, 특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친다. 제 2부는 굉지정각 선사의 〈좌선잠(坐禪箴)〉 등을 중심으로 묵조선법을 집중적으로 설하며, 중국 묵조선이 일본의 '지관타좌' 와 개념,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편자의 선칠 체험기는 선칠 수행자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깨달음의 경지를 열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기록이다. 성엄선사의 간명직절한 가르침과 그 제자의 명료한 분석 평가가 함께 어우러진 기념비적인 선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성엄 선사는?

중국 본토 장쑤성 출신의 대만 선사이다. 6년간 폐관(閉關) 수행 했고, 일본에 유학해 불교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선 수행을 지도했으며, 선사로서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불법 선양에 힘썼다. 중국 임제종과 조동종 법맥을 이었고, 이 양종과 교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새 불교 본산인 법고산(法鼓山)을 대만 북부에 창건해 이곳을 불교 연구와 수행의 세계적인 센터로 만들었다. 30년에 걸쳐 100여 차례 선칠을 주재해 많은 선 수행자들을 지도했으며, 대소 100여 권에 이르는 많은 저술 또는 법어집을 남겼다.

민중에게 역사의 진리 밝히고자 고뇌한 일연 스님 결실 '삼국유사'

삼국유사, 역사의 뜻을 묻다

이양호 지음 | 평사리 펴냄 | 1만6천원



〈삼국유사〉의 글쓰기는 요즘 역사책 쓰기와는 많이 다르다. 일연 스님은 물리적인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다. 실증적이고 물리적인 사실을 최소로 하고, 그것도 이야기와 일화 속에서 드러내려 애쓴다. 〈삼국유사〉 글쓰기를 한 마디로 줄이면 '집중' '배제' '배치' 그리고 '문학적인 상징' 이다. 요즘 역사책엔 낯선 방식이지만, 사마천의 〈사기〉 특히〈열전〉에서 빛을 발한 글쓰기이다.

〈삼국유사〉 연구에 필생을 건 고운기 교수에 따르면, 일연의 바랑 속에는 〈삼국유사기〉의 원자료 중 일부가 적어도 40년 동안 들어 있었다고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를, 못 잡아도 40년은 묻고 있던 것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화두 모음집들에도 들어있지 않은 화두를 들게 했을까? 나라가 절망적인데도, 한 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볼 책이 없다는 서글픔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사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의 얼굴을 보기엔 미심쩍었다. 그래서 일연 스님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흥망성쇠를 다 겪은 삼국시대를 살펴보되, 한 나라의 역사 전체를 다 드러나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역사가 되어가는 꼴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갈무리해 알려주었다.

일연 스님(1206~1289)은 지금의 경북 경산서 태어나 14세에 출가하고, 22세 때 승과 시험장원으로 급제한 뒤 선승으로 수행하며 선사와 대선사를 거쳐 국존에 이르렀다. 일연 스님이 살다 간 13세기는 참으로 격동의 시기였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뒤 고려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가 태어난 해에 칭기즈칸에 의해 통일된 몽골은 이후 1231년부터 모두 7차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다. 고려는 몽골의 일본 정벌을 위한 연합군으로 참여해 피를 흘려야 했다. 일연은 바로 이 내우외란의 힘겨운 시대를 사는 민중들에게 역사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 결실이 바로 〈삼국유사〉이다.

이 책은 모두 5권 9편, 139개 조목으로 이뤄졌는데, 이 책에서는 1권과 2권의〈기이〉편을 중심으로 하되 3권 〈흥법〉편에서도 신라왕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함께 다뤘다.〈기이〉편이 신라 중심이기도 하지만, 일연 스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마음에 두고〈기이〉편을 새겼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책은 신라 시대 전체를 사계절의 흐름으로 구성했다.

봄은 우리나라의 원천인 단군사화를 먼저 다룬 뒤, 신라 시조 박혁거세부터 김씨 시조 김알지까지를 주로 하되 그 뒷부분도 곁들여 다뤘고, 여름은 17대 내물왕부터 24대 진흥왕까지, 가을은 25대 진평왕부터 33대 성덕왕까지, 겨울은 35대 경덕왕부터 신라의 마지막까지 다뤘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 100년이 신라의 겨울과 닮았다는 생각에, 책은 겨울부터 시작하였다.

김주일 기자

고전은 철학의 기초체력 길러줘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인문고전 100

함영대 지음 | 팬덤북스 펴냄 | 1만5천원



자기 소개서, 리포트, 논문, 논술고사 등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써야 하는 글쓰기, 즉 논술이다. 논술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글은 재료가 있어야 쓴다. 세상의 삼라만상이 모두 재료이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글로 쓸 수 있다. 물론 모든 글이 좋은 글은 아니다. 좀 더 정리되고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좋은 글이 공감을 얻는다. 고전은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읽혔다. 공감받을 만한 사연이 담겨 있다. 공감받는 글쓰기에 고전은 좋은 양식이 된다.

고전은 글쓰기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논점에 대한 생각을 키우기에도 요긴하다. 논술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들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서 허약함을 드러낼 때가 종종 있다. 논리를 전개할 근원적인 힘, 곧 논리에 내재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전은 그 철학의 기초 체력을 길러 준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가? 고전으로 지목된 책들은 적지 않고, 논술의 주제는 인간의 현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주제 범위가 무척 넓다. 주요한 주제별로 논제의 쟁점을 확인하고 논리를 전개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면 논술에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요긴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 써졌다.

이 책은 '종교' '삶의 자세' , '인간 소외' , '생명 윤리' , '개인과 사회' , '역사' 등 총 20개의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로 평균 5종의 고전을 소개했다. 각 편은 해당 고전의 쟁점과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했다. 아울러 해당 고전에서 뽑은 '한 구절 경구' 와 쟁점에 관한 '문답 하나' 를 넣었고, 저자를 소개하여 이해를 심화시켰다. 특히 쟁점에 관한 질문에 참고할 길잡이를 넣어 어떠한 방향으로 논리를 펴는 것이 좋은지 충고해 준다. 해당 저자나 주제와 관련된 한 권의 책을 부록한 것은 보너스다.

모두 100종의 고전이 실려 있는 이 책은 논점을 확인하고 논리의 근거를 전개하는 이론적 바탕을 길러 주기에 충분하다. 시간이 없어 많은 고전을 읽지 못하지만, 주요 고전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각 편은 5~1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1종의 고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엮어졌다. 자투리 시간이 날 때 하루 한 편씩만 읽어도 100일이면 모두 읽을 수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논리의 진전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세 편의 특별한 절집 동화 이야기

특별한 장승/절집 개 점순이/부처님의 구슬

참글어린이 펴냄 | 글 이경순, 박선영, 정가일 글 | 그림 이은주 | 9500원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신춘문예에 당선작들을 모아 엮은 세 편의 동화집이다. 제목은 '특별한 장승' '절집 개 곰순이' '부처님의 구슬' 등이다.

△특별한 장승=지금은 많이 사라져 보기 힘들지만 서낭당과 함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숭배했다. 옛 조상들의 혼을 받아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에도 우 리의 장승이 수호신으로 세워져 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은 이상한 장승을 보고 연구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승에게 빌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펭귄은 도둑갈매기들이 자신의 알을 훔쳐가는 것을 막아주기를 장승에게 간절히 빈다. 펭귄은 소원을 이루지만 도둑갈매기의 죽음을 보고 도둑갈매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기른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천으로 옮기며 새끼 도둑갈매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는게 주 줄거리다.

△절집 개 곰순이=주인을 잘못 만난 멜리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한다. 어릴 때는 귀엽게 봐주다가 커가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돼서다. 새로운 주인 스님을 만나지만 쉽게 정을 주지 않는다. 절집에 와 곰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한결같은 스님의 마음 쓰임에 곰순이는 스님을 진정 주인으로 섬긴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동물들도 은혜를 알아 주인을 섬긴다는 교훈을 준다.

△부처님의 구슬=아빠는 전쟁터에 나가 안계시고 병으로 누워 계신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구슬을 찾아 떠나는 지민이는 가는 길에 여러 동물들을 만나 구슬을 구해 아픈 곳을 고쳐 주기로 약속한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엄마의 병을 고쳐주려는 마음으로 먼 여행을 떠난다. 구슬을 구해 오던 길에 동물들을 만나 하나씩 동물들을 도와주다 보니 엄마를 고치려는 구슬이 모자라게 됐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지민이는 엄마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성껏 엄마를 도와드렸다. '인과응보' 라는 말처럼 지민이가 도와준 동물들이 힘을 합쳐 지민이의 엄마가 낳을 수 있는 약초와 먹을 수 있는 산열매들을 마당 가득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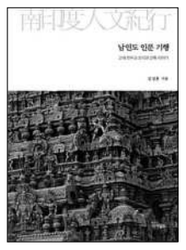
지민이의 소원대로 엄마의 병을 낳게 해 주고 아빠도 만나게 해주었다는게 주 내용이다.

김주일 기자

인도 문화의 원형 탐색한 기행서

남인도 인문기행

김성훈 지음 | 아이필드 펴냄 | 1만6천원



지리지, 여행기가 아닌 힌두 문화의 원형을 탐색한 책이다. 인도는 흔히 14억 인구에 3억3천만 신들이 사는, 만신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인도 중에서도 남인도의 도시 17곳과 그 주변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유적지의 건축과 조각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힌두교의 고대 건축과 조각이 주를 이룬다.

저자는 전직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금은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다. 30년간 해외 여러 곳에서 근무하던 중 인도-네팔과 인연을 맺었고, 북인도 곳곳을 다녔다. 그러다 불현듯 데칸고원 이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대 힌두교의 조각과 건축이 궁금했고, 벵골 만이나 아라비아 해안의 대항해시대 흔적들, 북인도와는 다를 것 같은 그곳 사람들과 자연이 꼭 보고 싶었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중국 둔황(敦煌) 석굴 제285굴 때문이다. 서위(西魏) 문황제 대통(大統) 연간(538~9년)에 조성된 제285굴 벽화에는 힌두의 신들이 보살로서 부처님을 협시(夾侍)하고 있었다. 그 신들이 이역의 땅 둔황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했다. 남인도에서 흡사한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조성 시기가 둔황보다 늦었다. 원했던 답은 찾지 못했다. 대신에 힌두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행운을 덤으로 얻었고, 그것을 글과 사진으로 남겼다.

김주일 기자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붓다의 물리학
2. 8원소 기본물질

눈 귀 코 혀 등 자극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문제

견고성, 응집성, 열성, 이동성 등의 사대성품은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한다. 이 네 가지 성품 이외에도 "파생된 물성(우빠다루빠)이라는 24가지 물성(루빠)이 있다. '앗타살리니' (2, 2권, 3장, 305)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대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파생된 물성들은 사대에 의지한다."

이같이 파생된 물성은 사대 없이는 생길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파생된 물성이 모든 물질무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생된 물성들 중의 네 가지는 물질무리가 일어날 때마다 사대성품과 함께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들은 몸 밖에 있는 물질이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든, 물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존재한다. 이 네 가지 물성은 다음과 같다.

색깔 냄새 맛 영양소

항상 함께 일어나는 사대성품과 네 가지 파생된 물성을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기본물질(아위닙보가 루빠)"이라고 한다. 땅 성품이 있을 때는 응집성, 열성, 이동성,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함께 있다.

색깔을 보면, 이것은 모든 물질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난다. 그것은 오로지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경험된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다. 색은 단지 보이는 물성(루빠)일 뿐이다.

색깔은 서로 다른 조건 때문에 다양하다. 그러나 나타나는 어떤 색깔이든 간에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감지되는 볼 수 있는 물성인 색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앗타살리니' (2, 2권, 3장, 318)에서는 봄의 대상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이 모든 물질은 눈에 부딪치는 특성이 있고 안식의 대상과 관련되는 특성 혹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안식에서 드러나며 사대를 가까운 원인으로 한다."

보이는 대상은 사대성품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사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대 중 하나의 특성, 예를 들면 견고함이나 따뜻함이 감지될 때 동반되는 색은 동시에 감지되지 않는다.

봄(안식)이 일어날 조건이 된다면 봄의 대상은 지각된다. 눈을 감으면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물성인 색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다. 눈을 감든지 뜨든지 "사물(thing)"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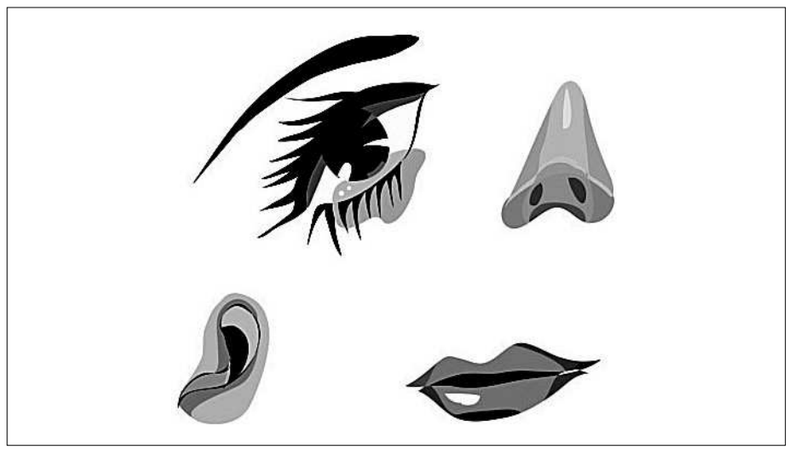
봄의 대상인 색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것, 예를 들어 의자의 모양이나 형태를 감지할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다. '의자'는 눈의 감성(감각기관)에 부딪칠 수가 없다. 봄은 '의자'를 보지 않고 단지 보이는 것만 볼 뿐이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순간에 일어난다. 내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도 있다. 그 순간에는 모양이나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이 한 대상을 경험하지만, 아주 밀착해서 연이어 또 다른 경험이 일어난다.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만일 색이 눈의 감성을 통해서 감지될 수 있는 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한다면, 이러한 실재에 대한 바른 지혜가 계발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냄새는 8원소 기본물성들 중의 하나인 또 다른 물성이다. 몸 안이든 몸 밖이든 물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냄새가 있다. '담마상가니' (625)에서 유쾌하고 불유쾌한 여러 가지 냄새는 단지 코를 통해 지각될 수 있는 그냥 냄새일 뿐이라고 했다. '앗타살리니' (2, 2권, 3장, 320)에서는 냄새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모든 냄새는 코의 감성에 부딪친다는 특징이 있다. 비식의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고, 후각으로 드러난다…."

이것의 가까운 원인은 사대이다. 냄새는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사대성품이 필요하다. 냄새 역시 여덟 가지 기본 물성들에 속하는 다른 물성들과 동반된다. 냄새가 나면 우리는 좋거나 싫다는 판단으로 넘어가 버린다.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에 집착하고 역겨운 냄새를 싫어한다. 하지만 냄새란 코를 통해 감지되는 단지 하나의 실재이며 그것은 지속되지 않고 바로 사라진다. 실재에 대한 이해를 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대상의 노예가 된다. 이러한 대상들 때문에 해로운 마음(아쿠살라찟따)이 일어나서 심지어 불선업을 범하기도 한다. 누군가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실체(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것을 훔치거나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서는 이 모든 대상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들은 생겼다가는 금방 사라질 뿐이다.

'담마상가니' (629)에서는 신맛, 단맛, 매운 맛 등 여러 가지 맛은 좋거나 역겨울 수 있지만 단지 혀를 통해서 지각되는 그냥 맛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앗타살리니' (2, 2권, 3장, 320)에서 맛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이 순간 조차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하는 것은 자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조건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성들임을 깨달아야"

"…모든 맛은 혀의 감성에 부딪치는 특징이 있으며 설식의 대상이 되는 특성을 가지며, 미각으로 드러난다…."

이것의 가까운 원인은 사대이다. 맛은 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함께 일어나는 사대가 필요하다. 맛 역시 8원소 기본 물성들에 속하는 다른 물성들과 동반한다. 우리는 음식에 집착하여 맛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맛보자마자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단지 물질의 한 종류일 뿐인 맛의 실재에 관해서는 망각한다. 우리는 어떤 맛이란 것을 인지할 때, 실은 어떤 개념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혀를 통해서 지각한 실재인 맛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실재가 아닌 생각일 뿐이다.

영양소는 모든 물질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물성의 한 종류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문을 통해만 인식할 수 있다. '담마 상가니' (§ 646)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를 계속 살게 하고, 먹어서 소화되어 즙이 될 수 있는 밥, 죽, 밀가루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앗타살리니' (2, 2권, 3장, 330)에서 설명하기를 식품, 삼켜진 덩어리(한입의 입안에 든 음식(까발린까로 아하라), 그리고 "영양소(오자)"가 있다. 삼킨 음식은 위장을 채워서 허기지지 않게 한다. 음식에 있는 영양소는 존재들을 유지하고 살아있게 한다. 조잡한 음식에는 영양소의 함유량이 적고, 정미한 음식에는 함유량이 많다. 변변찮은 곡식을 먹은 후에는 금방 배가 고프지만 버터 같이 정미한 음식을 먹으면 오랫동안 배가 부르다. (앗타살리니, 331)

'앗타살리니' (332)에서는 영양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특성에 관해서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은 영양소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은 (먹는 이에게) 물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물질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가까운 원인은 삼켜진 덩어리이다."

영양분은 쌀이나 다른 음식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위나 모래에도 있다. 그것은 어떤 물질에도 다 있다. 곤충은 인간이 소화시킬 수 없는 나무도 소화시킬 수 있다. 영양분은 몸이란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요소 중의 하나다. 나머지 요소들은 업 · 마음 · 열이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게 어머니가 먹은 음식인 영양분인 정수가 몸에 퍼지는 순간 영양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무리가 생겨난다. 그때부터 영양분은 일생동안 몸의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유지시킨다.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 몸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는 영양분이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쁜 음식이 피부를 거칠게 만드는 반면 비타민을 섭취하면 피부나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보인다.

집착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우리는 음식이 몸에 필요한 약이란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 붓다는 비구들에게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양의 음식을 권했고 더 이상은 먹지 말라고 했으며 먹을 때는 현명하게 잘 성찰하라고 했다. (청정도론 1, 85) 비구는 반드시 자기가 받는 생필품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청정도론에 생필품(가사, 음식, 주거, 약)을 사용하는 바른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124)

"…가사 등을 받았을 때는 받은 자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그것들을 단지 성품들로 보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어야 하며, 그것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성찰해야 허물이 되지 않는다…."

비구들은 반드시 가사나 다른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 음식 혹은 약품을 단지 성품들로 보거나 혐오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음식을 혐오감의 대상으로 여기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음식은 조건 지어진 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재가자에게도 먹을 때 알아차림 하는 유용한 지침이 된다.

"사띠빳타나 숫타"(염처경)의 주석서에 몸에 대한 알아차림(신념처) 부분에 '먹고 마실 때 분명한 앎을 지닌다'는 구절이 있다.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을 수저나 국자로 떠서 뱃속으로 내려가게 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바람 성품만 있다. 그럼 소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븐을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사람은 없고 서서 요리를 하는 각각의 무더기만 있다. 열이 음식 덩어리를 소화시키는 과정만 있고, 막대기나 장대로 소화된 덩어리를 밀어내는 자는 없다. 단지 진동하는 과정(바람 성품인 움직임)에서 소화된 음식을 밀어낼 뿐이다."

먹고 마시는 자아는 없으며 물성들이 다만 각기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물질이 일어나든지 사대성품과 형상, 맛, 냄새, 영양소의 네 가지 파생된 물질은 반드시 일어난다. 어리석음(무명) 때문에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한다. 인생이 끝날 때 더 이상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순간 조차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 순간도 머물지 않는 다양한 성품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보석 같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에 집착한다. 하지만 눈을 통해서는 오직 보이는 대상인 색깔과 형상만이 있고, 감촉으로 만져서는 단단함이라는 물성만이 있을 뿐이다. 궁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만져서 지각되는 돌의 단단함이나 보석의 단단함은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는 돌과 보석이 다른 가치를 가졌다고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념을 생각하는 조건들을 축적시켜 왔기에 실재에 대한 이해를 계발하지 않는다. 소위 일컫는 보석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오래 지속하지 않고 즉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재가자들도 자기 소유물을 즐기면서도 사물의 실재에 대한 이해를 계발할 수 있다.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삶은 오직 한 순간, 현재 순간만 존재한다. 봄의 순간에 색의 세계가, 들음의 순간에 소리의 세계가, 접촉의 순간에 감촉 대상의 세계가 경험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실제로 한 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분별론"에는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조약돌이나 자갈과 함께 보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이나 몸의 다른 부분처럼 안의 땅 성품(견고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땅 성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외적인 땅 성품이란 무엇인가? 몸 밖에 있는 딱딱하고 거칠고 단단한 것은 무엇이든지 굳어지고 외적이고 움켜질 수 없는 철, 구리, 주석, 납, 은, 진주, 보석, 묘안석, 조개껍질, 돌, 산호, 은, 동전, 금, 루비, 여러 가지 원석, 풀, 나무, 자갈, 질그릇조각, 흙, 바위, 산 등은…."

물질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준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물질들의 노예가 된다. '상윳따 니까야' (2, 인연의 모음, 14장, 사대요소의 품, 34, 괴로움의 특징에 대한 경)에 사왓띠에서 붓다가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 땅 성품, 물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에 전적으로 괴로움만 있고 괴로움에만 떨어지고 괴로움에만 빠져들고 즐거움에는 빠져들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가 각각 괴로움이 아닌 즐겁고, 즐거움에 둘러싸여 있고 즐거움에 젖어드는 한 그들을 추구하여 갈구하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 땅 성품, 물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고 즐거움에만 떨어지고 즐거움 빠져들고 괴로움에는 빠져들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그것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대가 각각 즐거움이 아닌 괴롭고,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고 괴로움에 젖어드는 한 그들을 싫어하여 쫓아버리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쁜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물질에 집착한다. 그러나 다치거나 아플 때는 혐오하여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것은 우리 자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조건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성들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병원진단시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여 환청,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증명된 프로그램으로서 우울증 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프로그램 참가 가능》

프로그램 내용

내 용	일 정
법화경 일일 독성	매일
묘법연화경 정근	매일
108배 수행	매일
일주일 점검	전문 상담을 통한 마음치유

모 집 기 간
2014년 2월 28일까지 (선착순 마감)

교 육 기 간
2014년 3월 9일 – 5월 25일 (12주)

장 소
기청사 : 양산 통도사에서 5분거리

참 가 비 12주 코스 15만원

참가인원 20명 제한
(인원 미달시 다음 프로그램으로 연기)

상 담 자 혜공 스님
(진행상담사 문의처 010-4616-5438)

대한불교영산종 기청사 (법화도량)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2014년 홍익범패 강의 안내

본 대학에서는 스님들을 위주로 전통범패를 강의하고 소질이 있는 분을 발굴하여 범패단원으로 인정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스님을 꿈꾸고 계신분도 기초부터 공부하여 훌륭하신 큰스님을 인연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 의 내 용

◆ 2014년 3월 3일 오후 3시 개강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바라춤, 나비춤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목탁, 요령, 태징, 북, 기초, 조석예불, 사시예불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49재, 천도재, 방생, 시다림, 구병시식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일반인 기초예절법, 난 누구인가,
▷붓다를 찾아서, 천수경 해석,
▷불자님 같이하는 예불법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873-83 효성빌딩 4층
(연수로 190 효성빌딩 4층 법지사)

전화 : ☎051)852-0108 법지사 /
010-4466-3575 (강주 지효스님)

영남범음범패 제3기 학인모집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14년 2월 24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 교 대 학 범 패 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세존이시여, 이 무슨 죄인지 자꾸 찌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바사닉 왕이 묻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일이 사람을 살찌게 만든다. 첫째,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셋째, 잘났다고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 근심이 없는 것이며 다섯째, 일이 없는 것입니다."

– 법구비유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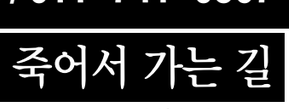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688-6625

범음범패 실전교육도량
학인모집(실전위주교육)
기초과정 → 고급과정까지
바라나비무, 작법반 모집
(불교행사 전문 교육)
010-8612-6914
염불원 : 경주시 내남면 신을길 98-20
대승불교 염불원 (대승범패원)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10-3677-3845 보성 합장

명리학(사주철학)개인지도
1. 경력 30년 '병제철학원'
2. 명리학 + 성명학
3. 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전숙지
4. 주 1-2회, 3~4개월 완성
(주/야 평일, 휴일 선택)
010-3695-1626
서울 가락시장역 3번출구 3분거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신심있고 참신한 공양주 구합니다
40-50대의 시봉 겸 살림 도우며
스님 보필에 힘써 줄 평생에 사찰에
의지하며 불심깊은 보살님을 찾고 있음.
급여 및 퇴직 노후대책도 보장함.
(사찰환경 답사 후 상담 결정함,
단, 답사할 사람만 전화요망,
60대는 전화사절함)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예천 054)653-1180
010-6353-1180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사찰 운영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부산)
010-6575-1719

스님이 안계신 경북지역의 토굴이나 암자 구합니다
(비구승, 철학경력 26년)
010-4936-992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①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참관가능)
* 매주 토,일요일 치유명상
* 강력한 변화와 힐링(부부,자녀,조상,진로)
② 원네스 깨어남 코스
* 삶의 비밀을 경험하고 성공,번영,건강,성장
* 매주 화, 수요일 저녁 7시 무료명상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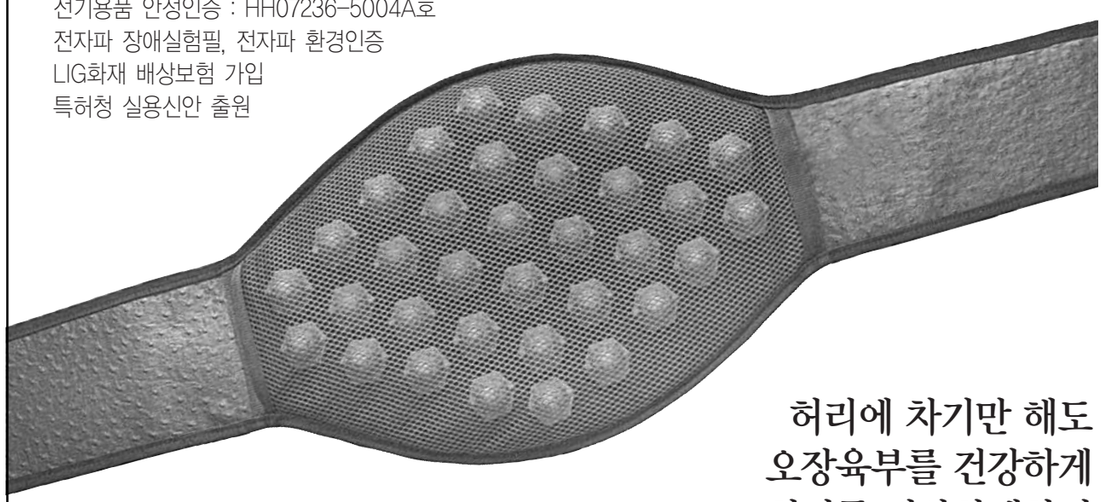
참 소식을 전합니다
부처님 정법을 바로 실천하고 바로 알고 전하고저 대한불교정법종 불교문화유산재단법인을 창종하였습니다. 여러 종단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며 불자 여러분께서는 큰 자비심으로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말씀과 창종식 대법회는 다음 지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정법종 불교문화유산재단법인
총무원 본사 : 경북 안동 정법선원 ☎전화 054)854-3856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선지식은 뱃사공과 같다. 이 생사의 바다에서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네주기 때문이다.

– 열반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 8m접
- 건물 : 42평, 남향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금액 : 평당 20만원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바다전망 좋은 사찰
- 대지 2700평 • 건물 : 4동 (법당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 기와법당39㎡ 산신각
- 요사채57㎡, 토지122㎡
- 뒷편은산, 조용한사찰
- 교통편리 지하철부근임
- 가액 : 5억5천만원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조절 불가)

010-517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 2층 법당
-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9058-535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집
- 가액 : 4억3천(조정가)

011-645-1361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 위치 : 한강이남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암자.토굴.포교원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3분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도심속 토굴 수행처(급) 안내
-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 주택 24평, 방3, 깨끗 아늑 조용함
- 도보 3분 시내 10분 서울 강남 45분, 동서울에서 50분거리
- 주변 100가구세대 해외 이주관계로 주인 급 안내
- 스님, 거사님, 보살님, 참선도량 환영, 아주 싼집 융자 무,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기회(4천 2백) "선착순"

주인직통 010-9787-5505

포 교 원 전 세
- 위치 : 부산 송정바닷가입구
- 평수75평 2층단독
- 삼존불 후불탱화,소불 영가단 법당
- 방1개,공양간,화장실2개, 드럼세탁기 비데 정수기 에어컨 주차가능. 유동인구많음
- 가액 : 천만원에 달세40만원 시설비2300만원 (절충가능)
- 몸만오시면됩니다
- 보시고 결정하세요. 소원 이루는 신비의돌

010-5795-80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대전역 도보 8분)
- 3층 건물의 3층., 4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주방, 보일러 냉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 햇살이 좋은 양택, 살림도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7450-9763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8억 8천만원

010-3858-8335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낙동강 부근
- 대웅전 1동, 산신각1동, 스님 직무실 1동,
- 공양간 1동, 방 총 6개, 창고3칸 해우소 1동, 샤워실, 주차장, 산 절부지 2,500평
- 비구니 스님이 적당함. 주지스님
- 가액 : 1억 8천만원 (전세가능)

010-2670-40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시 불국사 부근 도로접하고 있음, 4층 건물
- 깨끗하고 시설완벽 구조 잘 되어 있음
- 대지 80평, 건평145평
- 주차장 시설 완벽
- 가액 : 5억 5천(융자 2억 7천)

010-8507-97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0-2503-3899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도심속의 암자(급)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행운의 땅 양도
저는 인연이 다해 복 받을 분에게돌려드립니다
- 위치: 경기도 가평군
- 2,000평
- 가액 : 6억
- 본인직접

010-5414-2643
010-5234-3288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양도가액: 2억 7천만원 (융자1억포함)
- 인수금 부족시 5년간 분할납부가능

010-9647-0723

사찰(급) 안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 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 7억 5천(조정가능)
- 평수 :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토 굴 안 내
- 위치 : 마산 도시 근교
- 임법당에 부처님 모시고
- 지병으로 조용히 수행하실 분
- 인가 접한 곳, 조용한 곳
- 대지 134평, 건평 39평
- 공기·식수 1등급
- KTX역에서 8분거리, 비품 일체 제공
- 가액 : 9천만원

011-578-141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대전역 도보 8분)
- 3층 건물의 3층., 4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주방, 보일러 냉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 햇살이 좋은 양택, 살림도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7450-9763

암 자 안 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비품일체포함,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5천만원

010-4542-0902

토 굴 안 내
- 중부 곤지암 IC 에서 10km
- 대지150평 (건물 2층 60평 - 조립식)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양도가 : 1억 9천

010-9305-67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5,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농 가 주 택
- 위치 : 경북 영양읍 근처
- 건물 27평
- 대지 100평, 남향 한적한곳
- 기반시설, 차진입, 다용도
- 가액 : 반값 3,500만

010-8899-8899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특징 : 절, 요양원 최고의 조건
- 부지면적 : 2,300㎡ (700)
- 건물면적 : 7,000㎡ (2,000)
- 가액 : 58억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문화재 사찰
- 목조, 단청 대웅전,삼성각,종각
- 요사채 2 외 건물
- 기도하기 좋은 사찰
- 대지 1,000㎡ , 건물 290㎡
- 가액 : 15억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암 자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진주에서15분거리
- 대웅전1채, 요사채
- 약 1000평 (대지, 전, 답 등)
- 가액 : 1억 5천만원 (충분한 협의가능 합니다)
- 금액 생각하시지 말고 문의 바랍니다

010-3586-8696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천만원(조절 가능)

010-7466-77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부근
- 한옥 36평
- 법당: 아미타사존불, 지장보살, 신중, 산신, 용신, 소옥불77불
- 방2개, 공양간 1칸 (현재법회중)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40평, 창고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완비
- 주차시설용이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1억4천만원

010-2542-5858
010-3503-7213
010-3123-31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입구
- 실평수 85평, 법당 약 30평, 큰방2, 종무실, 다용도실, 욕실(게르마늄 황토 찜질방). 주방(시설 1년 안됨)
- 보증금 1,000만원 130만원 시설비 3,300만원 협의절충
- 몸만오시면 됨, 부재시 문자 주세요

010-3606 - 244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지하철 5분거리에 산속 암자
- 대지 : 300평
- 법당, 요사체, 산신각, 기타 등등
- 가액: 1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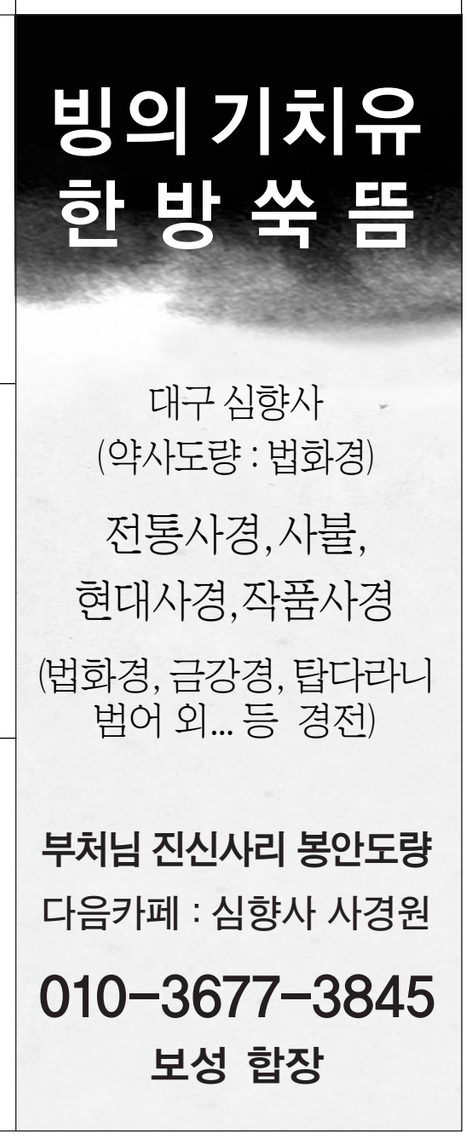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암 자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 법당 7평, 산신각, 요사채 15평(오래된 암자)
- 경관일품 뒤는 바위산
- 교통편리함. 합 174평
- 양도가 : 7,500만

010-3288-1317



현존수업

〈3〉 나의 반영과 투사 알아차리기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재에 살 때 당신의 과거 유령 내 쫓을 수 있다

Now and Here

모든 생명은 연결돼 있다

현존 수업을 마치면 당신이 경험하게 될 변화 중 한 가지는, 당신의 행동이 자동적인 반응으로부터 의식적인 응답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세상에 대한 인식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에 일어나는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전체 경험은 달라진다. 자동적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 응답을 지속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일어난 변화는 영구하다.

통합되지 못한 누적된 감정의 영향이 시간에 의해 지연돼 일어 날 수록,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듯해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신이 겪는 일들이 당신 '때문에' 혹은 당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희생자나 지배자 심리에 빠지게 만든다.

희생자나 지배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당신이 타인에 대한 당신의 경험에 불평을 하거나 그들과 경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 행동이 일으킨 결과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또 스스로 자신의 길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식으로 자신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희생자/지배자 심리는 개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것과 같다.

자동반응적 행동은, 세상 일이 당신 '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 그러므로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이 방어하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당신의 의지를 개입시키는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속임수가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간 속에서 사는' 당신은 오로지 현실의 거울에 비친 과거와 투사된 미래에만 주의가 팔려 있기 때문이다. 누적된 감정 상태로 인해 일어나는 당신의 자동반응적 행동과 그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놓여 있다. 이 시간 간격이 꽤 길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현재 상황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에너지적 연결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것은 에너지의 연결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각의식 속의 맹점이 되고 만다. 이 사각지대 때문에 당신은 당신과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당신은 촘촘히 연결돼 있는 만물의 실상에 까맣게 눈이 멀어 있다.

모든 생명의 에너지 차원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인식하려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체험을 통해 자각해야 한다. 이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경험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시간 속에서 살면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나날을 보낸다. 반대로 현존하면 당신은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즐긴다'.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연결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되살리려면 생명을 '작용하는 에너지' 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런 인식의 조율을 시작할 수 있을까? 바로 자기 경험의 감정적 내용물로 주의의 초점을 되돌리는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각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그 자각의식이 주변 세상에도 비쳐 보인다.

이러한 점진적 의식 변화의 결과로,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결과물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시간이 점점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때 당신은 실제로 자기 경험 속의 감정의 저류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감정의 저류는 당신의 경험을 관통해 흐르면서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에너지의 줄이다. 이 에너지 줄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 바로 '현 순간의 자각' 의 재탄생이다. 하지만 이것은 육안이나 정신적인 이해력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느낌으로 '보는' 마음의 눈을 떠야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현 순간의 자각에 들면, 시간 속에서 살 때마다 당신이 하게 되는 경험의 질이 실은 '결과물' 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현 순간의 자각이 더욱 깨어나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경험의 질은 당신이 아동기 때부터 지녀왔던 통합되지 못한 감정의 누적물들이 다시 일으켜내고 있는 결과물임이 분명해진다. 당신은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자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감정이야말로 자신의 성인기 경험의 질로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메신저 알아차리기

당신을 흥분 내지 동요(upset)시키는 것은 당신을 위한 어떤 마련(setup) 이다.

당신이 흥분할 때마다 과거라는 유령이 찾아오는데, 이로써 당신은 그 유령이 당신의 현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지도, 미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퇴마할 기회를 얻는다.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무의식적 기억의 반영을 주변 세상으로부터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통찰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특정한 사건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타인의 행동으로 나타나든 간에– 당신은 과거의 반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에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자동반응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 반영의 결과로 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규칙에 예외는 없다. '감정적 흥분=기억의 상기' 인 것이다.

어떤 것에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당신은 여태껏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뭔가를 활발하게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이 사건에 에너지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당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통합되지 못한 감정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감정상태에 시달림을 받는다. 이 때문에 당신은 투사를 함으로써, 다시 말해 희생자나 지배자처럼 행동함으로써 거기에 자동반응한다.



에너지 연결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촘촘히 연결된 만물 실상을 못봐

모든 생명의 연결성 인식 하려면
인과의 긴밀한 관계 체험 통해 자각해야

시간 속에 살면 '삶을 두리번 거리게 돼'
현존하면 '충만한 인생 즐겨'

현존수업에서는 당신이 흥분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을 '메신저(messenger)' 라고 부를 것이다. 이 체험 여행을 하는 동안 현존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메신저(당신 과거의 반영)' 를 보내어 당신을 위한 일을 마련할(set you up, 즉 당신을 흥분시킬 upset you)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동기 이래 오랫동안 자각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왔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존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자신의 깊이 억압된 과거를 통합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는 거울의 반영(메신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존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위한 상황을 '마련하는' 이유는, 억압된 기억들을 의식 표면에 떠올려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마련 받는 경험의 느낌은 거의 언제나 불편한 느낌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느낌과 직감을 통해 인식되는 기억은 과거가 현재에다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당신이 거기에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동반응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현존 수업 여행을 마칠 때까지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듯이 뒤로 물러나 앉아 자신의 경험을 지켜볼 것이다. 라이브 연극을 관람할 때 당신은 배우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언행을 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배우와 싸우지는 않는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단지 연극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우들은 단지 당신의 가슴에 친숙한 감정의 방아쇠를 당겨주고 있는 것일 뿐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현존 수업 과정에서, 그리고 현존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기억을 경험해야 할 방식이다.

이 마련된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를 깨닫고 웃게 된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당신 삶의 경험 전체가 마련된 것이다. 이것을 '우주적 농담(cosmic joke)' 이라고 한다. 당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응하는지를 깨닫고 웃을 줄을 알게 되면 웃을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감정에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과 상황에 자동반응하는 것은–거기에다 투사를 하는 것은–현존이 보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동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힘을 얻도록 인식의 훈련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라. 자동반응과 의식적 응답의 핵심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다.

● '자동반응(reaction)' 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세상으로 보내는 행동이다. 자동반응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험의 원인을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펼치는 드라마다.

모든 반응 행동의 주제는 '비난' 과 '복수' 다. 자동반응 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 '의식적 응답(response)' 은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에너지를, 무의식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도로써 품어 안고 건설적으로 내면화 시키려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의식적 응답 행동의 주제는 '책임' 이다. 당신은 '내면에 펼쳐지는 감정 상태를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느낌으로써'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이제부터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어떤 상황들이 당신의 일상적 경험 속에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통합시키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들이다.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힘은 그 상황들이 당신의 억압된 과거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상황이 당신이 경험하는 다른 모든 상황과 다른 점은, 거기에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동반응한다는 것이다. 현 순간의 자각을 얻어 의식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될 때까지 당신은 이런 마련된 상황들에 대해 계속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된 기억이 떠오르는 방식을 꼭 유념해야만 한다. 억압된 기억은 당신의 정신체 안에서 이야기나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나타난다.

2주차에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통합되지 못한 기억들을 반영하는 메신저가 당신의 경험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또 당신의 투사와 반응적 행동이 방아쇠에 의해 촉발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이때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느낌을 조작하려 들지 말고 단지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을 느껴야 한다.

2주차 과제를 통해 당신은 '보는' –느낌으로 느끼는– 능력을 일깨울 것이다. 다시 말해 물리적 상황의 표면 아래서 에너지로 흐르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는 직감을 일깨울 것이다. 이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과 '반영된 기억' 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또한 반응적인 것과 응답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준다.

이 과제를 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당신은 과거의 유령을 내쫓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메신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리고 자동반응과 의식적 응답을 구분함으로써 당신은 유령 잡는 사람이 된다. 유령 잡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시간이라는 꿈에 의해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의 의식을 용의주도하게 이끌어간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365 친절상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확인, 영능력개발
천도방법 전수자 모집
전수내용
❶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와 일반병의 구분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자성주(自性珠)를 아시나요?
화장(火葬)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섞지않고 섭씨 2,300℃ 이상의 고온에서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자성주(자성사리) 입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자성주(자성사리)로 하여 종교시설 및 납골당 가정에 모실수 있습니다.
자성주 결정체의 특징
자성주로 모시면 잘못된 묘자리 또는 화장된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어 좋은 인연을 이루어줍니다.

NAVER 자 성 주 네이버 검색

납골당 분양 및 지사지국 모집
(주) 보은의 사랑
010-3679-1080,1899-1042

갤러리 색즉시공



〈화순 운주사〉

불이(不二)

언제부터 바위이고
언제부터 부처였을까
바위였던 부처
부처였던 바위
어디가 바위이고
어디가 부처인가
바위 깎으면 부처인 것을
부처 부서져 바위인 것을

언제부터 나였고
언제부터 너였을까
나였던 너
너였던 나
어느 마음을 너라 하고
어느 마음을 나라 할까
나를 버리면 너인 것을
너를 담으면 나인 것을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도반의 향기

자재화보살의
바라밀일기



나의 도반 대덕화

나에겐 대덕화라는 도반이 있습니다. 그는 법회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절도 하고 묵언수행 중인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그의 집중력에 놀라 가끔 그를 지켜보다가 어떤 책으로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철야기도 중에 잠시 만나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의 기도의 내공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34년이나 믿었던 대덕화보살은 남편, 아들, 딸과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다니던 교회에 회의를 느껴 성당에 나가볼까 했는데, 불교를 믿으셨던 시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려던 마음을 돌려 불교를 믿으면서 시댁 어른들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으로 봉은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석을 했고 기술고시에서도 수석을 하신 분으로 공직에 계셨는데, 갑자기 두 번씩이나 쓰러져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힘든 상황에 또 다시 큰일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아래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상사인 거사님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차츰 건강이 회복되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마음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학금 받으며 학교에 잘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산에 묘가 다섯 개 있었는데 그 중 두 개의 묘가 마구 파헤쳐져 있고 산신각이 보이고 법당이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용하다는 데를 찾아 다녔는데 한 소리로 산소를 잘못 만져서 생긴 일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선산에 가보니까 이만하기가 다행이라고 그나마 보살의 기도 덕분이라 했답니다. 물론 남편 몰래(알면 업 짓는 말을 해서 공덕이 없어질까봐)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과 기도를 하고 와서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잘 나가던 애를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게 너무 가엾고 미안해서 월정사에 가서 울며 삼천배 삼일기도 후 봉은사에서, 집에서 이천배, 천배를 계속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절을 할 때는 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들으며 불교공부를 할 수 있게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테이프와 종범 스님 정락 스님 등 큰스님들의 법문을 다운받아 틀고 또 틀어서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기도를 하는 중 또 꿈을 꾸었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길이 보이는 꿈을 꾸고 나서 희망을 가지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씻은 듯이 나아서 활기를 되찾아 운전면허도 따고 템플스테이에도 다녀오고, 법륜 스님의 정토회에 나가 봉사 수행도 하고 바쁘신 아빠

"어려움 겪으며 살아보니까
좋고 나쁜일 영원한게 없더군요"
관음보살 닮은 도반의 말입니다

회사에도 나가 회사일도 도우면서 공부해 졸업하고 그 동안 하고 싶었던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덕분이라고 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한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나서보니 아빠도 건강을 다시 찾았고 사업은 번창해 남들은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데 놀 사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수 도 없이 한다고 합니다.

111일 기도라고 매일 오지 않지만 절에 올 때는 무겁게 공양물을 들고 오는 정성. 집에는 보시함 통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절에 오는 공양미를 따로 사놓고 한 그릇 푸면서 발원하고 또 푸면서 기도하며 가져 온답니다. 공양 올리는 모습도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인연 있는 절에도 가끔 들러 스님이 뭐가 힘드신지 살펴보고 재보시 법보시를 소리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일찍 출근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집에 계신 부처님)점심까지 대접을 하고 집안일 한 후에 절에 오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도반.

"저는 일찍도 못 오구 매일 오지도 못해요. 집에서 정성껏 해요."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기도하면 그곳이 마치 극락인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법화경을 사경하고 거사님은 금강경을 사경하고 있답니다. 발원을 할 때도 자꾸 "해주십시오." 하기가 송구스러워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한답니다.

저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행을 하는데 불보살님 성현님들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수 도 없이 받은 가피를 쓰려면 책 한 권은 될 것 같답니다.

아빠께 바친 꽃바구니

과묵하신 학자타입의 아빠가 "너도 나 닮아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성격인 것 내가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 너의 엄마기도 덕분인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아빠 성격을 닮아서인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 하나 밖에 없는 사랑스런 딸에게 아빠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빠에게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일상과 같이 생활하던 예쁜 딸이 그해 마지막 날에 아주 큼직한 꽃바구니에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 쓴 리본을 붙여 아빠회사로 꽃배달을 했더랍니다. 속 깊은 딸은 엄마의 고마움과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계신 아빠께도 감사함을 담아 표현했답니다.

사랑스런 딸의 깊은 마음을 받고 환한 아빠의 얼굴에 핀 함박웃음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거사님은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났지만 큰 댁의 힘든 형편을 도와 두 조카 학비를 대 성공시켜 놨고 어머님이 계신 곳이라고 당신들은 전세 살면서도 큰 집을 사드렸습니다. 후배들 학비를 도와 주시는 등 많은 일들을 하시며 당신이 이생에서 갚고 갈 빚이 있다고 확실하게 갚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답니다. 그 남편에 그부인인 것 같습니다.

초하루 차례를 지내고 친척들이 다가고 난 후에는 가족모두가 보리암으로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간답니다. 오는 길에 이 절 저 절에 들려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 한 일은 부처님 만난 것과 호남인 남편 만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제일 큰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얼굴에 핀 행복의 꽃이 고와보입니다.

"어려움 겪으며 살아보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좋아도 담담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엄마의 내공이 대단하다고 아들이 칭찬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 위에 청아하고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겹쳐보였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이생에서 갈 길 열심히 닦으며 같이 살아가자고 하네요. 이런 도반이 제게 생겼다는 것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제게 전해옵니다.





대행 스님

아주 진실히 자기를 믿는 데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문)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된 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갖고 참된 도의 길을 갈 수 있는지요?

답)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해서 믿고 다닌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이 껍데기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있고 이끌어 가는 내가 있으니까 꼭 그것은 서로가 상봉하고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믿어야 되겠다. 믿지 않는다면 나를 누가 믿으며 내가 딴 사람을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를 내가 믿어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게 허사죠. 이 세상에 모두 믿을 거는 나 하나를 잘 믿을 수 있어야만이 전부 믿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로 가는 길도 일로 올바르게 가게끔, 자동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자동적이고 얼마나 신비한지, 정말이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살아 보시지만, 인생은 살아 보면 살아 보는 대로 맘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맘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만날 갇혀 있는 거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곳곳마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 데마다 섭섭지 않게 하고 섭섭지 않게 행동하고 항상 웃고 말할 수 있고, 어떠한 성낼 일이라도 성 안 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성내고 말할 거를 성 안 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이 잘 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를 아주 평탄하게, 판판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마음으로 길을 만드는 것은 마음대로 길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파고 자르고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길을 내는 거는 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은 내가 진짜 살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람 공장에서 하는 일이죠. 이 지구가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면 말입니다. 사람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겁을 지내면서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 돼 가지고만 고통 받는 게 아니죠. 수없이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왔는데 또 다시, 또 다시 우리가 이 공부를 우습게 생각하고 해서 지금 살아서 느껴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냥 도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모습을 가지고 또 나온다면 그 모습을 벗기 위해서 또 앨 써야 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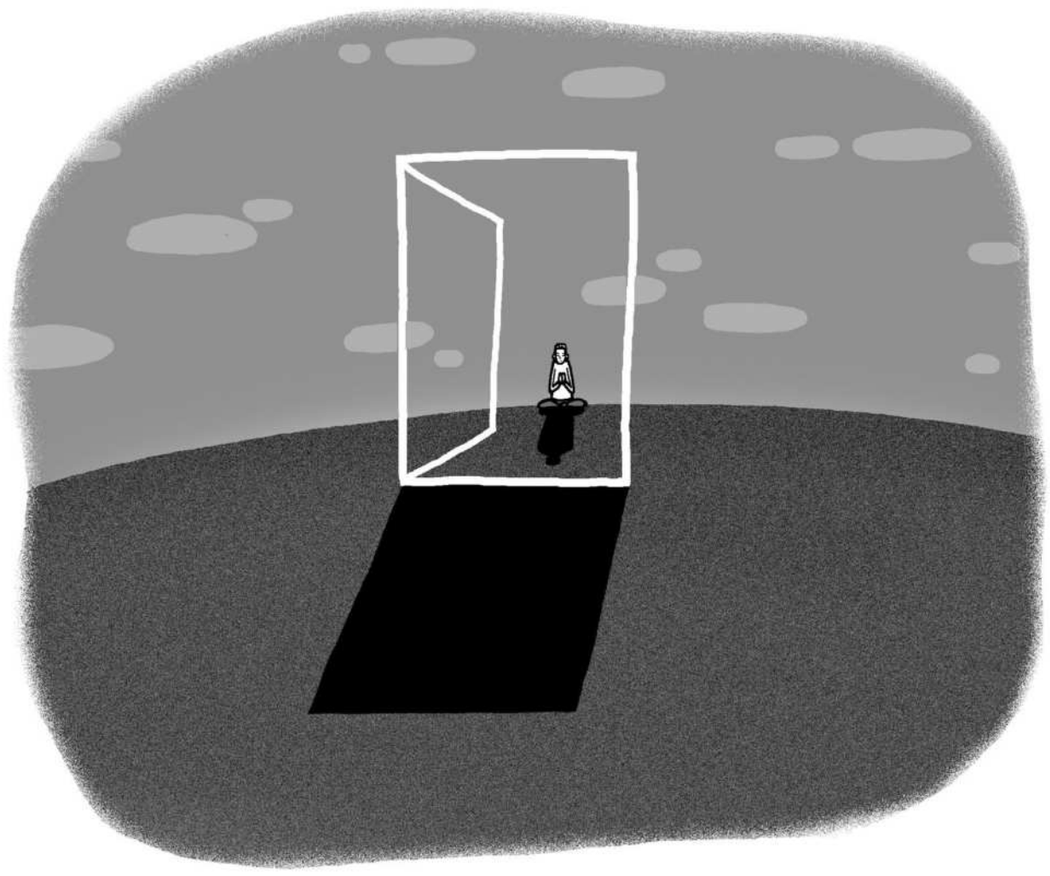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자길 믿어야 부처님이 믿어지죠. 그렇죠? 부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아픈데 일어나지 마라. 내 모습을 보고 일어나지 마라. 네가 너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의 모습 없는 나도 네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진짜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인생은 사는 게 이런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신다면 정말 인생은 거듭거듭 찾지 못해요.

진짜 돈을 쥐고 다니면서 나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고 내 자리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 우주 허공 중에 어떤 자리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본다면. 그런데 그걸 몰라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수레바퀴에 그냥 엉걸려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우리 지구의 에너지가 다 없어져서 인제 수억 년을 가면서 에너지가 된 거를 우리가 그냥 쓰고, 쓰고만 사니깐 없어질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는 이 지구의, 즉 말하자면 벽을 벽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문도 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 없는 문을 알아야 된다. 이 보꾹도 문이고 이 천장도 문이고 다 이게 문이 아니 될 수 없죠. 글쎄 어디든지 그렇게 내가 자유스럽게 발판을 디딜 수 있다. 허공도 딛고 날 수 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든 걸,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로는 다 못해요.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했으니까 거짓으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을 말로 다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양으로 애를 쓰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로 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남을 만나는 데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웃고 살아라.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우그러져서, 즉 말하자면 조상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이 낭가가 났다 이러더라도 빨리 펴라. 빨리 펴야지 그걸 우물쭈물하고 이거 생각 저거 생각 하다가는 펴지도 못하고 그거를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더라도 저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럴 때도 그냥 거기 가서 해요, 그냥. 여기다 하면 거기 내 몸이 열로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몸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무라도 인연이 있으면 모습이 돼서 다 서로가 맞먹어 들어가니까. 이 소리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을 보고 외로 꿰고 바로 꿰고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치가 이거를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물질세계가 50%라면은 무의 무심세계가 50%입니다. 무의 세계의 무심. 그런데 언제나 내가 있는 데에 있는 거지 내가 없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고 자불이 있는 거고, 그 자불이 자기가 알아지면, 상봉을 하게 되면 연등불이 되고 그렇게 화합니다. 그런 수없이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생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치.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문자답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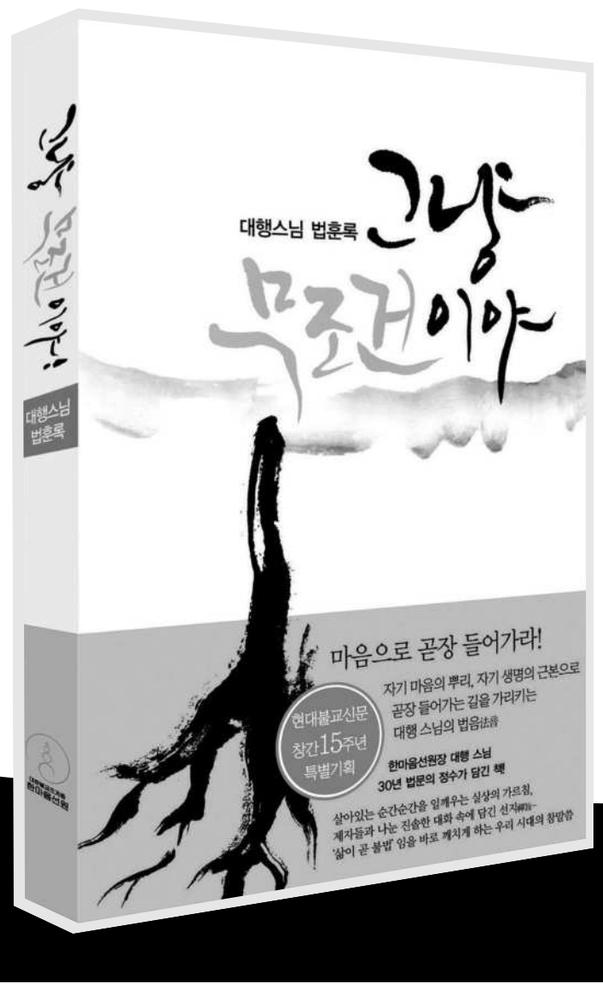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문) 큰스님께서 어린 시절 '아빠'와 대화하면서 주인공의 이끄심을 받았듯이 저도 제 자신과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는 것도 제가 묻고 대답도 제가 하는 건데 그 대답이 진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문자답 하는 방법이 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처음에 애기가 걸음마 떼어 놓을 때에 뭐, 잘 걸을 줄 알고선 걸음마 떼어놓습니까? 넘어질 줄 알고 걸음마를 떼어 놓나요? 그냥 넘어지든지 안 넘어지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냥 놓고 걷는 거죠. 그냥 걷다 보면 아주 잘 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자답, 이것도 쓸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문자답이라는 거 말로 자문자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가 영혼이 자기한테 다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 불성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이 너그러워야 몸도 너그러워지고 가정도 편안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나로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생각을 하고 바깥의 문제들을 가만히 보라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 서야 옳을지 어떤 걸 해야 옳을지 그것이 나옵니다, 답이. 답이 나오는 것도 사량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믿질 마세요. 모든 거는 그놈이 하는 건데,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어떻게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느냐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야 된다, 귀가 뜨여야 된다 이 소리는, 모든 바깥 경계를 잘 봐서, 내가 개천에 발을 떼어 놔도 개천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돼 있나, 그걸 잘 봐서 떼어 놔라 이거예요. 그래 떼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냥 떼는 것이 법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자문자답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 거기다 놓으세요. 이거는 포괄적인 마음이다 이겁니다. 한마음, 이 주인공에다가 아주 진심으로써 거기다 맡겨 놓으면서 생각을 딱 해 보면은, 바깥 경계와 안 경계를 다 잘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가다 보면은 이건 걸음이 점점점점 빨라져요, 걸음을 못 걷다가. 그게 실험이고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접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정말 그럴까? 이럴까?' 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가 하난데도 둘로 보고, 이거는 아주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무조건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수억 광년으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진화시킨 그 주인을 어째서 믿지 않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믿고, 이걸 깨치지 못했어도 진짜로 믿고 거기에 놓고 생각하면은,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질 못하고 '응, 한마음 주인공에다 놓고 하라니깐 뭐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니까 진실히, 한 달이라도 아주 굳건히 자기를 믿는 데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업보가 두터우면은 생각하는 것이 자꾸 비양심적으로만 생각이 가고, 자꾸 마음이 두꺼워지죠. 왜냐하면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모든 것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마음, 이 수억 개가 보살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건진다면은 바로 그냥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도 리드해 나가면서, 커버해 나가면서, 레이더망이 모든 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체크해서 책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누진이 말입니다. 이 두뇌에서.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두뇌에서, 또 무전통신기로서 다 사대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도 통신하고 안으로도 통신하고, 체크하고 결정짓고 이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대천세계하고도 이건 직결이 돼 있어요. 일체 모두가 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간 순간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하시지만 저희 중생들은 다가올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둬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라 하시니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사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쓸데없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그저 살아오던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가도 뭐를 봐야 한다. 어디로 가야 되나. 뭐 동서로 가야 되나, 남으로 가야 되나, 북으로 가야 되나 이런 것도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나가는 데 24시간에 우리에 해당한 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벌써 낌새가 옵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이 옵니다. 이 뜻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이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 오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생각으로 그냥 공식으로 해 버려라 이겁니다. 한생각으로 공식으로 해 버려라. 살생이 닥쳐올 때는 공생으로 해 버리고, 또 근심이 닥쳐올 땐 공심으로 해 버리고, 또 무슨 몸의 해로운 일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일에는 그저 공체로 해 버리시고요. 그러고서 무슨 일이 닥쳤다 하면은 공용으로, 그냥 생각을 공용으로 하고. 조그만 거라도 공용으로 하세요, 그냥.

그래 한생각이면 그저 내일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생각을 하면 내일까지도 가고 모래까지도 가고 이렇게 그냥 가다가 생각이 나면은 하시란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그냥 애타고 조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 몸만 병나지 애당초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러고서 속이 타면은 제삼자더러 자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뭐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신경질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일 살 거는 내일 걱정을 하고 오늘 살 거는 오늘 한생각으로 그냥 해 버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어떤 땐 내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거든요. 전 그렇게 미리미리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일 모래 할 건데도 오늘 그냥 한생각으로 그냥 뭉그뜨려 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날이 닥쳐오면 그 날 그냥 닥쳐오는 대로 이 아래 분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거요,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걱정하고 잡숫지 마세요. 그저 편안히 하고 잡수시면은, 먹을 게 없어서 한 말 가지고 요걸 어떡하나 요럭하고 잡수시고 그러면은 만날 한 말이 되다가 닷 되도 되고 한 되도 되고 이래요. 그렇지만 걱정 없이 그렇게 관하시고 사신다면은 한 가마가 생겨요. 그렇게 사세요. 이 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너그러워지고 몸이 너그러워지면 가정도 편안해져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게 굴면 못 견딜 일이 자꾸 생겨요. 정말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살짝 배신감이 들어요

문)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던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살짝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 들키기 싫어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아직도 자식에 대한 착이 많나 봅니다. 이 착이 딱 떨어질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이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모든 것을…. 착을 떼라는 건 '그도 주인공 있고 나도 주인공 있으니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탁 맡겨 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은 바로 좋은 말을 해 주고, 또 아주 만나면은 자식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 없이,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면 바로, 바깥에서 추우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망한 자식을 뒀어도 아주 나중에는 효자고 충성하고 아주 정의 정당 하게, 정말이지 인간의 그 진리를 알아서 탐구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떼어 놓고 사랑을 하고 좋은 말을 해 주고, 밉다 곱다 이런 것도 생각 말고 그저 만나면 좋은 말 해 주고 "얘! 굶지나 않고 다녔니? 나가서 며칠 밤이 됐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잘이나 먹었는지,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다 탁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럭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이렇게 야단을 치시지 않고 좋은 말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때에 바로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고 그렇게 행을 해 준다면 그게 금방 고쳐집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밉더라도 여기다 팽개쳐요. 여기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맡겨 놓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얻다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유자재하면서 아래로는 자식을 새 빛을 줄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로는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위로 묵은 빚 갚고 아래로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보시죠. 야, 자식들을 길러 놓으면 그렇게 부모는 100%를 다 줄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있고 잘못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식은 그렇게 부모한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 그거를 믿고 또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생각 마시고 '으레 그러려니. 나도 자식 노릇을 했더니 그랬더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시면서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착을 그렇게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그렇게 없지만 그냥 100%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떡해서 길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너 장가들고 이렇게 나를 버렸느냐 하는 그 '배신했다' 또 나쁘게 '전 같지 않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그 귀여운 자식을,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아요

문) 저에겐 이복 언니가 있는데 사이가 참 안 좋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밉고 안 좋은 마음만 내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결혼하고 떨어져 살아서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 건지요?

답) 내 한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모든 내 몸속의 의식이 한데 한마음으로 뭉친 거고 우주하고도 같이 이렇게 뭉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가발전소에다 모든 거를, 그 불에다가 그냥 모든 거를 거기 맡겨서 태우세요. 생각나는 대로 '어유, 둘이 아닌데, 뭘. 둘이 아닌데. 너 모든 게 이렇게 잊어버려지고 지워 주는 것도, 녹여 주는 것도 그냥 둘이 아닌 까닭에 녹여질 수 있잖아.' 하곤 그냥 그렇게 놓으세요. '둘이 아닌 까닭에 녹여질 수 있잖아.' 하고요.

슬플 때가 있어도, 생각이 난다고 걸리지 마시고요, 생각이 나걸랑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하세요. 하되 거기서 '둘이 아닌데…. 우리가 한 식구가 돼서 산 것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이 세상만사가 전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치인데, 그러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녹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그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정말 진짜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웃고 사세요
그냥 막 우그러져서
즉, 조상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이 낭가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펴야지,
우물쭈물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는
펴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불자 세상보기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올림픽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2014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 하면서 박수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마치 내가 딴 것처럼 기뻐하고, 패하면 울분을 토하고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한다. 적어도 경기 중에 다수의 국민들은 선수 혹은 팀과 일체감을 느끼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선수가 한사람 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3관왕이 되었던 안현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8년이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는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대표선수로 다시 금메달을 따냈다. 그가 러시아로 귀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한국의 빙상계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한국계 선수가 외국 국적을 갖고 국제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미국의 국민 스포츠인 미식축구에서 하인스 워드, 일본 축구대표팀을 지낸 재일조선인 3세 이충성 등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선수들은 여러 명 있다. 그렇지만 귀화하여 국적을 바꾸면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소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쇼트트랙 3천미터 계주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공상정은 대만계 화교출신으로 귀화한 선수이다. 일부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수한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켜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팀의 국적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일종의 스포츠 국적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포츠 분야의 국제교류는 매우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적을 유지한 선수 교류나 귀화 등을 통해서 국적을 바꾸는 선수들이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선수가 어느 나라에 가서 활동하든 그것은 해당 선수 개인의 결정일 뿐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다만 스포츠에 기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성향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 시키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국제경기에 입상하면 연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과 병역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선수촌 입촌과 동시에 각종 대회 참가에 국가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여기에 평생 일정액의 연금이 보장된다. 이것은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국민 전체가 즐겨야 하는 대중 스포츠가 특정 우수선수만 중시되는 엘리트 스포츠로 전환되는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권력자들이 등장하면 편파판정을 비롯하여 갖가지 부작용이 더 커진다. 또한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기기 보다는 경기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특히 경쟁국이거나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국적을 가진 상대방과의 경기 결과는 후폭풍이 더욱 거세진다. 축구경기장에서 난투극이 일어나거나 스포츠 경기가 전쟁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사례들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기쁨에 들뜨고 슬픔에 풀이 죽어 이리저리 욕망에 시달리는 이는 무엇 하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다"라고 설하셨다. 국가대표 선수의 메달 획득에 환호하고, 패배에 풀이 죽는 국민이라면 어떤 현상 하나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것이다. 올림픽 경기는 최고의 선수들이 겨루는 스포츠의 한 과정일 뿐이다.

어떤 스포츠이든 국제 경기에는 각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뽐낸다. 때문에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선수들에게는 국적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내야 한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시민, 깨어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社說

종단 개혁 20년, 성찰의 계기 삼아야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은 한국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다. 현재 조계종 종무행정체계는 1994년 이후로 새롭게 재편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준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계종 '종단개혁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실무진 구성과 대략적인 사업안들을 논의했다. 지지협동조합은 고산문화재단의 의뢰로 '조계종단 개혁 20년, 한국불교 진단과 미래 전망' 주제의 사업을 진행한다.

사실 종단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준비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이제는 발표돼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조금은 여론의 등살에 못이겨 현 집행부가 준비했다는 느낌도 든다. 그래도 종단 개혁의 초심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를 조망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종단과 시민단체, 두 곳에서 준비하는 사업들 모두 선양과 홍보보다는 비판과 성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종단개혁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20주년 사업은 단순히 선양이 아니라 불편하고 당황스럽더라도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승자의 역사로 선양되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E.H 카는 자신의 저서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역사를 정의한다. 역사는 현재의 눈으로서 과거를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다. 1994년 종단 개혁과 20년이 지난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한국불교가 성찰하는 지점이다.

인경사업 예산 빠진 반쪽짜리 경판조사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6년까지 전국 110개 사찰이 소장한 조선시대 목판 2만 7천여 점에 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경과 지정연구 등의 예산이 빠져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지적이 크다.

전국사찰의 경판 일제조사 사업은 목판의 인문학적 조사와 판종별 목록화, 수종 분석, 실측, 소장처 보존관리 현황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목판을 세척하고 보존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판종 및 판수를 확인한 후 개별 목판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다. 문화재청은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해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디지털、적외선 촬영을 하지만 인쇄 가능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경'이 빠진 것은 큰 문제다.

오히려 일선 전문가들은 그동안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경판에 대한 현황 파악 차원은 물론 자료 활용 및 기초자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인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러 목판 종류와 내용을 면밀히 밝히고 실제 인쇄가 되는지 여부와 그 인쇄물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불교문화재연구소측도 인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상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라도 인경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판 훼손이 심각하기에 인쇄물을 모아 보고서를 발간하면 후세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문화재청도 향후 해제나 인경 부분도 진행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예산 부족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사찰이 소장한 경판 360종 중 200종 이상은 국가지정 문화재급 들이다. 이렇게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만큼 당국서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 나서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간직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업이기 때문이다.

발언대

AI 집단 살처분 불교적 대안

404만2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살처분 된 가축 수다. 2003년 AI 발생 후 그 숫자를 따지면 2500만에 가깝다. 수치만 놓고 보면 재앙 수준이다. 이 같은 집단 살처분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조계종 사회부 주최로 2월 17일 열렸다. 세미나에 참가한 주요 패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종단, 적극 반대 목소리 내야



법응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 前 대표

AI를 둘러싼 살처분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 문제제기와 역할이 아쉽다. 토론회 개최를 넘어 실제 종단의 역량을 발휘해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등 보다 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불교계가 무책임하다 싶을 정도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불살생과 사회적 자비심 확산을 위해 종단이 전문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멀쩡한 가금류에까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살처분과 가축에 대한 대규모 공장 시스템,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는 생명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양심과 도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 지구적 환경문제와도 직결되기에 점차 고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음식문화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음식이 내 앞으로 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체험교육이 필요하다. 치킨, 햄버거 등에 쓰이는 '고기' 등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 시대 불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조류독감 원인은 공장식 사육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 생명체학 대방지포럼 대표

정부 발표처럼 조류독감 원인은 결코 철새에게 있지 않다. 오히려 닭, 오리 등 공장식 사육이 바이러스 생성,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잘못된 문제인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I는 새들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대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20세기 초 4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독감의 원인이 조류독감에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는 AI가 인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무분별한 살처분은 팔정도의 정업에 어긋난다. 지난 구제역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이 자책감으로 자살까지 내몰렸다. 현장을 겪은 그들은 하나같이 "야차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현재의 살처분과 축산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사회에서 커져나가고 있다. 조계종은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살처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하며 정부 또한 품종개량, 사육, 운송, 도살, 살처분에 걸쳐 동물복지를 고려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동물대하는 품격 바뀌어야



허남결
동국대 교수

2003년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 수는 2500만 마리에 가깝다. 여기에다 구제역 여파로 매몰된 350만 마리의 가축 수를 합치면 현재 우리나라 땅 속은 말 그대로 동물들의 사체로 가득한 실정이다. 집단 매몰지 주변에는 침출수의 하천유입 등 환경오염과 양계농부, 방역공무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 사태 뒤에는 육식문화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 많은 고기를 더 싼 값에 공급하려는 경제 논리 때문에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기를 먹되 가려먹고 줄여먹는 등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한 달에 며칠씩 고기 먹지 않는 날을 먹지 않는 날을 정하고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농장에서 온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다. 불교의 생명평화 사상을 이처럼 구체화하고 실천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매장 등 가축들의 비인도적 살처분은 불교생명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라의 품격이 나오며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